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조경학석사학위논문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변화 연구

- 「이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

The Changing Meaning of Gardens in Jane
Austen's 「Sense and Sensibility(1811)」 and
「Mansfield Park(1814)」

2016년 2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선 정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 변화 연구

- 「이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성 종 상

이 논문을 조경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0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선 정

김선정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15년 12월

위 원 장 Wylee Winkert (Wylee Winkert)

부위원장 조 경 진

위 원 이 정 상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 변화 연구

- 「이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김 선 정

위 논문은 서울대학교 및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학위논문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위원 및 초빙심사위원의 지도과정을
충실히 이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6년 2월

위 원 장 Wylee Huisen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부위원장 조경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위 원 이명우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 변화 연구

: 「이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조경학전공

김선정

지도교수, 성종상

본 연구는 정원의 의미를 18, 19세기 영국의 정원 양식을 망라한 풍경식 정원을 통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풍경식 정원에 대한 주체 관점의 해석을 당대 정원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집필된 제인 오스틴의 일련의 소설들, 『이성과 감성』, 『맨스필드 파크』를 통해 비교해보고자 하였다. 두 작품은 각각 그녀가 출간한 작품들 중 첫째와 후기 세 작품 가운데 첫 번째 작품으로, 두 소설이 집필된 18세기 말과 19세기 초의 정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각각 시공간적으로 대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틀로서 구축된 풍경식 정원을 한 작가의 일상적 기록을 통하여 재-해체함으로서 한 사회의 표현 양식으로서, 정원이 지닌 잠재성을 측정해보고 나아가 정원 속 주체의식 및 이데올로기(ideology)의 팽팽한 긴장감이 정원의 요소들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표현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은 집, 개인-사회의 관계의 장, 자연화 및 응시(gazing)의 장소로서 특히 상태적 자연에 대한 역동적 응시를 통한 새로운 자아의 발견 및 관계성의 회복을 도모하며, 귀결되는 삶의 과정의 일부였다. 풍경식이라는 정태적인 양식 아래 그녀의 주인공들의 내면에는 훨씬 동태적이고 상호 연관된 관계성이 정립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아이덴티티(identity)의 갈등이 심화되거나 해소되는 과정을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의 정원을 통해서 이해하는 것이었다. 오스틴이 거주했던 실제 정원들이 소설 속에 묘

사된 의미를 유추하기 위하여 장소(place), 태도(manner), 감정(emotion), 인물(character), 자아(self)의 의미소들을 기저로 설정하고 소설 속 정원 공간에서 출현한 단어 빈도표가 작성되었다. 이후, 수집된 어휘의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이분법적 구도로 의미 단위를 작성하였다. 분석 주제를 설정하여 두 텍스트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원의 의미를 도출하였다. 전작이 조화와 과정으로서의 정원, 내면과 하나 되는 요소로서의 풍경, 관상적 환원주의, 창문 통한 이차적 조망, 자유의지 등으로 정원을 인식한 반면 후작에서는 권위와 결과로서의 정원, 전체적 그림으로서의 풍경, 행동적 전체주의, 직접적 수용, 순응 의사 등을 통하여 정원을 보았다. 나아가, 두 소설에서 보편적인 정원의 의미는 회유의 정원, 공감의 정원, 절충의 정원, 치유의 정원, 비유의 정원이었다.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사이에서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들은 요소들이 두 가지 맥락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보충되고 결핍되는 기작을 장소, 태도, 감정, 인물, 자아의 의식적 변화를 통하여 환기한다. 풍경식 정원을 완전히 정형적이지도, 표현적이지도 않은 단지 매개적 상투물로 인식한 그녀에게 있어 정원의 의미성은 다양한 인물들의 주체적 의식이 정원의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순간적으로 제각기 발화되는 순간들이다. 그러한 순간들이 그녀의 서사 단위로 구성되어 정원에서의 보다 성숙된 일반적 사고 및 비판 의식으로 진척되는 발달 양식은 그녀가 당시 환경을 정원예술로서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오스틴이 실제 거주하던 당시 정원들에 대한 기록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부족하며, 향후 이용자의 선호도 및 어휘소 수집에 대한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keywords: *18-19c British garden, Jane Austen, landscape garden, picturesque, cottage*

목 차

제1장 서론	01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01
1. 연구의 배경	01
2. 연구의 목적	07
2절. 정원 개념	08
1. 공간의 해석적 범위	08
2. 내용의 해석적 범위	12
3절. 연구의 방법	14
1. 의미소	15
2. 의미 단위	23
3. 분석의 주제	29
제2장 제인 오스틴의 정원	42
1절. 코티지 (1775-1801, 1809-1817)	42
1. 정원의 배경	42
2. 소설 속 구현 방식	43
2절. 대저택 조경 (1801-1806, 1806-1809)	49
1. 정원의 배경	49
2. 소설 속 구현 방식	50
3절. 폐허 정원 (1806-1809)	52
1. 정원의 배경	52
2. 소설 속 구현 방식	53
4절.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재구성	55

제3장 두 소설 속 정원의 인식 비교 58

1절. ‘장소(place)’에 대한 인식과 의미 58

1. 이성과 감성 58

2. 멘스필드 파크 65

2절. ‘태도(manner)’에 대한 인식과 의미 71

1. 이성과 감성 71

2. 멘스필드 파크 76

3절. ‘감정(emotion)’에 대한 인식과 의미 78

1. 이성과 감성 78

2. 멘스필드 파크 80

4절. ‘인물(character)’에 대한 인식과 의미 82

1. 이성과 감성 82

2. 멘스필드 파크 84

5절. ‘자아(self)’에 대한 인식과 의미 84

1. 이성과 감성 84

2. 멘스필드 파크 86

제4장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정원의 의미 변화 88

1절. ‘장소(place)’에 대한 의미 변화 88

2절. ‘태도(manner)’에 대한 의미 변화 89

3절. ‘감정(emotion)’에 대한 의미 변화 90

4절. ‘인물(character)’에 대한 의미 변화 91

5절. ‘자아(self)’에 대한 의미 변화 92

제5장 결론 및 고찰 93

1절.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간 정원 인식의 분화	93
2절.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	95
3절. 결론 및 고찰	97
 ■ 참고문헌	99
■ 부록	103
■ Abstract	113

■ 표 목차

<표 1-1>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장소(Place) 어휘군	16
<표 1-2>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태도(Manner) 어휘군	17
<표 1-3>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감정(Emotion) 어휘군	18
<표 1-4>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인물(Character) 어휘군	21
<표 1-5>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자아(Self) 어휘군	22
<표 1-6>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장소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25
<표 1-7>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태도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26
<표 1-8>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감정과 관련된 대조 어휘군	27
<표 1-9>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인물과 관련된 대조 어휘군	28
<표 1-10>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자아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29
<표 1-11> 제인 오스틴의 소설의 주요 분석 키워드	30
<표 1-12>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번역본의 빈도별 정원 어휘	33
<표 1-13>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속 대조 어휘에 따른 세부 주제	35
<표 1-14>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속 대조 어휘에 따른 세부 주제 ...	40
<표 5-1>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간 정원에 대한 인식 분화	94
<표 5-2> 『이성과 감성』에 사용된 단어 빈도 표	103
<표 5-3> 『맨스필드 파크』에 사용된 단어 빈도 표	108

■ 그림 목차

<그림 2-1> 스티븐튼(Steventon) 코티지	44
<그림 2-2> The Chawton House Landscape	46
<그림 2-3> Chawton코티지와 제인 오스틴의 집	47
<그림 2-4> 바스(Bath)의 시드니 플레이스(Sydney Place) 주위 언덕 경치 ...	50
<그림 2-5> 켄트(Kent)의 고드머샴(Godmersham) 공원	51
<그림 2-6> Stoneleigh Abbey, Humphrey Repton	52
<그림 2-7> Southampton Sea Walls and Castle Square, Hampshire	53
<그림 2-8> Netley Abbey의 전경과 전망	54

제1장 서론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가) 18-19세기 영국 정원

정원은 이용자의 관점이 설계가의 미적 표현에 더해진 공간이다. 정원 공간에는 다양한 경관적 짜임 위에 당시 풍토를 반영하는 물리적 요소들이 독특하게 배열되게 된다. 감상자는 이러한 정원을 통하여 설계 특성에 대한 미적 평가, 취향, 지각 및 영향 등을 직·간접적으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정원 위 요소들은 내면적, 외연적 과정을 통해 늘 새롭게 재구성되므로, 본질적으로 의미에 대해 가변적이며, 유동적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조성되는 정원의 인식적 지평은 궁극적으로 예술, 문화, 자연의 총체로서 역사적 맥락에서 정원의 의미성을 정립하게 된다.

오래전부터 정원가들은 하나의 예술 형식으로서의 정원을 창조해왔고, 서양에서는 16세기의 이탈리아, 17세기의 프랑스, 그리고 18세기의 영국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다.¹⁾ 이들 정원들은 공통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흔들리던 시기적 격동기의 틈새를 타고 각기 다른 양식으로 분화하거나 기존과 다른 방식으로 조합되었다. 정원의 역사는 인간은 자연을 객관화하고 그것을 관찰하고 조종하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²⁾ 근대의 자연관의 해체와 회귀의 과정을 되풀이하며 시대별로 각기 독특한 양상으로서 전개해 온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18세기의 신고전주의로부터 19세기의 낭만주의로의 전환은 당시 정형식 정원의 질서에 대하여 낯선 조화를 도모하던 중요한 시기였다. 산업혁명 이후로

1) 황주영, “윌리엄 켄트의 정원에 나타난 풍경화적 속성,”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07), p. 225.

2) 최영국, “자연과 인간의 사이,” 『국토』, (국토연구원, 2001), p. 4.

새로운 가치관이 보수성과 상충하던 당시 영국 사회 안에서 정원은 기존과는 달리 한층 역동적이고 복합적인 전개 양상을 보였다. 당대 사회의 안정성과 불안정성을 모두 안고 발달된 18-19세기의 영국 정원들은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이성과 감성』 및 『맨스필드 파크』에 서로 다른 접근 방식으로서 제기되었다. 그녀의 가장 초기작인 『이성과 감성』이 풍경식 정원의 시적인 비전의 발달이 영국 정원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던 18세기 후기를 대변³⁾한다면, 후기의 세 작품 가운데 하나인 『맨스필드 파크』는 자연을 바라보는 힘이 줄어들고 개인적이고 고요한 시각으로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 새로운 정형성이 부각되던 시기적 변화를 암시한다. 그녀의 작품들 가운데 두 작품을 선정한 이유는 첫째, 18세기와 19세기의 과도기적 변화가 그녀의 첫 작품인 『이성과 감성』과 19세기에 들어 가장 처음 쓰여진 『맨스필드 파크』 사이에 진보적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이다. 가장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혼재하는 『이성과 감성』과 고정된 공간에서 수동적으로 적응한 자아가 역가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가장 모순되게 제시하는 『맨스필드 파크』를 비교함으로써 당시 정원 스타일이 한 주체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반응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각기 다공간적 시점과 시간적 프레임으로 구성된 두 개 서사 사이의 십 년 가량의 공백기 동안 제인 오스틴은 집필 활동을 멈추었고 그녀가 다시 후기작 중 하나인 『맨스필드 파크』를 구성하면서 기존에는 드러나지 않던 비판적 의도가 가장 직접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풍경식 정원의 순수한 조영 의도를 측정하는 제인 오스틴의 개인적 비평이 어떻게 그 의도성이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조명하는지 분석하는데 있어서 『이성과 감성』의 감정과 이성을 각각 대변하는 엘리너와 매리언, 『맨스필드 파크』의 절충적 자아로서의 패니가 그 발전 모델을 순차적으로 제시하여 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작품 속 정원들에 대한 오스틴의 의식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18세기 풍경식 정원의 의미와 문화적 중요성이 19세기로 들어서며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보고자 하였다.

당시 영국은 프랑스의 종교와 정치에 반대하고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승리함으

3) 이성과 감성의 출판년도는 1811년이지만 오스틴은 18세기 후반에 매리언과 엘리너라는 제목으로 소설의 초고를 이미 완성했다.

로써 일류 국가의 대열에 들어가게 되고 새로이 안도감이 생겨났다. 그로 인해 숭고함, 장대함, 두려움 같은 미를 함유한 ‘픽처레스크’가 유행하였다.⁴⁾ 펍스터(N. Peevsner)가 말한 ‘영국적임’의 한 특성인 뿌리 깊은 자연취미와 경험주의 전통에 입각하여⁵⁾, 부드러움과 거칠음이 조화된 새로운 형태의 정원은 영국의 전통적인 풍치를 안은 취향으로서 영국 사회에 유행하듯 퍼졌다.

18세기 중엽부터 영국에서는 본토 내, 특히 영국 서북부의 호수지방(Lake District)과 스코틀랜드 고지대(the Highlands)에 대한 여행도 빈번해진다. 이 당시의 여성여행자들은 심미적인 면에 집중하게 되어 ‘그림같은’ (the Picturesque)을 감상하고 또 글로 ‘그릴’ 수 있게 되고, 또 이 ‘그림같은’은 버크의 ‘숭엄함’과 ‘아름다움’에 이어 1790년대와 1800년대 초기에 제 3의 심미적 범주로 자리 잡았다. 길핀(William Gilpin), 프라이스(Uvedale Price), 나이트(Richard Payne Knight) 등은 이 ‘그림같은’의 범주를 아름다움인 듯 보이는 자연 상태에 더 가까운 ‘거칠음’으로 규정한 바 있다. 이처럼 그림 같은 경치를 보는 시각은 18세기 영국에서 신사의 특권으로 간주되어 온 ‘초월적 조망위치’와 유사한데 이는 자연계를 가령 정치경제학자의 시각 같은 현실적 시각이 아닌, ‘순수하게 아무것도 개입되지 않은 시각’으로 거리를 유지하며 보는 관조적 태도이다.⁶⁾ 이러한 응시의 과정에 정원의 이용자들이 주체적으로 개입하여 서로 취향을 공유하는 것이 어느 정도 품위를 드러내 주는 신사적 장치가 된 것은 당시 자국 내외로 새로이 부상된 우아성과 맥락을 같이 한다.

18세기의 자연을 보는 관점의 배경에는 이신교(Deism)의 영향이 큰데, 여기에서는 신이 자연의 저자(the Author of Nature)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17세기의 뉴턴, 갈릴레오, 보일, 코페르니쿠스 등의 자연과학상의 발견으로 인해 인간의 지력으로 알 수 없는 광대무변한 우주나, 극미생물 등에 접하며 사람들은 이

4) 민주식, “픽처레스크 정원에서의 폐허 예찬: 샌더슨 밀러의 인공폐허건축을 중심으로,” 『미학』, 80, 2014, p. 117.

5) 마순영, “산업혁명기 영국의 풍경화와 풍경이론: 터너의 풍경화,” 『인간·환경·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8), p. 205.

6) 조선정, “여성의 성숙과 교육—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읽기,” 『영어영문학』, 52(4), 2006, p. 836.

모든 것 뒤에 신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⁷⁾ 당대 영국의 신사 계급은 목사관, 저택, 폐허 등의 건물이 인공호수, 숲, 해안절벽 등의 자연 풍경과 알맞게 조화를 이루는 장면을 선호하며 경탄을 아끼지 않았다. 이들은 도시의 삶 및 권력이나 가부장제의 무상함의 정통성과의 상충을 새로이 조영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원의 꾸준한 관리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취향의 소통으로 이어졌다. 이처럼 문화적 산물로서 정원은 이 시기를 대표하는 정원사인 켄트(William Kent, 1685-1712)의 처음으로 담장을 넘어 모든 자연을 정원으로 보았던 시도만큼이나 사회의 전 영역을 넘어 확산된 매개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정원에 대한 작가 인식

18세기에 이르러 인간을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천사보다 한 단계 낮은 존재물로, 신과 동물사이의 중간 단계에 놓인 희비극적 존재로 보던 신고전주의적 인간관은 사양길에 접어들고 샤프츠베리(Shaftesbury)나 루소(Jean Jacques Rousseau)가 주창하는 감상주의가 새로이 등장하기 시작했다.⁸⁾ 영국은 당시 다른 어떤 제국들보다 더 크고 위압적인 제국이었으며, 또 다른 나라보다 월등한 소설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⁹⁾ 이 당시 영국의 작가들은 낭만주의 그리고 고딕 소설의 바탕이 된 풍경식 정원과 폐허 정원들을 근간으로 시골의 자연과 신분이 낮추어진 인물들을 등장시켜 변화하는 시대상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예술과 자연을 새롭게 이어준 문학적 연상은 초기 풍경식 정원의 디자인에 영향을 주었다. 이 정원들은 방문객들이 관람자인 동시에 배우가 되는 곳이었다. 그러나 앉아 있는 관객들 앞에서 목가적 드라마가 전개되는 극장과는 달리 정원에서 관람자들

7) 최인환. “레드클리프의 『숲속의 로맨스』에서의 자연경관 묘사의 의미와 역할,” 『근대영미소설』, 12(2), 2005, p. 303.

8) 문학숙.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에 나타난 마리엔 대쉬우드의 도덕적 성장,” 『인문연구』, 19(2), 1998, p. 2.

9) 이해지.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1997, p. 55.

은 각 장면들로 옮겨 다녔고 정원의 풍경은 각 관람자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의 배경이 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을 지나면서 초기 정원에서 두드러진 고전 문학을 상기시키는 도상적 요소가 약화되고 자연 자체의 요소로 아름다운 풍경을 표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점차 강해졌다.¹⁰⁾ 18세기 말부터는 계몽주의의 반발을 계기로 새로운 의식과 기분전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국 전원의 낭만적, 정서적 풍광이 본격적으로 소설 속에 빈번히 묘사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전환기에 영국의 주요 근대 작가 중 한 명인 제인 오스틴(Jane Austen, 1775-1817)의 소설들에 정원이 꾸준히 등장하였다는 점은 이러한 시대정신의 변화가 정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다. 제인 오스틴의 전기와 후기 소설에 나타난 정원의 변화된 표상은 18세기와 19세기의 영국 정원의 발달에 있어 그 주체들의 인식 또한 변화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단서가 된다. 기존의 정원 양식에 끼어든 낯센과 새로움은 그녀의 후기 소설에서 상투적이고 고정된 표상을 통하여 도리어 비판되어지며, 당시 풍경식 정원 뒤안길의 반발의 한 장면을 보여준다. 역설적으로 이성만능의 시기에 영국의 자연풍경 속에 점차적으로 퍼진 전원적인 정원들은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 픽처레스크(Picturesque)라는 하나의 경관예술로 발달되어 현대 조경에 자연성과 숭고론 등을 필두로 이어지는 다양한 논제 및 설계의 주안점들을 망라하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에서 정원으로서 상투된 공간은 주인공의 내면적 기인과 외부 세계로의 관계를 통하여 창출되는 의미가 정립되는 과정을 드러내는 무대이자 인물과 배경이 소통하는 자연적 장치이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서 각 사건의 발달은 작가에 의해 전략적으로 정원에서의 시간과 공간적 장면의 배열로 이어진다. 그러나 스티븐튼(Steventon) 목사관을 떠나 바스(Bath)와 사우스햄튼(Southampton)을 거쳐 초우튼(Chawton)에 정착하기까지 제인 오스틴이 글을 쓰지 않았던 10년 간¹¹⁾의 공백을 추론하는 것이 모호하다. 또한, 제인 오스틴이 집필한

10) 황주영, “윌리엄 켄트의 정원에 나타난 풍경화적 속성,”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07), p. 246.

11) 이월지, “제인 오스틴 소설의 ”여가의 문제“ 재평가,” 『근대영미소설』, 7(2), 2000, p. 121.

초기 세 작품 중 하나인 『이성과 감성』(1811)이 쓰인 시기는 1800년대 이전으로 불확실할 수 있으며, 두 소설에 대한 광범위한 수정작업이 출판을 전후하여 행해졌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 두 작품을 단순히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 정원 인식에 대한 그녀의 태도변화를 유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텍스트 속에 드러난 정원의 인식에 대한 의미적 범주에 차이가 있다는 점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제인 오스틴의 상상력과 심미안을 통하여 텍스트 속에 투영된 정원의 모습은 실제 그녀가 거주한 정원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회귀되거나 사회에 유행하던 하나의 양식으로서의 그림 같은 모습으로 치환되는 역가적인 반응을 통하여 내외적 시각에서 정원과 사회의 다층적 변화를 새롭게 조망하였다.

지금까지의 제인 오스틴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 정치적 상황이나 남성 세계를 배제한 ‘가정소설(domestic novel)’을 쓰면서도 그 안에서 인간본성의 진실,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보편적 문제들을 심도 있게 그려낸 작가라는 데에 있었다. 대체로 오스틴 소설의 무대는 18세기말 영국 남부의 고요한 시골 마을이고, 중류 계급에 속하는 그곳의 몇몇 가정들이 빚어내는 평범한 생활상이 그 줄거리를 이루고 있다.¹²⁾ 초기 세 편 중 하나로 꼽히는 『이성과 감성』(1811)과 그녀가 출판한 6편 소설 가운데 후기 세 편의 첫번째 작품인 『맨스필드 파크』(1814)에서 제인 오스틴은 그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인간상의 진실을 배경이 되는 정원을 통하여 각기 다른 양상으로 드러내었다. 결국 일상의 문제들로 기인되는 정원의 다양한 요소들은 그녀의 응시와 주체적인 해석을 통하여 내외적 관계물로 재구성되며, 그 사이에 정원에 대한 다양한 주체들의 태도 및 인식의 범주 역시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정원에 대한 시선의 이동은 사건에 긴밀히 얽혀 스케일, 조화의 정도, 기분, 태도, 자아의 재구성 등에 따라 이야기를 끌여가는 주인공을 향한 정원의 다양한 영향력으로 이어진다.

12) 이해지,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1997, p. 56.

2) 연구의 목적

본고의 중심 연구 대상인 영국의 18-19세기 정원은 조경사에서 풍경식 정원 연구의 소재로써 회화에서 기인한 하나의 예술적 분파로 간주되었다. 정원의 예술화는 당대 유명한 정원가 및 이론가들의 순수한 의도성의 회귀를 통해 표출되어져, 사회 속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한편으로, 풍경식 정원 조영의 유행은 일상에 깃든 시대상의 미묘한 변화를 포착하여 이를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소홀히 하며, 풍경식 정원의 초기 연상적 측면을 도리어 왜소화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형식적 틀로 구축된 풍경식 정원을 한 작가의 일상적 기록을 통하여 재-해체함으로써 한 사회의 표현 양식으로서 정원이 지닌 잠재성을 측정해보고 나아가, 정원 속 주체의식 및 이데올로기(ideology)의 팽팽한 긴장감이 정원의 요소들을 통하여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표현된 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의무, 도덕, 동기, 감성, 이성, 지각 등 추상적이고 보편적이나 폭넓은 의미를 그녀의 두 소설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당대 사회 속 정원에 팽배한 식견이 정원의 양식의 변화에 미친 기인을 범주화하고 구체적인 텍스트 분석을 통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정원의 물리적 요소에 대하여 이용자의 주체적 해석의 변화가 발생하는 기작을 그녀의 초기-후기를 대표하는 두 소설, 『이성과 감성』과 『맨스필드 파크』에 비교하여 궁극적으로 정원에 주체적 해석이 개입되는 과정이 시사하는 의미를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그녀가 『이성과 감성』을 통해 다자적 공간적 시점에 입각해 정원을 묘사한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는 고정적 정원에 대한 이용자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차이를 반영하는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은 단지 소설 속에 배경으로 등장한 것을 넘어서 당시 정원 양식에 대해 팽배한 반성 및 그로 인한 새로운 변화를 포착하는 기저로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정원에서 시시각각 변하는 식물, 날씨 등의 요소를 고려했을 때, 소설의 장면들에 단편적으로 구현된 정원의 물리적 요소나 즉각적 감정, 사건의 전환보다 두 소설 속 정원에 나타난 전반적인 의식의 흐름을 다방면에서 포착하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이에 장

소, 인물, 감정, 태도 및 자아와 관련된 의미 단위를 폭넓게 추출하고 그와 관련된 빈도 및 상관성 높은 어휘를 선별하여, 오스틴이 인식한 정원의 의미적 주제 단위들을 바탕으로 두 텍스트를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정원에 통상적으로 개입되는 경관, 풍경, 자연성, 물리적 소재들을 한 작가의 주체적 발화를 통한 정원 이용자의 내외적 관계성의 정립 과정으로서 설명하였다. 이를 통해 정원에 대한 관조적 거리 이후 좁혀지는 주체의 자기상관성을 정원 요소에 관계 지어 심층적으로 분석해보았다.

현대에 복합적으로 분화된 정원의 혼합적 속성에 대해 이용자가 늘 새로이 인식하는 한편, 사회 속에서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수용되는 이중적 기작을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에 드러난 풍경식 정원의 인식적 변화를 통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는 정원 공간에 대한 이용자들의 인식을 측정하고 취합하는 조사연구들의 의미소들에 대한 기저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2절 정원의 개념

1) 공간의 해석적 범위

정원은 미적이고 기능적인 목적으로 구성된 특정한 구역인 뜰로서, 한 사회와 시대의 생활 문화, 가치체계 및 예술이 총체적으로 집결된 장소이다. 국제기념물 유적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on Monuments and Sites, ICOMOS)는 피렌체 현장 결의문(1982.12.)에서 정원의 중요성을 역설하였다.

정원은, 문명과 자연 사이의 직접적인 친밀감의 표현이며 명상이나 휴식에 적합한 즐거움의 장소로서, 이상화된 세계의 이미지라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원은 어원상 “낙원”(paradise)이라는 뜻일 뿐만 아니라 한 문화, 양식, 시대, 혹은 한 창조적인 예술가의 독창성을 입증하기도 한다.¹³⁾

13) “이코모스,”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gardens_e.htm (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정원의 울타리와 경계를 넘어 연속되는 경치와 날씨 등의 외연적 요소 또한 정원에 긴밀히 귀속되는 공간적 영역으로 볼 수 있다. 정원의 자연적 요소는 자체적으로 정원을 생성하고 변화시키는 동력이 되므로 정원에 있어 인간의 개입은 본질적으로 매개적이다. 그러나 정원을 방문하는 이용자의 인식에 따라서 그 지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원 공간을 특정한 영역으로 제한하기에는 그 속성이 본래 가변적이고 확장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원의 물리적 요소 이면의 자연성, 풍경, 양식 등 사회문화적 속성을 지닌 공간이 작가 및 작가에 의해 상투된 인물들에 의해 주체적으로 재구성되는 해석적 공간으로서 정원의 공간을 이해하였다.

가) 장소와 자연과 인간

인간을 ‘생각하는 갈대’로 규정한 파스칼의 개념이 자연을 생성 및 변화시킬 수 있는 자기 동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근대 자연 과학의 시작과 함께 자연은 인공적으로 새롭게 구성되고 관리될 수 있는 가변적인 공간의 영역으로 들어서게 된다. 조경 공간의 효용적인 틀과 구태의연함에 비하여 그러나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자연과의 관계는 정원 속에 자연 그 자체에 관심을 갖는 자연적인 정원을 유도하는 동인이 되어 온다.

18 세기에 들어 이성만능주의에 입각한 외래의 가치체계 및 규범양식에 대한 회의감은 정원의 자연적인 특성을 더욱 강조하게 하여 알렉산더 포프(Alexander Pope, 1688~1744)같은 시인은 자연을 모사하는 것을 ‘존경할 만한 고전의 법칙’¹⁴⁾으로 제시하며 자연을 따를 것을 주장한다. 당시 영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이탈리아의 풍경화나 대륙 내외로의 여행은 정원의 자연적인 특성에 대한 이러한 예술적인 고양을 일반 시민들의 의식 속에 도래시켰다. 시골풍경을 조망하고 예

14) Peter Kidson, *A History of English Architecture* (Pelican Books, 1965), p. 220.

술적 취미로서 정원을 관리하는 풍토가 영국 사회의 중상층 신사들에게는 사회적 입지를 표명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자연의 모사를 넘어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정원을 새롭게 바라본 시각은 고전주의에 대한 반동으로 자연과의 낭만적인 관계를 회복하려는 시도로 이어졌다.

이러한 시도는 추상적이고 일반화된 정원 공간(space)이 구체적이고 주관화된 장소(place)들로 전환되는 특별한 장면들로서, 인간을 자연 중심에 새로이 환원시키는 풍경식 정원의 시초가 되었다.

나) 풍경의 의미

본래 풍경(風景, Landscape)은 변화하는 자연의 대기와 기상현상 등의 자연의 물리적인 변화를 의미한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재현되는 자연은 보는 주체의 대상이 되는데, 이러한 풍경화의 개념은 서구의 인식론에 기반한다.¹⁵⁾ 한편, 일상적인 사용에서 풍경이라는 단어는 주체의 시선에 포착되는 특별한 정경이나 상황을 뜻하는 중립적인 것이다. 풍경은 낮선 것이지만 차츰 낮익어지면서 일상이 된다. 이는 시선의 시공간적인 이동을 통해 만들어지며 그것을 바라보는 주체의 시선을 자기반영성을 형태로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공간으로 사유될 수 있다. 풍경은 객관적인 것으로서의 공간과 주관적인 것으로서 장소의 불일치로 인한 간극에서 생겨난다.¹⁶⁾

풍경을 만들어내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관적인 시선이다. 아무리 대단한 경치가 있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이 없다면 풍경은 존재할 수 없다. 그 만큼 풍경의 영역에서 주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주관에 절대적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 대단하거나 멋진 경치만이 아니라 그 어떤 사소한 일상적인 광경이라 하더라도 풍경이 될 수 있다. 풍경을 발견하는 주관의 경험이란 그 잠재적인 것을 현실적 실체로 바꾸어놓는 것뿐이겠다.¹⁷⁾

15) 이지영, “오늘날의 풍경, 풍경화,” 『미술세계』 (2013년 7월), p. 87.

16) 서영채, “절대 공간으로서의 풍경: 두 번째 풍경과 존재론적 순간,” 『한국현대문학연구』, 4, 2000, p. 569.

멜랑콜리와 숭고함의 주체로서 풍경은 그 모방이나 재현을 목표로 하는 풍경화의 시적 경치를 설계하고자 한 풍경식 정원이 추구했던 원형으로 볼 수 있다. 영국 시골의 전원적인 풍치는 ‘그림 같은 자연’의 전형이 된 이탈리아 정원들의 풍경을 모델로 한 풍경화식 정원의 실현으로 이어진다. 18세기 영국 풍경식 정원 양식이 형성되던 당시 정원 조영자와 이론가들은 ‘시는 그림과 같이’라는 고전적 교의에 입각해 제작된 역사화나 이상주의 풍경화처럼 정원을 조원하고자 했다.¹⁷⁾ 미의 표현과 숭고의 수용에 입각하여 당시 정원들은 풍경을 그들이 거주하던 주택 주변으로 끌어들여 스스로 자연과 하나됨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적절한 거리에서의 응시와 관조로 발생하는 새로운 풍경에 대한 해석의 과정이 부합된 시각은 정원 역사에서 주체 의식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당시 정원문화를 일상의 다양한 현상을 포괄하는 총체적 집결소, 다시말해 풍경으로서 정원을 인식한 계몽적인 때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 작가가 재구성한 풍경

소설의 바탕이 되는 정원에 대한 인식에는 작가의 주관적인 해석이 필연적이다. 제인 오스틴이 살던 당시 정원들은 폐허가 된 수도원이나 해안 절벽과 같은 장엄한 풍치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18세기 후반, 로맨스의 부활이 되는 감상적 소설과 고딕 소설들에 다양한 소재를 제공한다. 문학 작품 속에서 프로타고니스트(protagonist)는 주역, 주창자로서 장면들에서 극을 끌고 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작가의 소설의 배경으로서 인식되는 정원은 프로타고니스트들의 심리 변화를 대변하며, 주요한 사건 행위들에 대한 서술의 장이 된다. 프로타고니스트의 갈등 구조에 따라 다양하게 변신하는 정원은 일상적인 삶이 영위되는 경험의 틀로, 사건 전개와 우연성과 결말로의 필연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17) 같은 논문, p. 576.

18) 황주영, “윌리엄 켄트의 정원에 나타난 풍경화적 속성,”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07), p. 246.

정원을 모사한 소설들은 자연에 대한 아름다움, 숭고성에 대한 작가의 인식이 인간과 자연 사이의 조화를 도모하는 의지로써 텍스트 내에 투사되며, 일상에 구체적인 초점이 조망되는 새로운 풍경화가 된다. 회화, 정원 그리고 문학은 ‘자매 예술(Sister Arts)’로서 당시 영국에서 높게 평가되었고 초기 풍경식 정원들에 다양한 문학적 연상들이 적용되었다. 제인 오스틴은 초기적 풍경식 정원에 대한 함유를 담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한 비판적 견지를 다양한 인물들을 통하여 제시하여, 19세기로 이어지는 풍경식 정원의 풍토 변화를 사전에 감지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녀의 책에 등장하는 풍경은 일차적 인상, 상징적 요소, 미와 쾌 의식을 넘어 전형성, 취향, 운영 등 사회경제적 주제이자, 가장 일상적이고 사적인 내면화의 주체가 된다. 과도기적 영국 사회의 이상주의와 더불어 오스틴은 고전적 원칙과 시대양식의 전환 사이에서 인간과 조경의 관계에 대한 다양한 탐색을 시도하는 그녀만의 풍경 어휘군을 조영하였다. 이러한 풍경은 그녀의 텍스트에 함축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서사와 더불어서 사회문화적인 동시 인간적 변화를 정원 속에 다층적, 내외적으로 투영하였다.

2) 내용의 해석적 범위

목가적 자연 정원을 구성하는 내용을 크게 정원의 물리적인 요소들과 그에 대한 주체적 인식 및 내면화 과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제인 오스틴이 실제로 거주한 정원들은 코티지(Cottage Garden), 대저택 조경(Landscape of largest mansion), 폐허(Ruins) 등으로 다채로운 유형을 망라한다. 이들 정원들의 요소는 직접적으로 그녀의 텍스트 속에 드러나기를 거부하고 기억 속의 정원 장면을 회상하거나 꾸준히 향수하는 양상과 같이, 상당히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정원에 대한 직접적인 묘사는 다양한 풍경과 마음의 기후에 따라 인물들의 변화로 초점이 맞추어져 현실화되고 있어 정원의 동태적인 의미가 그녀의 일련의 소설들을 따라 내외적 동인에 의하여 형성된 점을 알 수 있다.

가) 정원 요소

제인 오스틴의 소설을 통하여 해석 가능한 정원의 요소들은 객관적이고 물리적인 자연을 이용한 인공물로부터 미적 감상의 매개체인 회화적 자연을 가로지르며 하나의 그림 같은 장면으로서 구성되어진다. 자연을 극화시키는 요소들은 기하학적 체계를 투사하던 프랑스 정원과는 달리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연속적으로 맞물리는 정원의 장면들을 재-요소화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물리적인 요소 - 이용자의 주체적 시선 및 경험 - 시선의 이동 및 사건의 전개로 회귀되는 그녀의 시나리오 속에서 정원은 물리적으로 상투되는 동시 그 무의식적인 지평이 늘 잠재적으로 고려되어 있는 것이다. 자연의 환영적 재현과 이를 유리하게 한 당시 유행식 정원의 특성에 입각하여, 작중 인물들 및 상황에 의거하여 그 자연성이 유리하게 표출되었다. 자연과 인간의 재현의 주체가 되는 정원의 요소들은 공간과 시간의 초점에 따라 두 작품에서 중요한 차이를 내어 당시 정원의 변화와 발전 양상을 당대의 감수성에 빚대어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단서가 되었다.

나) 주체적 인식과 내면화 과정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래로 서양 근대에 이르는 모방론의 전통에 따르면 예술은 눈에 보이는 외적 세계를 그리는 것이다.¹⁹⁾ 제인 오스틴이 살던 당시 유행하던 풍경식 정원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인간의 위치를 자연에 끌어당겨 선호되는 입지에 환유시킨 새로운 시도였다. 이러한 양상을 이차적으로 그린 그녀의 소설은 정원을 인간의 언어로 번역하여 자연의 형태나 의미를 조합, 풍경과 텍스트를 병치시켰다. 소설 속의 풍경, 소설 속 풍경이 된 정원은 그녀의 작품에서 동등하게 평가되며 당시 정원 문화를 주관적인 잣대로 측정하고 실험했다. 그 중심

19) 김현돈, “서양예술사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2005), p. 2.

에 배치된 다양한 인물들과 그들이 휘말리게 되는 소설의 기후는 전형적인 영국 신사 가문에 태어난 영국 시골 마을의 여성으로서 자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의 입지를 재검토하며, 사회와 자연, 자연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정원의 관계성을 서술하였다. 이러한 풍경으로의 새로운 다가감은 마치 당시 사회 속에 유행하던 풍경 정원을 대표하는 그림들처럼 역가적으로 투사되어, 후대에 정원과 인간의 떼어질 수 없는 관계를 입증하는 시도가 된 것으로, 그 예술적 정원에 대한 작가의 의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3절 연구의 방법

제인 오스틴의 소설 안의 정원에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흐름과 당대의 사회의식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인공적으로 조성된 정원 요소들에 대한 그녀의 자연스러운 시학은 당시 영국성의 기준에 부합하는 진정성을 찾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여류 문학 정전의 가장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인 그녀의 작품에는 인위성과 자연성이 의미적으로 팽팽하게 상충한다. 이러한 의미적 긴장 관계는 그녀와 사회 사이의 도덕관, 재물관, 여성관 및 자연관에 발생하는 간극으로 조명되어, 영국의 날씨만큼이나 빈번히 변하는 정원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감성적 변화, 그들의 인식 체계의 구성으로 이어진다.

정원의 다양한 표정을 포착하는 데에 그녀가 활용한 어휘소들을 직접적으로 분류하고 범주화하기 위해 어휘 수집을 위한 포괄적 범주를 작성하였다. 추출된 단어들의 빈도 및 상관적인 관계성을 측정하여 정원에 대한 주요한 의미적 틀을 그렸다. 다음으로 ‘이성과 감성(Sense and Sensibility, 1811)’, ‘맨스필드 파크(Mansfield Park, 1814)’의 원서 내 반어 관계(Dichotomy relations)에 있는 단어들로부터 스펙트럼을 구성했다. 상관 정도에 따라 중요도가 높은 대조군에 입각하여 텍스트 분석을 위한 세부 단위 주제들을 결정하였다. 각 주제에 대해 두 소설

의 구체적인 텍스트 비교·분석을 통해 정원에 대한 의미 및 그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1) 의미소

정원이라는 보편적인 장소에 대한 내면화 과정을 읽기 위하여 그녀의 등장인물들과 가상의 정원의 내외적 관계성을 포괄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범주를 장소, 태도, 감정, 인물, 자아로 구성하였다. 소설 속에서 정원의 의미를 드러낼 수 있는 다섯 가지 단위로서 정원에 대한 장소적 인식, 정원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태도, 주인공의 감정 변화, 인물 평가 및 자아의 재구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스틴의 서사 구조에 정원의 이미지가 병합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 소설 속 단어들 중 가장 많이 출현한 어휘를 우선 선별하였다. 각 군집에 속하는 어휘 빈도수를 추정해 보았을 때, 군집 별로 어휘들이 반영하고 있는 특정 의미들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차후 분석 주제 결정을 위한 기본 의미소들로 지정하였다.

장소 (Place)

인간에 의해 경험된 공간으로서 장소²⁰⁾는 물리적 공간 위에 향유되는 의미적 발화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오스틴의 실제 경험과 사회적 풍토에 입각하여 구성된 다양한 형태의 정원들은 좁은 산책로, 갤러리의 곡선으로부터 연장되는 능선과 해안선에 이르기까지 다른 스케일과 깊이 차이를 반영함은 물론, 그러한 공간에 대한 오스틴의 애착 및 비판 정도에 따라 다르게 상투되는 이차적 공간이다. 매개적인 표현물로서 정원의 장소란 건축, 자연적 풍경, 날씨와 같은 물리적 환경에 인간의 기억정보, 감상, 취향 등의 비시각적 정보가 입력된 제약된 시공간을 뛰어넘는 구상된 장소가 된다. 오스틴의 소설 속에서 이러한 장소들은

20) Raymond J. Wilson III, "Gardens in Stoppard, Austen, and Goethe, Gardens and the Passion for the Infinite," in *Gardens and the Passion for the Infinite*, Anna Teresa Tymieniecka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p. 60.

자연, 인공물을 포괄해서 정원에 대한 인물들의 인식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장소에 대한 어휘군은 특히 문화적인 공간으로서, 또한 내면적인 공간으로서 정원의 성격을 강조한다. 장소와 관련하여 가장 출현 빈도가 높은 단어는 ‘house’ (SS:72, MP:25)이며 이는 ‘home’, ‘estate’, ‘power’, ‘park’, ‘water’ 등과 병치를 이루었다. 『맨스필드 파크』는 정원이 고착된 집(home)으로 사유되며 순응적인 풍경이 전면적으로 제시된 데 비해 『이성과 감성』의 정원들은 자주 변하며 끊임없이 의심되는 공간이었다. 이들 공간에서 코티지에 관한 향수가 주를 이루었다.

[표 1-1]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장소(Place) 어휘군

	house (72)	engagement (45)	marriage (32)	street (18)	nothing (17)	cottage (15)
이성과 감성	home, estate accommodation, property, handsome, furniture, advantage, park, legacy, sum, state, water, festival	money, attraction, arrival, meeting, amusement, opportunity, provision, resemblance, relationship	fortune, chance, money, leisure, belonging, household, principle, rank	town, civility, payment, succession, residence, stock, welfare, park	articulation, grave, imperfection, whole, power, restriction, promise, silence	home, house, valley, conjecture, estate, continuance, picture, woods
	house (25)	walk (23)	home (19)	marriage (17)	continuance (13)	wilderness (12)
맨스필드 파크	home, alteration, county, power, maintenance, property, estate, habitation, moderation, representation, heat, furniture, key, iron gate, absence, window	composure, association, reflection, observation, dialogue, meditation, avenue, state, temptation, reconciliation, distance, truth, wall, confusion, distance, self-evident, tranquility, part, health,	cottage, house, living, education, private, inconvenience, park, secrecy, indoor, taste, shelter, protection, familiar	fortune, income, economy, principle, money, arrangement, disengaged, estimation, transaction, disadvantage, vanity, wealth, purpose	connection, intercourse, resemblance, comprehension, style, distinction, variety, ground, acknowledgment, compass, garden, whole, sameness	country, power, nature, punishment, spirit, fault, separation, shrubbery, superfluity, picture, journey, presence, rain, view, removal, safe, nothing, tranquility, shadow, danger, winter, plant cure, voyage

태도 (Manner)

태도는 정원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인물들 사이의 습관적인 반응 기재를 말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관습과 상투적인 규범 뒤에 숨은 의도가 표출된다. 주인공을 포함하여 시대를 대표하는 다양한 인물들 간의 태도는 소설 속에 다소 건조하고 객관적으로 표상되어 있다. 작중 인물들을 통하여 정원에서 다양하게 사용된 어휘군을 배열했을 때, 그들의 관점이 정원의 본질적인 의미 또는 상태에 부합되거나 반대로 도태되는 경향을 보였다. 태도 관련 어휘군 중 두 소설에서 가장 빈번히 등장한 단어는 attentive (SS:23, MP15)로 다양한 대조어군 속에서 의무, 지속적인 관심, 신중함, 공공성 등의 단어와 병치되었다. 『이성과 감성』의 정원에서 우아함(elegance)과 경외(admiration), 선의(good)와 관련된 정원 본유의 속성과 관련한 해석이 많은 반면 『맨스필드 파크』의 정원은 권력(overpower), 저항(opposition), 설득(persuasion), 칭찬(compliment)등 당대 사회의 평가와 규범에 귀속되는 프로타고니스트의 심경의 변화를 대변하는 어휘들이 눈에 띄었다.

[표 1-2]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태도(Manner) 어휘군

	affectionate (41)	attentive (23)	elegant (18)	persuade (16)	admire (15)	good (14)
이성과 감성	agreeable, amiable, intimated, friendly, cordial, chatty, welcome, good-humored, tender, hospitality, accommodate, resemblance	interested, duty, keen, despise, disgust, united, frank, pity, delicacy, direct, precision, sincere, convenient, connected, mutual, restrain, ignorance, indifference,	delicate, graceful, landscape, fashion, tranquil	narrow-minded, eager, oppression, tolerate, power hesitation, forbearance, disagreeable, inclination, admit, wander, denial, disengage, deceive, silence, agreeable,	liberal, fancy, gratitude, favor, praise, expect, respect, abstraction, mysterious	generous, assist, kind, pure, moderate, right, polite, simple, sufficient, deemed

		cautious, strange, public, relation		suspicion, conform, reasonable, felicity		
	attentive (15)	compliment (12)	overpower (12)	kind (11)	oppose (9)	persuade (9)
맨스필드 파크	indifferent, humor, assist, interested, observation, ignorant, honest, consistent, active, accessible, amiable, affectionate	respect, awe, warm, praise, request, eager, polite, tease	captivate, oppress, destroy, yielding, fearful, evil, demand, forced, interpose, disgust, authorized, vulgar, order, urge obliged, assured, provoke, refrain, rough	gratification, good, agreeable, friendly, civil, tender, sincere, gaiety, gentle, earnest	distant, protest, endearing, reluctant, equal, disagree, hesitate, deceive, enable, object, refuge, blame, mischief, attempt, detest, indulge, enable	frank, advice, suggest, reconcile, fatigue, concern, recommend, rational, join, judicious, encourage, consent, pity, anxious, serious, praise

감정 (Emotion)

정원에서 이용자가 느끼는 감정의 범주는 감성, 오성, 이성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속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선호되는 환경이 조성되던 18세기 초반의 정원이 고대 문학에 나타난 이상향의 풍경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18세기 중반 경에는 그 자체로 명료하고 즉각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한다는 성향 아래에서, 상징성을 배제한 순수한 자연 요소로 이상적인 풍경을 조원하고자 하였다. 18세기 중, 후반에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²¹⁾ 시인의 감성과 환경으로부터 공감각적인 정보를 받아 오성으로 정원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정원에서의 감정이란 객관적이기보다는 추상적인 것이다. 순수한 자연 요소로 구성한 풍경에서 미의식, 경탄 등이 구성되는 기작에는 다발적이고 역가적인 감정의 기재들이 존재하며,

21) 신혜승, “18세기 영국의 ” 랜드스케이프 “와 ” 사운드스케이프 “,” 『음악학』, (한국음악학학회, 2010), p. 45.

오스틴의 소설 속에서 그 분위기가 추상적으로 표현되고 관람자의 감정의 자극과 발화에 대한 측정이 실험되고 있었다. 관람자인 동시 배우로서 정원 속의 인물들은 자연의 각 장면들을 옮겨 다니며, 정원의 풍경을 각자의 마음속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로 재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사실적으로 구현되는 감정의 묘사는 정원의 풍경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정원과 인간 사이에 소통되는 반응 기제를 설명해 준다. 감정은 정원에서 이용자의 미적 체험과 가장 직접적으로 결부된 군집이다. 가장 출현이 높은 감정군은 happy(SS: 49, MP: 57)로, 다양한 대조어군들과 더불어 감정의 고양을 투사하였으며 이성과 감성에서 위안(comfortable)의 감정으로 치환된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불안(anxious)의 언어로 종종 분화되어 당대 사회 속에 규범화된 정원 공간에 대한 비판 의식이 오스틴에 의해 의도적으로 제시된 것으로 보였다. 다양한 정원을 체험하는 『이성과 감성』 소설 속의 두 여주인공은 순간적인 위안과 만족감을 정원으로부터 얻는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서 고정된 대저택의 정원에 적응한 패니는 그러한 감정과 이중적인 반발을 늘 안고 있어 당시 풍경식 정원의 구태의연함에 대한 제인 오스틴의 무의식적 비판 의식을 드러내는 주는 듯 보였다.

[표 1-3]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감정(Emotion) 어휘군

	happy (49)	comfortable (40)	delighted (28)	satisfied (27)	pleased (26)	anxious (17)
이성과 감성	exerted, love, energy, enthusiasm, romantic, animated, delicate, merry	consoled, relief, tedious, compassion, encourage, calmness, secure, recollection, tedious, tender, melancholy, sympathy	cheerful, joy, rejoice, amazed, vivacity	pleasure, ambition, pride, gratification, sufficient	sweet, sensation, desire, amused, astonished	grief, regret, ashamed, guilt, lament, indignation, reserved, solicitude, dissatisfied, confusion, distrust, uneasiness, unhappy, resentment, lament, fatigued, blushed, disappointment, fear, unfortunate,

						suspicion, solicitude, agony, sorry, vexed, abhor, jealous, miserable, contempt, distress, agitate
	happy (57)	pleased (48)	anxious (24)	comfortable (20)	satisfied (18)	delighted (17)
맨스 필드 파크	solitary, glad, expect, merriment, elevation, animated, humor	pride, gaiety, gratification, enjoyment	resentment, fear, disgust, vexation, humility, obliged, shame, puzzled, displeased, fatigue, regret, resentment, distress, grieve, sad, grave, envy, tired, vexed, appalling, unhappy, indifference, humility, astonished, embarrassed, terror, agitation, gloomy, irritation, disappointed, strange, anger, suspect, wretched, concern, vicious	easy, compassion, tranquil, consoled, modest, solicitude, relief, respect, cordial	generosity, passive, uneasy, eager, sincere, attachment	surprised, ecstasy

인물 (Character)

프로타고니스트들의 자아에 도전하고 완충하는 안타고니스트(antagonist) 및 주변부 인물들은 정원에서의 또 다른 구현적 주체들이다. 캐릭터에 대한 다양한 묘사는 정원 공간의 이동, 제거, 새로운 정착에 시기적으로 등장하며 사건의 전개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준다. 때로는 직접적인 풍경식 정원의 자연성이나 당대의 식견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표명하기도 하고 정원의 조영과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하는 이들은 주인공의 정원에 대한 인식에 큰 영향을 미친다. 정원의 요소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오스틴 소설 속 주연 인물들은 이들과의 갈등 구조를 통하여 환경에의 조화 이전에 역동적인 기재를 심리적으로 조율하도록 종용한다. 이를 통하여 익숙한 풍경을 낯설게 만들거나, 반대로 낯선 정원에서 집(home)의 요소를 성공적으로 찾도록 유도한다.

보다 객관적인 인물의 묘사가 주를 이룬 『이성과 감성』에 비해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주관적인 묘사가 많았다. 다양한 크고 작은 풍경이 적극적으로 개입되면서 끊임없이 시선이 이동하는 『이성과 감성』에서 매리앤과 엘리너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상황에서 절충을 타개하지만, 대저택 조경에 익숙해진 패니는 관조적 거리를 유지하기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주변 인물들을 평가하고 내심 저항하는 방어 기재를 표현했다.

[표 1-4]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인물(Character) 어휘군

	acquaintance (21)	party (16)	companion (15)	gentleman (14)	family (13)	children (8)
이성과 감성	person, enemy, visitor, related, dog, creature, villain	ladies, sportsman, everybody, female, man, young lady, society	friends, fellow, inhabitant	neighbour, landlord, rich, common, clergyman	husband, brother, wife, mother, servant	
	clergyman (13)	father (9)	beauty (8)	companion (8)	children (8)	friend (7)
맨스필드 파크	young man, handsome, blacksmith	family, husband, society, king, farmer, cottager's wife, evil, captain	girl, angel, gentlewoman, nobody	neighbor, gentleman, society, tenant, folly, player, creature, enemy, audience, rank, party, newcomer	aunt, daughter	cousin, sailor, partner, hearer, queen, stranger, ourselves, relative, favorite

자아 (Self)

자아(自我, ego; self)란 의식에 의해 수용된 생각들로 구성되는 수행자로서 후설은 우리의 의식체험의 구조를 자아-의식작용-의식대상이라는 3항 일체적인 구조에서 파악했다.²²⁾ 본 연구에서는 프로타고니스트가 주체적으로 사건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활용하는 자아(self)와 해결할 수 없는 난점에 봉착하여 발휘되는 에고(ego)의 범주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자아를 이해하고 그에 대한 어휘들을 소집했다. 체험, 인격, 습성이 순수 자아에 더해진 본 어휘들은 본인의 마음에 더 합당하는 깊음의 차원으로 범주화되었다. 인물과 경험, 그리고 기억은 정원에서 주인공들의 자아에 심도 있는 변화를 야기해 정원에 대한 인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하고 삶을 본격적으로 정원에 투영시키는 계기가 된다. 다섯 가지 의미소 군집 중 자아는 가장 대조어가 많은 군집이다.

자아와 관련된 단어 가운데 hope(SS: 37, MP: 23)가 가장 두 작품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였다. 『이성과 감성』에서 주인공들은 가변적이고 절충적인 정신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비해 『맨스필드 파크』의 패니는 순차적, 수동적으로 정원을 경험하며 다소 수용적이면서도 모순적인 태도로 자아를 완성시키려 한다. 정원을 인식하는 방식에 있어서 자아에 대한 연구는 주체성의 이끌림의 정도에 따라 공간의 내면화로 기인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인식적 의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1-5]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자아(Self) 어휘군

	heart (40)	hope (37)	opinion (28)	spirit (27)	sense (23)	doubt (19)
이성과 감성	attachment, honor, pang, innocence, delicacy, depend, beloved, fatigue,	assurance, desire, conversion, want, future, pursuit, tear, cry, sweetness,	value, shy, voice, absence, projection, judgement, curious, firm,	being, restoration, sentiment, private, meditation, recollect, overcome,	truth, taste, sensibility, state, united, conscious, screen, real, integrity, style,	partiality, strange, self-provoca tion, shade, odd, mind, inferior, hesitation,

22) 『네이버 지식백과 중 현상학사전』, “자아” 항목

	hurt, hate, romance, separation, sacrifice, weakness, security	indulge, life, wish, fancy, expectation	assert, spot, persuasion, secret, confession, confidence, dejection, choice, selfish, explanation, express, determination, self-importance, worthy, merit, punishment, atonement, self-interest	extraordinary, journey, unconnected, silent, wander, alienate, tranquility, unconscious, venture, nature, liberty, existence, conscience, imagination, esteem, reflection, dispirited, passion	understanding, insensible, unconscious, comparison, preference	confounded, death, past, deficiency, defect, others, seclude, dispatched, contradict, depart, limit, safety, loss, distance, pain, deceived, restrain, repent, sickness, estrange
	love (29)	hope (23)	determination (24)	wish (16)	spirit (13)	oppose (13)
맨스 필드 파크	sacrifice, loss, pain, awkward, forgetfulness, foolishness, story, credit, lost, warmth, wound, indulge, aware, endure, insanity, ourselves, misery, shame, loss	longing, confusion, excuse, heart, tear, separate, positive, motive, safe, bold	self-knowledge, voice, upright, opinion, rational, decision, absent, subject, resolution, choice, intend, sure, confidence, reason, deserve, self-evident, inclination, justify, shame, doubt, practical, dignity, unworthy, apparent, prudent, ingenious	life, imagine, yearning, eligible, want, desire, escape, acting, enthusiasm, pursuit, selfish, private	liberal, cure, whole, quiet, innocence, sense, rest, discontent, nature, genuine, sense, truth, sensation, pride, heroism, curious, talent, conscience, mourn, soliloquy, sympathize, confess, comprehension, queer	fault, unjust, struggle, confined, injury, doubt, mortified, suffer, meaning, novelty, locked, evil, deprived, opinion, value, mind, secure, independent, honor, expression, unshelter, question

2) 의미 단위

의미소 군집으로 측정된 정원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정원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 및 현상들을 바탕으로 이중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인물들의 이와 같은 이중적인 개념 정립은 인간의 본성에 입각하여 이분

법적인 사고 구도를 정립한 서양의 세계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다양한 타자(others)를 자연(Nature)이나 안타고니스트, 또는 때로는 건축물로 형상화하여 전개되는 대조군들은 오스틴이 중점을 두고 전개한 핵심적인 논란의 핵심부에 있다. 서로 저항하는 단어들의 스펙트럼을 구성해 봄으로 그녀의 비판점과 개인적인 고찰이 당대의 정원 문화와 자연관에 상투되는 기작을 관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명료화를 위해 유사한 의미를 지닌 일부 형용사를 빈도수가 높은 단어 그룹에 한하여 통합하여야 했다. 주인공뿐만 아니라 주변 인물들의 사고 또한 전반적인 정원의 인식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정원의 문 밖에서 관조하는 이들과 정원의 공간에서 정원 요소에 대한 이용자의 식견이 드러난 대화문에서도 차별 없이 대조군을 산정하였다.

정원에서의 경험, 기억, 인식 등에 초점을 맞춘 본 연구에서 이러한 대조적인 관념은 불투명하고 추상적인 작가의 기록에서 선명히 찍힌 단서들을 역으로 추적하기 위한 것이다. 이성과 감성에서 프로타고니스트의 다양한 정원으로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의 인식 변화에 초점을 맞춘 반면, 『맨스필드 파크』는 이동 없이 고정된 대저택에서의 패니의 시계열적 경험에 입각하여 그녀의 후기작들에 회귀되는 시간성과 성숙 및 명시성을 자아의 개발 단계로서 이해하고자 하였다.

장소(Place)의 이중적 의미 단위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등장하는 장소에 관한 빈도수가 가장 높은, 주요 이중적 단어들은 공공성, 프라이버시, 치유 또는 취향과 같은 조정의 큰 의미적 범주들이 정원 공간에서의 연속적으로 되풀이되는 일련의 감정과 관조로써 기인되는 결과물임을 암시해준다. 장소를 대변하는 어휘군은 『이성과 감성』에서는 집과 같은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적 요소가 두드러지며 전체적인 그림으로서 조망되는 경향이었으며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쉼터(shelter), 융화(reconciliation), 연속성

(continuance) 및 정신(spirit)적 귀화감을 주는 단어들이 주로 등장하여 18세기 후기에서 19세기 초반으로 갈수록 풍경 속 자아의 일체감보다 풍경이 된 정원의 면모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후 서서히 순응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home’ 과 ‘house’, ‘whole’ 과 ‘nothing’, ‘spirit’ 과 ‘danger’의 이중적 개념이 공간 안에 상투되어 정원의 장소감을 구축하는 주요 요소들로서 ‘home’, ‘wholeness’, ‘spirit’ 등이 보다 자의적 기호에 부합됨을 알 수 있었다.

[표 1-6]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장소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이성과 감성	*house	estate	accommodation	cottage	home
	opportunity	money	*engagement	resemblance	relationship
	rank	principle	*marriage	belonging	household
	town	*street	civility	succession	park
	*nothing	grave	power	articulation	whole
	*cottage	woods/valley	conjecture	continuance	picture
맨스필드 파크	*house	country	property	representation	home
	*walk	observation/distance	meditation	reflection	reconciliation
	park	house	*home	private	shelter
	*marriage	arrangement	purpose	money	vanity
	sameness	*continuance	whole	acknowledgement	distinction
	danger	shadow	*wilderness	nature	spirit/superfluity

태도(Manner)의 이중적 의미 단위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내면세계는 정원에 함유된 사회적인 관계성을 전제로 가변적으로 재구성된다. 두 소설의 여성 프로타гон리스트인 매리 앤, 엘리너 그리고 패니를 우연한 상황에 개입시켜 다양한 태도의 표출을 유도하는 제인 오스틴의 서사는 오고 가는 인물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태도의 변이를 발화시킨다. 이러한 기록에 대응하여 정원은 다양한 풍경의 색조, 날씨, 형상으로 화답하며, 이는 이용자의 의미 있는 행동으로 이어질 태도의 결정에 중요한

매개물이 되는 것이다. 태도와 관련하여 두 소설 모두 ‘attentiveness’에 주목하여, 주의를 환기시키고 응시를 도모하는 정원의 속성을 부각하였다. 『이성과 감성』에서는 ‘persuasion’ 등이 주로 표현된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awe’, ‘assurance’, ‘opposition’ 등의 표현이 많아 절충과 감성적인 소통이 앞선 전기 작품보다 후기작에서 경관에 대한 객관적 평가 및 주관적인 비판의 필요성이 커진 점을 알 수 있었다.

[표 1-7]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태도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이성과 감성	agreeable	hospitable	*affectionate	cordial	resemblance
	* <u>attentive</u>	frank	convenient	strange	despise
	<u>fashion</u>	*elegant	delicate	landscape	<u>tranquil</u>
	* <u>persuade</u>	inclination	oppression	hesitation	<u>disengage</u>
	<u>favor</u>	gratitude	*admire	abstraction	<u>fancy</u>
	<u>polite</u>	*good	moderate	deemed	<u>pure</u>
맨스필드 파크	* <u>attentive</u>	humor	observation	ignorant	<u>indifferent</u>
	<u>awe</u>	praise	*compliment	polite	<u>tease</u>
	* <u>overpower</u>	forced/obliged	yielding	evil	<u>assured</u>
	<u>civil</u>	*kind	tender	earnest	<u>sincere</u>
	<u>equal</u>	detest	reluctant	hesitate	* <u>oppose</u>
	<u>judicious</u>	pity	reconcile	*persuade	<u>encouraging</u>

감정(Emotion)의 이중적 의미 단위

감정과 관련한 어휘들은 가장 분명한 대조어휘를 형성하였다. 정원의 공간을 전후로 주인공에게 발생한 사건과 갑작스러운 환기를 바탕으로 분위기, 날씨, 전망, 스케일 또는 불현듯 새롭게 인식된 정원의 요소들에 감정이 투사되었다. 극명히 상충하는 감정의 어휘소들은 정원에서의 관조, 명상 및 주체적 또는 다른 인물들에 의한 자문(interrogation)을 거쳐 후에 인물의 마음 상태에 직결되는 환기를 불러온다. 두 소설에서 가장 빈번히 대조되는 감정은 ‘happy’ - ‘unhappy’, ‘comfortable’ - ‘dissatisfied’ 이었고 『이성과 감성』에서는 위안과 편안함을 정원에서 탐색하는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감정의 보다 즉시적인 발화를

‘delightfulness’ 등의 어휘를 통하여 도모했다.

[표 1-8]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감정과 관련된 대조 어휘군

이성과 감성	<u>*happy</u>	love	exerted	disappointed	unhappy
	<u>*comfortable</u>	secured	melancholy	tedious	dissatisfied
	<u>*delighted</u>	amazed	rejoice	blushed/suspicion	fatigued
	<u>*satisfied</u>	sufficient	pleasure	pride	ambition
	<u>*pleased</u>	sweet	sensation	confusion	distress
맨스필드 파크	<u>*anxious</u>	uneasiness	resentment	grief	solicitude
	<u>*happy</u>	expect	solitary	vexation	unhappy
	<u>*pleased</u>	gaiety	pride	shame	displeased
	<u>*anxious</u>	embarrassed	wretched	fear	sad
	<u>*comfortable</u>	consoled	modest	gloom	concerned
	<u>*satisfied</u>	attachment	passive	uneasy	disgust
	<u>*delighted</u>	ecstasy	surprised	suspect	fatigued

인물(Character)의 이중적 의미 단위

프로타고니스트의 어린 시절로부터 형성된 도덕적 가치관, 윤리의식, 종교관 등으로 기인되는 주변 인물들에 대한 작중 인식 및 평가는 주인공의 내면화 및 외연적 관계를 촉진시켜 새롭고 낯선 관계를 공간 안에 상투하도록 한다. 그들의 삶에서 늘 지속되는 이러한 관계성은 당시 영국사회의 사회문화적 맥락 가운데 정원을 취향과 소통의 장으로서 규정하며, 앞으로 전개되는 경치에 대한 그들의 견해 및 취향을 공유하도록 한다. 정원에서의 인물 묘사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으로 『이성과 감성』에서는 보편적인 계급의식, 가부장제의 의심 없는 수용 및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자연스러운 자아의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개인적이고 주체적인 저항이 의미 수용 단계에서부터 표현되어 보다 개성 있고 현실적인 인물 묘사가 이루어졌다. 전작이 보다 이상적인 그림 같은 인물 지도를 정원의 풍경 속에 배치시켰다면, 후기 작품에서는 개인적으로 맞닥뜨리는 낯센(strangement), 동질감, 권력(power), 가치 평가 등의 요인들이 ‘cottager’ s wife’, ‘angel’, ‘creature’, ‘a child’, ‘blacksmith’,

‘king’ , ‘stranger’ 등과 같은 연극형 인물 배치를 보였다.

[표 1-9]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인물과 관련된 대조 어휘군

이성과 감성	<u>*acquaintance</u>	related	person	enemy	villain
	<u>*party</u>	society	everybody	sportsman	young lady
	neighbour	*inhabitant	companion	fellow	friend
	landlord	rich	*gentleman	common	clergyman
	<u>*family</u>	husband/brother	mother	wife	servant
	<u>*children</u>	relative	brother	dog	a child
맨스필드 파크	young man	handsome	clergyman	friend	blacksmith
	king/captain	society/family	*father	farmer	cottager's wife
	nobody	gentlewoman	girl	beauty	angel
	<u>*companion</u>	newcomer	audience/player	folly	creature
	<u>*children</u>	authority/relative	aunt	daughter	a child
	<u>*friend</u>	partner	ourselves	queen/sailor	stranger

자아(Self)의 이중적 의미 단위

자아의 발달은 제인 오스틴의 프로타고니스트들에게 있어 가장 보편적인 주제이다. 그들의 삶에서 마주치는 사건들로부터 동떨어진 매개적 공간인 정원에서 새롭게 자기를 인식하고 향후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일은 그녀의 작품에서 종종 중요한 전환점이 된다. 정원이나 풍경은 그들이 온전히 한 장소에 속하도록 하는 장소감(being at the place)을 주는 공간으로 기능한다. 자아가 ‘탈착(detachment)’ 되거나 ‘부합(attachment)’ 되는 공간으로서 정원은 그 가변적인 속성 때문에라도 본질적으로 매체적이다. 『이성과 감성』에서 잣은 정원의 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거리와 스케일 변화와 대조적으로 『맨스필드 파크』의 고정된 커다란 저택 조경은 프로타고니스트의 고정적인 성장을 도모하는 장치가 된다. 자아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은 전작에서 ‘attachment’ , ‘assurance’ 등으로 적극성인 부합에 기우는 반면, 후작에서는 ‘love’ , ‘hope’ , ‘wish’ , ‘opposition’ 등의 외연적 관계로 상투되는 수용적이고 주연부적인 반응으로 이

어진다.

[표 1-10]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속 자아와 관련된 대조 어휘군

이성과 감성	<u>attachment</u>	beloved	*heart	weakness	separation
	<u>assurance</u>	pursuit/want	*hope	conversion	tear
	* <u>opinion</u>	self-interest	projection	self-importance	dejection
	* <u>spirit</u>	being/existence	wander/venture/ nature	conscience	dispirit
	* <u>sense</u>	integrity	state/united	taste/style/comp arison	insensible
	<u>distance</u>	loss/dispatched	doubt/contradict	self-provocation	partiality
맨스필드 파크	* <u>love</u>	indulge	loss/pain	misery/shame	wound
	* <u>hope</u>	motive	separate	excuse	longing/tear
	* <u>determination</u>	upright	self-evident	self-knowledge/ subject	shame
	* <u>wish</u>	life/yearning	imagine/escape	acting	selfish
	<u>cure</u>	innocence	*spirit	sensation	mourn
	* <u>oppose</u>	independent	un-shelter	struggle	fault

3) 분석의 주제

정원에서 수집된 대조 어휘군들 가운데 가장 대조적 관계가 명료한 그룹이 본 연구의 주요 분석 주제가 되었다. 이들을 바탕으로 텍스트 분석의 세부 주제들이 다음 장에서 실제 그녀가 거주한 정원들에 대한 그녀의 인식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감정 영역에 있어서 두 작품 모두 분석 주제가 유사했다. 태도의 경우에도 정원에서부터 새로운 인식을 얻거나, 관계성에 집중하도록 하는 등 소설 속 인물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역할이 공통적으로 부각되었다. 다만, 『이성과 감성』에서 주인공들이 주변의 다양한 상황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의사와 기호를 발전시키는 데 비해서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사회적 규범을 수용하고 간접적으로 본인의 진의를 밝히는 경우가 많았다. 장소에 있어서도 『맨스필드 파크』에서는 집

의 느낌이나 통합성, 소속감을 찾기보다는 정원에서 정신을 맑게 하고 심신을 휴식 및 융화시키려는 주인공의 시도가 정원의 치유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자아의 발달은 『이성과 감성』의 정원들을 통해 애정과 견해가 자유롭게 허용되었으나, 맨스필드 파크의 정태적인 경관에서는 희망이나 소망이 자주 주인공의 심리 묘사를 통하여 드러났다.

[표 1-11] 제인 오스틴의 소설의 주요 분석 키워드

의미소	이성과 감성 (1811)	맨스필드 파크 (1814)
장소	집의 느낌 (sense of home)	휴식 (shelter)
	소속감 (sense of belonging)	융화 (reconciliation)
	통합성 (wholeness)	연속성 (continuance)
		정신 (the spirit)
태도	주의 환기 (attentiveness)	주의 환기 (attentiveness)
	설득 (persuasion)	경외감 (awe)
	기호 (the favor)	확신 (assurance)
		진의 (sincerity)
		격려 (encouragement)
감정		저항 (opposition)
	행복 (happiness)	행복 (happiness)
	위안 (comfort)	위안 (comfort)
	만족 (satisfaction)	만족 (satisfaction)
인물	배려 (solicitude)	기쁨 (delightfulness)
	친구 (friend)	동료 (companion)
	가족 (family)	친구 (friend)
	아는 사람 (acquaintance)	어린이들 (children)
자아		천사 (angel)
	애정 (attachment)	사랑 (love)
	확신 (assurance)	희망 (hope)
	견해 (opinion)	결심 (determination)
	정신 (spirit)	소망 (wish)
	직관 (the sense)	저항 (opposition)

정확하게 된다. 『맨스필드 파크』의 초고는 1800년대 이전에 작성되었지만, 초우튼에 정착한 후로 광범위한 수정을 거쳐 변경된 제목 하에 출판된 점을 고려해

본다면 십년 간 다양한 영국의 시골 마을들에 거주하면서 정원 공간에 대한 그녀의 투상에 다양한 영향을 끼친 요소들을 생각해볼 수 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픽처레스크와 낭만주의 그리고 고딕리바이벌이 융성하는 가운데 폐허²³⁾, 숭고함, 노스텔지어, 그림같은 정원 관념이 발달하고 있었다. 당시 사회적인 변화와 영국 전원 마을의 정원의 발달 경향들이 그녀의 사고 관념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초기소설과 후기소설 사이의 뚜렷한 태도변화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²⁴⁾

두 소설의 공통점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알며, 절충적 도덕의식을 갖춘 주인공을 통하여 당시 질서와 혼돈이 교차하던 사회의 복합적인 구도 속에서 매개적이고 중립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평을 측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덕적 성장과정을 통하여 제인 오스틴의 인물들은 자유, 평등, 박애를 외치는 지나친 개인주의나 공동체주의를 의심하고 개인적 감정과 사회적 예절 속에서 옹호적인 조화를 추구한다. 그녀의 또 다른 작품인 오만과 편견에서 오만과 편견이 융화와 화해로 끝났다면 『이성과 감정』에서는 이성과 감성이 융화로 끝을 맺는다.²⁵⁾ 『맨스필드 파크』의 페니는 매우 어린 때에 맨스필드 파크로 보내져 성장하면서, 주어진 정태적인 정원 공간에 순응적인 태도를 발전하였으나 오스틴의 의도대로 가부장제와 고정된 체제, 선입견, 도구화되는 인격에 꾸준히 반기를 드는 인물이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경직된 틀을 와해하고 소망을 이루는 결말을 통해 개인적인 소망과 사회적 구도 속에서 절충을 달성한다. 주인공들에게 있어 자연 풍광은 절충을 위한 매개 공간으로서, 다양한 관조의 거리를 통해 친숙함 또는 낯섬의 감정을 복합적으로 교류시키며 현실과 이상의 타협을 도모하는 장소가 된다. 제인 오스틴의 자연경관 묘사는 중립성, 거리감, 기분전환의 심리적 서술을 기반으로 사건의 전개에 따라 풍경을 무겁게 또는 일상적 풍경으로써 가볍게 설명하는 복합적

23) 민주식. “픽처레스크 정원에서의 폐허 예찬: 샌더슨 밀러의 인공폐허건축을 중심으로,” 『미학』, 80, 2014, p. 82.

24) 이월지. “제인 오스틴 소설의 ”여가의 문제“ 재평가,” 『근대영미소설』, 7(2), 2000, p. 122.

25) 문학숙.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정』에 나타난 마리앤 대쉬우드의 도덕적 성장,” 『인문연구』, 19(2), 1998, p. 102.

인 양상을 보인다. 이에는 그녀가 주요 소설들을 집필하던 18세기 말, 정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계몽주의 반발이 커지던 시대감에 그녀가 관심을 두고 이를 상식적으로 작품의 배경으로 투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녀는 작중 인물들의 심미안과 상상력을 종종 정원의 자연에 투사시키며 당시 정원 조영에 유행하던 숭고와 시적 감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음을 보여주었다.

『이성과 감성』이 그녀의 초기 소설로서 다양한 양식의 정원을 포섭하고 서로 다른 주인공들의 견해들이 통섭되는 과정으로서, 공간에 따른 서사를 보여주었다면 대조적으로 『맨스필드 파크』는 고정된 정원 관념에 당시 사회적 부조리들을 투사하여, 그녀의 비판 의식을 드러낸 시도로 볼 수 있다. 『맨스필드 파크』의 정형화된 요소들의 재출현은 당시 풍경식 정원들에 고전적 요소들이 재 유입되며 정형화되던 추세를 반영하며, 이에 대한 그녀의 초기의 원형적 순수성의 회귀를 위한 은밀한 저항 의식과 조화로운 시민의식에 대한 절충적인 사고 관념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다.

복잡하고 다양하게 설계된 정원들은 이성과 감성에서 안정적이며 이상적인 풍경으로서 두 주인공들이 이성과 감정의 상충을 통한 감성의 회복을 구현하는 장이 된다. 코티지, 언덕 등 정원을 총체적인 시각에서 조망한 오스틴은 아름다움과 취향의 문제보다는 정원에 있어서의 상상과 이상을 중시한다. 즉, 정원의 물리적인 크기나 사치성보다 정원을 통해 연상되는 집의 느낌(sense of home), 친숙함, 낭만 등을 중시하며 감정적인 충동과 이성의 상충을 과감히 드러내고 있다. 엘리너의 차분한 이성을 통해 창문을 통한 관조의 거리가 적극적으로 발생하는 동시에 매리앤의 충동적인 감정을 통하여 날씨의 급변이나 풍경의 야생성이 노출된다. 다양한 정원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내면적 자아 탐색에 대한 다채롭고 자유로운 실험은 풍경을 시적으로 재구성하며, 토로하고 회복되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기재를 보여준다. 픽처레스크에 대한 윌러비, 에드워드 등 주요 인물들의 논의 역시 즉흥적이고 주관적이고 제인 오스틴이나 그녀의 프로타гон리스트의 시각은 언제나 은밀하게 가려진다. 감상과 낭만의 주제로서 정원은 제인 오스틴의 초기 소설에

서 정원의 거친 순수성을 부각시킨다. 이는 오스틴 개인적인 집과 조화의 안정감이라는 큰 주제들로서 형상화된다.

[표 1-12]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번역본의 빈도별 정원 어휘

이성과 감성 (18c 말)	맨스필드 파크 (19c 초)
집 (330)	집 (149)
이성 (307)	감정 (48)
감성 (307)	오래된 (42)
이상 (174)	춤 (39)
감정 (168)	이상 (37)
오래된 (70)	거리 (27)
코티지 (58)	연극 (24)
상상 (52)	아름다움 (22)
거리 (52)	걷다 (22)
침울 (43)	숲 (16)
걷다 (34)	침울 (15)
영지 (31)	상상 (15)
구렁지/언덕 (30)	자연 (14)
벽 (28)	장면 (13)
날씨 (27)	시골 (11)
자연 (25)	높이 (10)
산책 (24)	날씨 (9)
춤 (22)	언덕 (8)
회화/그림 (21)	부드러움 (8)
취향 (20)	꽃/관목 (7)
아름다움(19)	나무 (7)
마을 (19)	소유 (7)
음악 (19)	취향 (6)
나무 (18)	산책 (6)
높이 (17)	의자/벤치 (6)
시골 (15)	성/수도원 (6)
갑작스러움 (13)	땅 (5)
계곡 (13)	익숙함 (5)
숲 (13)	낯섦 (5)
움직임 (12)	마을 (5)
의자/벤치 (11)	경험 (5)
경험 (11)	잔디 (4)
창문 (10)	경외심 (4)

『맨스필드 파크』의 페니는 반면 양식화되고 규범화된 정원 문화에 본격적인 비판의식이 투사된 인물이다. 부드러운 선과 완벽한 그림 속의 정원은 레저를 위한 사회문화적 취향의 도구로 이용되어 정원 자체에 대한 특수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연극은 이러한 보편성을 탈피하려는 위장술로서 페니와 개방적인 사촌들에 의해 행해지며, 이는 페니를 두려움과 흥분에 동시에 빠뜨린다. 고전적인 요소가 풍경식 정원 속에 다시 유입되어 정형화된 균형 잡힌 정원에서 도리어 페니는 답답함을 느끼며 소설 후반부로 갈수록 정원에서의 본인의 감정과 직관을 막연한 경외심보다 중시하게 되는 인물이다.

『이성과 감성』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정원들에 대한 첫 조우와 『맨스필드 파크』의 익숙해진 정원의 경관에서 싹트는 비판 의식은 거칠음과 부드러움이라는 풍경식 정원의 두 가지 대조적 양상을 전기와 후기로 나뉜 두 소설을 통해 각자 시기적으로 드러낸다. 전작이 개인과 정원의 조화의 지평을 심리적 기재를 통하여 내연적으로 열어주었다면, 후작은 그러한 필연성이 결여된 굳어진 정원의 틀을 깨고자 하는 방어 기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성과 감성(1811)의 분석 주제

감상주의 소설의 패러디로서 작성된 이성과 감성의 주제는 감성적 행위의 부조리성 및 이기성을 드러내어 균형 있는 지각작용을 꾀하는 데에 있다. 낭만주의의 발아기의 초창기에 집필된 『이성과 감성』은 인간 본연의 도덕의식과 권위적인 전통이나 원칙을 와해하는 진실한 감정의 지배를 강조한다. 정원의 풍경은 자연 자체의 요소를 그대로 인식하려는 성향을 그대로 드러내며 그림의 한 장면 같은 풍경에 대한 순수한 경탄이나 자연의 모방성에 대한 예찬, 혹은 그에 대한 중립적 견지를 고수하는 인물들의 정원에 대한 다양한 식견이 제기된다. 이성과 감성의 정원들은 해안 절벽과 같은 장대한 자연을 끌어들인 바스의 정원으로부터 도시공원 옆의 분주한 거리, 이웃들로부터 고립된 코티지 정원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양상을 망라하는데, 자연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위안과 집의 느낌을 많이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그녀의 여정은 어린 시절 기억에 잔상으로 남은 집의 느낌을 회복하기 위한 여정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좌절에 대하여 작중 인물의 이성과 감정이 대조적으로 표출되었고 최종적으로 그 절충과 타협적인 귀재가 정원에서의 갈등의 와해와 새로운 가치로의 적응으로써 제시되었다.

『이성과 감성』에서 제인 오스틴은 매리앤과 엘리너 자매를 대조적으로 정원 공간에 상투시킨다. 정원은 엘리너의 ‘이성적 책무’와 매리언의 ‘감성적 회유’가 공존하는 장소이며, 이 둘이 절충에 도달하는 과정을 위한 매개체가 된다. 풍경에 대한 그들의 관조는 자연과의 접촉을 통해 사실적이고 직접적인 감흥으로 전환되나 다른 정원들로의 연이은 이동은 픽처레스크에 대한 고정된 식견을 방해한다.

[표 1-13]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 속 대조 어휘에 따른 세부 주제

의미소	대조군		세부 주제
장소	house	home	어린 시절 집을 떠난 상실감 (pp.21)
			새로운 집(house)에서 집(home)을 그리워함 (pp.21)
			집으로 돌아가고자 함 (pp. 40)
			집의 느낌(home)의 대체/회복 (pp.52)
			치유와 위안의 공간 (pp.65, 84)
			맨션 (pp.67)
			코티지의 집의 느낌 (pp.74)
	opportunity	relationship	그림 같은 결혼 (pp.83)
	rank	household	-
	town	park	멀리 떨어진 집을 응시함 (pp.253)
	nothing	whole	전환을 도모 (pp.145-148, 166)
태도			도피처 (pp.170)
	cottage	picture	아름다움 (pp.202)
	agreeable	resemblance	타인의 직관 (pp.73)
	attentive	despise	감성의 결여에 대한 혐오(불완전한 이기심)와 주의 어린 애정에 대한 기호 (pp.23)
	fashion	tranquil	양식의 진정성 비판 (pp.55)
	persuade	disengage	거리와 전환 (pp.126)
	favor	fancy	상상과 공상 (pp.64)
	polite	pure	시민성 (pp.112)

감정	happy	unhappy	거짓 위안과 자유 (pp.124)
	comfortable	dissatisfied	집의 느낌과 통합성의 불일치 (pp.63)
			환대와 위안 (pp.77)
			코티지로부터의 위안 (pp.214)
	delighted	fatigued	유흥의 정원 (차, 식사, 음악 그리고 춤) (pp.96)
	satisfied	ambition	만족을 위한 정원의 보수 (pp.168)
	pleased	distress	고요한 명상 (pp.228)
인물	acquaintance	villain	헤어집과 떨어진 집 (pp.79)
			고독과 걸음 (pp.255)
	party	young lady	-
	neighbor	friend	아름다움과 시민의식 (pp.115)
	landlord	clergyman	-
	family	servant	-
	children	a child	-
자아	attachment	separation	인간적인 스케일의 적응 (pp.30)
			에고의 손실 (pp.31)
	assurance	tear	자기 변경 (pp.50)
			풍경 속 산책 (pp.86)
			전망 (pp.89)
			회복 (pp.285)
	opinion	dejection	픽처레스크에 대한 식견 (pp.56)
			픽처레스크에 대한 논의 (pp.95)
	spirit	dispirit	공원의 춤 문화 (pp.54)
			헤어집 후의 소풍 (pp.136)
			명상과 관조 (pp.142)
			정신적 공간 (pp.186, 194)
	sense	insensible	취향의 발전에 있어 차이의 존중 (pp.33-37)
			직관의 유사성 (pp.33)
			상상력과 감각 (pp.51)
			상호 관념 (pp.57)
			창 (pp.100)
			정서 (pp.117)
	distance	partiality	상태 (the state) (pp.123)
			떨어진 집 (pp.61)
			도시의 거리에서 정원을 그리워함 (pp.253)

당시 사회의 혼란스러운 장면들을 오스틴은 배경이 이루는 특정한 상태로 구현함으로써 그녀의 이상점을 현실에 투영하고자 했다. 이는 주연 인물들에 공통적으로 내재된 도덕심, 종교적 관념 내지는 뚜렷한 감성의 표출을 통하여 반영되었

다. 엘리너의 온건한 태도, 에드워드의 종교적 일관성, 매리엔의 충동적 사랑을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는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요소를 복합적으로 투영하여 경계를 흐리고, 새로운 절충안을 찾고자 한 그녀의 의도를 암시해 준다.

18-19세기 영국의 신사(gentry) 계급은 당대의 신 중산층 세력으로서 전원적인 풍치 속에 이상적인 신세계를 건설하고자 하는 야심을 포기하지 않고 있었다. 이들이 추구한 기준은 보편적인 이상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전통과 사회적 세습에 맞물려 방랑하며 시골 도처를 떠돌았다. 자신의 생애에 걸쳐 이를 경험한 오스틴은 이들 계급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상투하는 대신, 가변적이고 불안정한 캐릭터들을 현실적인 위험에 빠뜨리면서 전통과 낭만의 경계를 흐리부지하게 만든다. 그녀가 사용하는 어휘는 특정 윤리나 종교적 선입견을 배제한 중립적인 단어들이 심미적인 연결 고리를 바탕으로 취향과 식견의 차원으로 고양되었다. ‘기쁨의 숭고(the sublime of pleasure)’, ‘원칙의 미묘함(delicacy of principle)’, 도덕적 취향(moral taste)’, ‘마음의 아름다움(beaty of mind)’, ‘진실의 미와 진의(the beauty of truth and sincerity)’ 등은 그녀의 텍스트에 종종 출현하는 주제어들이다. 이처럼 의무에 대한 직관, 세습 관념과 심미적 취향에는 강한 연결고리가 존재한다.²⁶⁾

문화, 사회, 정치, 과학, 심리 심지어 연극적 연결 고리들이 그녀의 등장인물들을 다양한 위기상황에 직면하도록 하며 이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모호하고 절충적임을 드러내는 그녀의 서사(plot)는 자아의 독단적이고 개인적인 실마리보다 타아와의 관계 속에 놓인 프로타고니스트의 속성에 언제나 초점을 맞추고 타협적인 상황을 중재하도록 하는 사회문화적으로 맞추어진 퍼즐 조각과도 같다. 관념적인 자연 인식과 풍경에 대한 사실적인 묘사가 극히 드문 대신, 이 작품에는 ‘픽처레스크 양식(Picturesque style)’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는다는 점을 통해 자아의 현실과 감성이 결여된 정원의 형상적 측면에 대한 오스틴 자신의 뿌리 깊은 비판의식을 확인해 볼 수 있다. 당대 부산하던 사회가 잃어버린 정원의 향수를

26) Gilbert Ryle, “Jane Austen and the Moralists,” 『The Oxford Review』 (1966, p. 12).

그녀는 ‘집의 느낌(sense of home)’을 잃어버린 그녀의 주인공들이 지속적으로 이를 회귀하며 낯선 환경에서도 인공적으로 조영하고자 하는 태도를 통하여 드러내고 있다. 역설적으로, 양식화 될 수 없는 이러한 야생의 감성은 그녀의 서사에 ‘진정성(authenticity)’과 ‘그림같음(picturesque)’을 부여하는 기폭제가 된다. 자아로부터 기인되고 정신적, 본능적, 공감적이고 경험적인 감성의 기폭제들은 양식화를 거부한 그녀의 텍스트에 강하게 울리는 자연성으로 작용한다. 이는 픽처레스크성(picturesqueness)에 초기에 함유된 순수한 의도이자 영국성의 본질이기도 한 순수한 의도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맨스필드 파크(1814)의 분석 주제

『맨스필드 파크』는 작품이 출판년도상 오만과 편견 다음에 출판되었지만, 실제로는 제인 오스틴의 20대 초기에 쓰인 오만과 편견보다 15년 뒤인 30대 후반에 쓰인 후기작으로서 중년으로 갈수록 더욱 보수화 된 오스틴의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확실히 이 작품은 주제나 문체, 인물과 분위기 등 여러 면에서 오스틴의 다른 작품과는 다른 분위기를 갖고 있으며, 도덕적이며 보수적인 색채가 유난히 강해 오스틴의 소설들 중에서 가장 진지하고 심각한 소설이라 평가된다.²⁷⁾ 제인 오스틴이 살던 시기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로, 당시 유럽은 불란서 혁명, 나폴레옹 전쟁, 산업 혁명 등, 정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들과 이에 따른 각 방면의 변화를 겪고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시기의 특징은 ‘제국주의’로 표상되는 유럽 제국들의 해외 식민지 쟁탈전이었다.²⁸⁾ 당시 사회의 이데올로기는 작품 내 정원에 그대로 반영되어 장식적 수벽, 에비뉴(avenue), 분수 등이 정태적으로 재현되고 있으며 풍경에 대한 관조의 거리가 쉽게 발생되지 않는다. 제인 오스틴의 작품 중 유일하게 이 작품에서는 10세 무렵

27) 문학숙. “제인 오스틴과 페미니즘: 『맨스필드 파크』,” 『근대영미소설』, 7(2), 2000, p. 231.

28) 이해지.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1997, p. 55.

부터 18세까지 여주인공의 어린 시절 성장 과정과 성년기가 그려진다. 요컨대 페니가 겁 많고 가난하고 지위가 낮은 더부살이 친척에서 시작하여 맨스필드 파크의 버트람(Bertram)가 일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려진다.²⁹⁾ 사회의 권위 의식과 보수성에 프로타고니스트를 배치함으로써 제인 오스틴은 개인의 취미를 격려하고 도덕성과 판단성의 명료함을 그녀의 주인공이 찾도록 도모하며 그 용기와 성장을 보여주기 위해 고정된 공간에서의 시간적 성장과정을 서사 전략으로 활용하였다.

『맨스필드 파크』에서 제인 오스틴은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의 성장 과정 이면의 페니의 심리적인 작동 기제를 설명한다. 페니는 온전성에 대한 직관을 스스로 회복하면서 주변 환경에 자신을 상투하는 방법을 앎과 동시에 특정한 성장을 이루는 시점에 도달하게 된다. 맨스필드 파크의 사건과 서사 구조는 그녀가 이러한 상태(the state)에 도달하는 것을 온 힘으로 방해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적시에 자극을 도모한다. 다양한 외부적인 관계 속에 노출되어, 페니는 통합적인 직관을 발달시키며 이중적으로, 이전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자아를 재구성하게 된다.

이야기의 설정에서부터 내면적 수용성을 이룬 이성과 감성과 대조적으로 페니는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본연의 의지를 빼앗긴 프로타고니스트로 등장한다. 집으로부터 떨어져 낯설고 커다란 버트람가의 대저택으로 이동되는 어린 소녀의 절규로부터 시작되는 서사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대한 수동성의 획득과 지속적으로 가해지는 규범적 힘에 대한 외연적 적응을 드러내고 있다. 오스틴은 현실적인 상황적 서술에 입각하는 동시에 페니의 내면적 심리 묘사에 치중하며, 페니의 자발적인 내면을 이중적이며 효과적으로 드러내어 준다. 정원은 페니를 둘러싼 외부환경을 대변하는 공간인 동시에 확신을 가다듬는 양면적인 공간이 된다. 사적이고 진의가 표출되는 정원의 알레고리는 정원의 상투적인 양식이나 구태의연함에 대해 도리어 명쾌하고 일관적인 해답을 강요한다. 이는 페니가 점차 자신의 목소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서사적으로 드러나며, 후반부로 갈수록 극명해

29) 문학숙. “제인 오스틴과 페미니즘: 『맨스필드 파크』,” 『근대영미소설』, 7(2), 2000, p. 233.

[표 1-14] 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속 대조 어휘에 따른 세부 주제

의미소	대조군		세부 주제
장소	house	home	집에서 떨어짐 (pp.40)
			실용 정원 (pp.55)
			아름다움과 취향을 위한 정원 관리 (pp.58)
			장소감 (placeness) (pp.252)
	walk	reconciliation	진부성 (pp.35)
			픽처레스크의 목표 (pp.250)
	park	shelter	일상의 탈출 (pp.37)
	marriage	vanity	재산, 기회, 목적으로서의 공간 (pp.48)
	sameness	distinction	유사 경관 (pp.26)
	danger	spirit	야생에서의 충돌 (pp. 92-93)
자연의 영혼 (pp.215)			
신록으로의 자기 투영 (pp.216)			
완성된 그림으로서의 정원 (pp.495)			
태도	attentive	indifferent	무대로서의 정원의 배우들 (pp.155)
	awe	tease	사람과 공간의 낯센에 대한 두려움 (pp.13)
	overpower	assured	자연의 과도한 힘 (pp.97)
	civil	sincere	정원의 패션과 취향 (pp.56)
	equal	oppose	경치에 관한 취향 (pp.70-71)
	judicious	encouraging	개인적 목적과 주제 (pp.224)
감정	happy	unhappy	사회문화 향유의 장 (pp.425)
	pleased	displeased	시적 경관; 숭고에 대한 고찰 (pp.117)
	anxious	sad	장미 덩굴 (pp.74)
			죽음과 불안 (pp.459)
	comfortable	concerned	야생 같은 자연 속의 위안 (pp.94)
	satisfied	disgust	비자연성 (pp.225)
	delighted	fatigued	전원성 (pp.84)
픽처레스크에 대한 동기의 손실과 반발 (pp.451)			
인물	young man	blacksmith	-
	king/captain	cottager's wife	정원에 대한 권력 (pp.211)
	nobody	angel	-
	companion	creature	-
	children	a child	-
	friend	stranger	-
자아	love	wound	타협점과 재건 (pp.106)
	hope	longing/fear	거리감 (pp.85)
	determination	shame	권력과 불안에 대한 저항의지 (pp.103)
	wish	selfish	경계의 확장 (pp.87)
	cure	mourn	치유의 정원 (pp.47)
			명상의 정원 (pp.110)
	oppose	fault	현실로부터의 도피 (pp.99)
이상과 융화 (pp.100)			

지는 그녀의 판단과 행동, 그리고 이를 수용하는 주변 인물들의 관계 지도 속에서 실마리로 제시된다.

주요 사건들이 대저택의 조정 공간에 국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원이나 자연 공간에 대한 압축된 묘사와 일상적 언어로의 치환은 이 작품의 이전작과는 다른 또 다른 특징이다. 코티지 정원에 대한 패니의 감축된 기억 이후에 오래된 집을 잇고 낯선 규범 속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체되는 양상을 통하여 급변한 영국사회의 정체성을 조망하고 새로이 조영해보고자 하는 제인 오스틴의 시도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2장 제인 오스틴의 정원

1절 코티지 (1775-1801, 1809-1817)

1. 정원의 배경 : 스티븐튼(Steventon)에서의 어린 시절과 말년

제인 오스틴의 생애의 가장 중요한 처음과 마지막의 두 시기는 모두 햄프셔(Hampshire)의 시골 마을에 할애되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 목사인 아버지가 설교하던 스티븐튼 (Steventon) 목회관 옆 코티지에서 나고 자랐고 그녀의 주요 작품들이 출간된 후기 시절을 보내는 곳 또한 초튼(Chawton)의 코티지이다. 이 두 시기의 공백 기간에 그녀는 바스(Bath), 클리프톤(Clifton) 및 사우스햄튼(Southampton)을 전전하며 지속적으로 코티지에 대한 애정과 그리움을 그녀의 친척들에게 보내는 편지들을 통하여 표현했다. 그러나 그녀의 소설 속에 주로 등장하는 정원은 코티지가 아닌 대저택(mansion), 도시형 주택 등 낯선 집(house)들이다. 그녀의 소설 속에 주로 등장하는 집들의 특성은 그녀가 실제로 살았던 집들에 비하여 훨씬 더 전원적이고,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³⁰⁾ 그녀의 애착이 작은 영토의, 고립된 코티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친오빠인 에드워드의 고드머샴(Godmersham) 공원으로의 정착을 계기로 켄트(Kent)로의 여행과 거주지의 잦은 이동을 통하여 중상층 신사 계급이 소유하는 큰 규모의 영지에 친숙했던 오스틴은 소설 속에 이러한 공간들을 즐겨 등장시킨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프로타고니스트들은 이로써 종종 어린 시절의 집과 위안을 그리워하게 되고 낯선 환경으로의 잦은 이동은 때때로 가장 강력한 반감을 주기도 하며, 그녀들의 성숙을 방해한다. 제인 오스틴은 코티지 정원에서의 경험을 가장 성숙한 시절로 평가하며 불안정하고 낯선 환경 속에 노출된 프로타고니스트들을 통하여 집의 손실로부터 오는 정신적 고립과 회복되는 새로운 의지를 그렸다.

30) Kathryn Sutherland, "Chronology of composition and publication," in *Jane Austen in Context*, Janet Todd (Dordrecht: Kluwer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226.

2. 소설 속 구현 방식

스티븐튼(Stenton)에서 그녀가 작성한 작품들 가운데 하나인 이성과 감성은 적어도 1799년 이전에 집필이 완료되었다. 이는 경제적 사정으로 정든 집을 떠나 아버지의 죽음 이후에 바스(Bath)와 사우스햄튼(Southampton)을 방황하던 시절(1801-1809) 이전의 시기이다.³¹⁾ 제인 오스틴은 1797년 11월에 원고 집필을 시작하였는데 초기에는 “엘러너와 매리앤”이라는 제목 하에 작성하고 있었다.³²⁾

코티지에서의 어린 시절 (1775-1801)

제인 오스틴이 개인적으로 정원 조영에 취미가 있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그녀는 당시 여느 신사 계급의 여주인들과 마찬가지로 정원 전체를 직접 관리하던 어머니로 인해 정원의 생산성과 취향을 유지하는 면을 숙지하고 있었다. 키친 가든(kitchen garden), 축사(stable), 과수원(orchard), 덤불(shrubbery) 등은 그녀의 소설 속에 종종 등장하는 생산 정원들이다. 어린 시절 코티지에서 북적거리는 형제들과 함께 생활하던 모습을 즐겨 회상하는 그녀의 편지들을 통해 이러한 가사 노동을 즐겁게 수행했으리라는 점 또한 유추할 수 있다. 목사인 그녀의 아버지 또한 가축을 기르고 정원을 관리하는 것에 조예가 깊은 인물이었다. 한편, 제인 오스틴은 저택 내 커다란 온실에 거부감을 표현하며 그러한 커다란 자산을 관리해야 하는 여성의 책무에 대한 일방적인 정당화를 거부했다. 이는 정원에 대한 태도라기보다는, 결혼과 가정을 운영하는 책무로서만 여성의 능력을 평가하는 당시 사회적 관습에 대한 불만으로 보아진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장미 덤불에서 꽃을 따오는 페니나 창문으로 조망되는 정원의 풍경을 찬탄하는 매리앤을 통해서 오스틴은 중요한 위기마다 코티지 정원의 요소들을 배치하는 시도를 하였다. 제인 오스틴의 친 자매가 기억에 입각하여 그린 수점의 코티지 그림 중 하나는 옷

31) 같은 논문, p. 12.

32) 같은 논문, p. 16.

방의 창문들이 뚫린 코티지의 전면을 그리고 있다. 앞뜰에는 정원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여 뒤뜰에 화단, 관목, 채소 정원이 조성되어 있었다. 전면 정원을 포함하여 집의 확장 공사 및 여덟 자녀들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녀의 집안은 몇 년간 오스틴을 다른 저택으로 보내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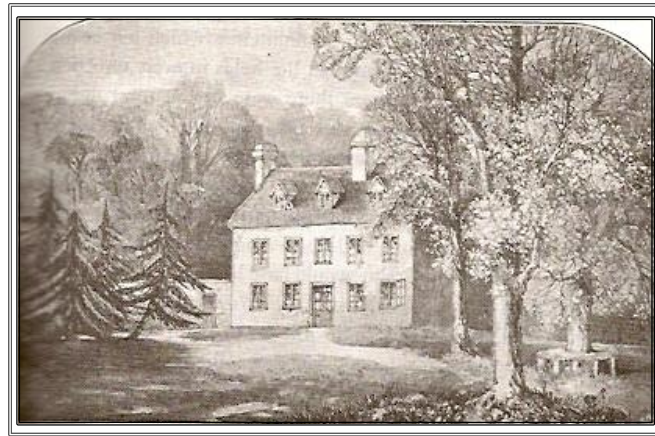


그림 2-1. 스티븐튼(Steventon) 코티지 (언니 앤(Anna)의 그림)³³⁾

오스틴 씨 서재 밖은 유난히 고요했다 . . . 언덕 아래로는 침묵이 눈과 함께 덮여 있었다. 스티븐튼에는 삼십 가구가 안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각각 적당한 거리로 떨어진 코티지들이 열을 이루고 상점이나 여관이 부재했다. ³⁴⁾

스티븐튼 코티지는 이웃과 다소 거리를 두고 고립되어 있었지만 정원에서 여름 휴가 때마다 크리켓이나 야구를 하며 노는 남동생들의 소리나 나무타기, 허물어진 디그위드(Digweed)씨의 집으로의 모험 등으로 늘 쾌활했다. 그녀는 이러한 활기찬 분위기에서 방대한 량의 독서를 즐겼으며, 특히 베란다에서 지리학과 언어를 탐닉했다. 18세기 중후반의 일상적이고 양육적인 영국 중산층의 전원적인 풍경 속에서 오스틴은 극히 드문 사회적 관계 및 안정적이고 소박한 내수 속에서

33) “Ellenandjim (2014), The Austen Papers: Steventon, the world into which Jane Austen was born,” <https://reveriesunderthesignofausten.wordpress.com/>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34) Claire Tomalin, *Jane Austen, A life*, (Vintage Books, 1999), p. 5.

집의 느낌(sense of home)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home-ness’ 는 그녀의 소설에 등장하는 다른 양식의 정원들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탐색되는 가장 주요한 인식 중 하나이다. 한편, 미성취된 사회적 소통 역시 그녀의 소설 속 정원에 상투된 단골 주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코티지에서의 말년 (1809-1817)

오스틴의 가장 후기작 중 하나인 맨스필드 파크는 작중 인물의 복합적인 심리를 풀지 않은 채로 20세기가 임박할 때까지 방치되었던 소설이다.³⁵⁾ 그녀는 1811년 2월에 본 소설을 재개하였고 1813년 6월을 전후하여 소설 집필을 완료했다.³⁶⁾ 초튼(Chawton) 코티지는 윈체스터(Winchester) 일대에 위치하였는데 그녀는 오빠인 에드워드가 그의 영지 중 일부를 제공해 준 이 포근하고 쾌적한 정원에서 팔년간의 말년을 보냈다. (그림 2-7) 그녀와 그녀의 가족은 이곳에 1809년부터 1817년까지 거주했다.

햄프셔(Hampshire) 지방은 그녀가 어린 시절을 보낸 스티븐튼(Steventon) 코티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녀는 이곳의 정원에서 페니라는 이름의 조카의 양육을 돕는 것을 즐거워했고 이는 맨스필드 파크의 페니가 되었다. 목사관(rectory)의 북부 쪽에 키친 가든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에드워드 오스틴은 이곳에 새로 벽면 정원을 그녀의 여동생이 살아 있을 때 조영할 계획을 한 때 세우기도 했다.³⁷⁾

35) Kathryn Sutherland, “Chronology of composition and publication,” in *Jane Austen in Context*, Janet Todd (Dordrecht: Kluwer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6), p. 13.

36) 같은 출처, p. 16.

37) “Chawton Cottage(2013), “The Saga of Jane Austen’s Ring, and the American Connection,” <https://janeaustensworld.wordpress.com/tag/chawton-cottage/>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자료: Adam Callender, 1780 ³⁸⁾

그림 2-2. The Chawton House Landscape

제인 오스틴은 후기의 말년을 훨씬 조용히 보내며 『이성과 감성』과 『맨스필드 파크』의 수정에 매진하여, 1811년과 1814년에 각각 발표했다. 일상적인 코티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초튼 코티지는 그러나 그녀의 가족에게는 에드워드의 지속적인 리모델링 계획과 함께 위대한 집(great house)이 되었다. 그녀의 사촌이 작성한 회고록에는 당시 전체 정원의 풍경이 서술되어 있는데 그는 ‘정원의 모든 외양이 통합적으로 아담하나 적당한 집에 잘 들어맞았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적당한 크기의 입구와 두 칸짜리 거실은 집을 길어보이도록 만들었다. 이는 집으로 향해 오는 길을 조망하기 위함이었다. 커다란 거실 창은 서재로 막혀있었으나 또 다른 창은 측면으로 열려 잔디와 나무만 보였다. 높은 서어나무(hornbeam) 울타리는 윈체스터(Winchester) 도로 쪽 문이 나 있었는데 이는 정원의 작은 영역을 전체적으로 두르고 있었다. 나무는 열 식재되어 정원을 회유

38) “Austenonly (2009), “Jane Austen’s Particular Places: Southampton“,”
<http://www.unteconjaneaustron.com/jane-e-i-fantasm-di-netley-serie-s-barron-vol-7/>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하는 덤불 산책로로 이어졌다. 이는 여자들의 산책에 적합한 공간이었다. 불규칙하나 유쾌한 조화를 이루는 생울타리, 자갈 길, 과수원, 둘 네지 셋의 작은 구역들의 잔디 깎기가 된 긴 풀 더미가 여기저기 놓여 있었다. 여느 코티지와 마찬가지로 당시 유행한 것과 비슷한 양식(style)의, 알맞게 좋은 집이었다. 친지들이 종종 방문할 만큼 넉넉하게 여겨졌다. 집 안팎의 모든 요소들은 꽤 잘 수리되어 있었다. 전혀 사치스럽지 않은, 전체적으로 편안하고 여성스러운 환경이었다.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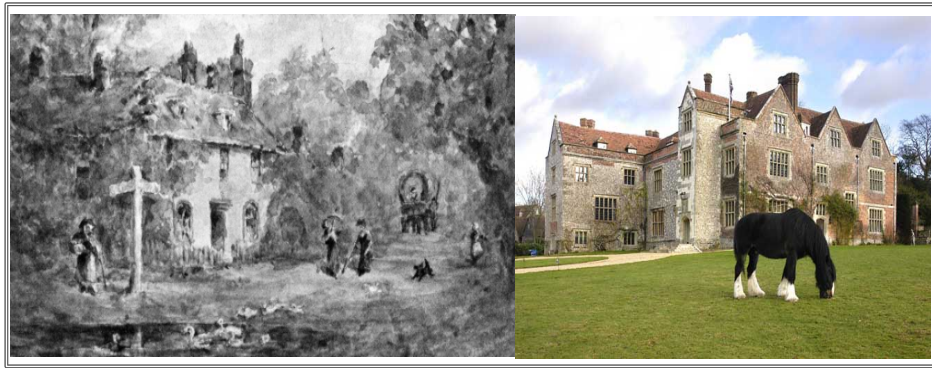


그림 2-3. Chawton코티지(왼쪽)⁴⁰⁾ 와 제인 오스틴의 집(Jane Austen Museum of Chawton) (오른쪽) ⁴¹⁾

그녀의 텍스트에 두루 구현되는 코티지의 요소들은 대저택이나 도시의 거리 변에 위치한 아파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역으로의 걷기나 소풍의 이동, 연결된 길을 통해 야생적 자연과의 접촉 또는 적어도 멀리 떨어진 원경의 조망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경험되어야 할 경관 정보들이 된다. 오스틴의 기억 속에 흔들리는 코티지의 잠재적 이미지들은 구태의연하게 크기만 하거나 정형화된 양식에 빌려 일차적으로 귀족다움을 자랑하는 대저택의 향유되는 이미지의 문화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비판적이다. 이는 다양한 정원이 부재한 맨스필드 파크를 통하여 집중적으로 드러난다. 통제할 수 없는 규범적 틀에 대한 무조건적인 적응의 과정

39) James Edward Austen, *Memoir of Jane Austen*, (London: Richard Bentley And Son, 1871), p. 86.

40) Joan Austen-Leigh, “Chawton Cottage Transfigured”, 『Persuasions: Jane Austen Society of North America』 (1982) vol. 4. p. 10.

41) “Austenonly (2009), “Jane Austen’s Particular Places: Southampton”, (http://www.unteconjaneaustron.com/jane-e-i-fantasmi-di-netley-serie-s-barron-vol-7/)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과 그로부터의 해방을 오스틴은 폐니를 장기간 대저택의 조정 안에 귀속시킴으로써 시계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제인 오스틴의 정원의 현대적 구현은 이러한 코티지의 요소보다는 그녀의 소설 속에 구현된 상투적 정원을 모델로 지어졌다. 오스틴주의자(Janeites)들은 전 세계에서 모금 활동을 통해 초튼 코티지를 ‘제인 오스틴의 집(Jane Austen’s House)’으로 재현하고자 했다. 현실적인 원형성은 상당 부분 상실한 이 정원은 현재 오스틴의 소설 속 인물들의 산책을 모방하며 가벼운 소풍이나 부분적으로 복원된 정원의 산책로, 그리고 정문으로부터 축선 상 뻗은 에비뉴를 건도록 설계되었다. 전형적인 화단들이 곁들여진 후 제인의 당나귀가 후면의 뜰에 노니는 이스튜어드(Steward) 풍의 정원 (그림 2-8)은 원래의 맥락과 목적보다 확장되고 쾌적하게 개선되는 데에 그녀의 오빠인 에드워드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다. 이는 전문적인 작가로서 성공한 제인 오스틴의 말년에 대한 회상이자 환기하려 한 조영 의도로 이해할 수 있다

알톤(Alton)의 남부로 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초튼(Chawton) 마을이 있다. 이 곳에 오늘날 두루 사랑받는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이야기들의 저자인 제인 오스틴의 집이 아직까지 존재한다. 일부는 인부들의 작업장으로, 또 다른 일부는 세 근로자 가정이 살고 있다. 오스틴이 실제 거주하던 시절에 비해 많은 부분이 변하였다. 시골의 신록이 정원에 넘치나, 경치는 불규칙함이 없이 단조롭기 그지 없다. 언덕의 기복, 아름다운 송어 개울, 적당히 낡은 집, 그리고 공원 같이 느껴지는 정원(stately park)이 그림 속에 빠졌다. 제인 오스틴이 태어난 본연의 오래된 코티지는 사라지고 없다. 42)

그녀의 아버지가 열렬히 설교를 하던 소용돌이 침탑 교회를 지나며 흥미 있는 여유와 신성한 명상을 즐기고 개암나무와 참나무를 전정하고 서섹스(Sussex) 지방의 가파른 절벽과 언덕들을 조망하고 버드나무나 오리나무 습지 근처의 시골 폐허로 모험을 떠나고 보라색 헤더(Heather) 뜰과 짙은 초록의 소나무 길을 걷고

42) George Albemarle Bertie Dewar, *Hampshire: with the Isle of Wight*, (London: J.M. Dent & Company, 1900), p. 124.

집 바로 앞에 전경물이 된 거대한 밤나무가 그녀의 텍스트 속에서 사는 방법은 오직 복합적으로 얹힌 사회문화적 맥락의 사건 개연성을 통한 드러나는 이면의 손실과 회복으로 인하여 기인되는 향수 안에서 뿐이다.

2절 대저택 조경 (1801-1806, 1806-1809)

1. 정원의 배경 : 바스(Bath)의 대저택에서 보낸 청년기

아버지의 퇴직과 함께 오스틴 가는 1801년 봄에 정든 집을 떠나게 되는데 시드니 4가(No. 4 Sydney Terrace)에 잠시 거주하다 그린 파크 가(Green Park Buildings)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⁴³⁾ 도시화되어가는 거리와 중상층 계급의 우아한 집과 정원들은 도리어 향수를 자극하여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낭만적 비극에 빠뜨린다. 열린 시골 길을 그리워하며, 그녀는 시드니 가든(Sydney garden) (그림 2-2) 주변에 거주하며 종종 이곳을 산책하고는 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과 함께 값싸고 작은 저택을 떠나 바스(Bath)의 대저택에 얹혀살던 즈음 그녀는 이성과 감성의 초고를 완성했다.

이 시절 제인 오스틴은 종종 친구들을 만나러 햄프셔셔(Hampshire)에 가거나, 그녀의 오빠인 에드워드 가의 집안일을 도우러 켄트의 고드머섬(Godmersham) 공원을 방문하고는 했다. (그림 2-3) 이 공원은 그녀의 생애에 걸쳐 그녀가 접한 대저택들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부귀한 저택 중 하나였다. 이는 그녀의 후기작인 맨스필드 파크의 배경이 되었다. 조경의 거대함과 부귀한 삶을 일시적으로 체험한 오스틴의 경험은 이후 험프리 랩톤(Humphrey Repton) 코티지, 1806년에는 먼친척인 영지인 스톤리 애비(Stoneleigh Abbey)로 이어지며 이성과 감성의 바스(Bath) 저택과 맨스필드 저택에 부분적인 요소들로 적용되었다.

43) James Edward Austen, *Memoir of Jane Austen*, (London: Richard Bentley And Son, 1871), p. 71.

2. 소설 속 구현 방식

정든 코티지를 떠나 낯선 저택으로 들어가던 기억은 『이성과 감성』과 『맨스필드 파크』의 주인공들이 모두 집을 떠나도록 하는데 특히 이성과 감성에서는 대시우드(Dashwood) 가족이 유산 상속을 받지 못하며 통렬하게 집을 떠나는 장면이 생생히 묘사된다. 그녀의 소설에 상당 부분 생략된 그녀의 작품 활동이 없던 공백기동안 제인 오스틴은 시드니 플레이스(Sydney Place)나 험프리 랩톤(Humphrey Repton), 켄트(Kent) 등지를 거주하고 방문하며 그녀의 소설의 주된 바탕이 된 정원들의 요소들을 관찰하고 직접적으로 체험하는 시기를 보낼 수 있었다. 이성과 감성에 이러한 정원들이 다방면으로 등장하는 반면, 맨스필드 파크에는 바스(Bath)나 켄트(Kent) 등지의 대저택만이 배경으로 적용되었다.



그림 2-4. 바스(Bath)의 시드니 플레이스(Sydney Place) 주위 언덕 경치 44)

시드니 정원은 숲(G. Groves) 자락으로부터 이어진 그레이트 플테니(Great

44) “Austenonly (2010), Jane Austen in Bath: Sydney Place, “Austenonly“,”
(<http://austenonly.com/2010/03/06/jane-austen-in-bath-sydney-place/>)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Pulteney) 거리의 끝에 위치했다. 비스타(vistas), 잔디(lawns), 사문암 블록(serpentine-walks), 나무그늘(shady-bowers), 폭포 분수대(waterfalls), 벽감(alcoves), 크리켓장(bowling). 식물들(greens), 멀린 그네(Merlin swings), 작은 동굴들(grottoes), 미로(labyrinths) 등은 요정들이 살고 있는 듯한 세계를 열어준다.⁴⁵⁾

어린 시절에도 오스틴은 엄마와 함께 종종 이웃의 대저택이나 부귀한 친척 집을 방문하며, 중앙 축을 형성하는 블록(central blocks)과 조경이 양 날개로 펼쳐지는 거대한 규모의 정원을 경험했다.



그림 2-5. 켄트(Kent)의 고드머섬(Godmersham) 공원 ⁴⁶⁾

이 때 관찰한 나무 둔덕 결의 호수, 정원 입구의 방향으로 뻗는 넓은 축로, 담쟁이 식물이 장식적으로 뒤덮은 울타리 수벽이 둘러진 정원을 회유하는 좁은 산책로, 갤러리와 장식적 돌 및 바위들은 소설 속에 즐겨 구현되는 요소들이다.

45) John Feltham, *A Guide to all the Watering and Sea-Bathing Places*, (London: G.Sydney Printer, 1803) p. 18.

46) “Janeite Deb (2012), “Jane Austen in Kent ~ Or, How a Set of Pimpernel Coasters Set Me on a Journey”,” (<https://janeausteninvermont.wordpress.com/2012/02/27/jane-austen-in-kent-or-how-a-set-of-pimpernel-coasters- set-me- on-a-journey/>)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그림 2-6. Stoneleigh Abbey, Humphrey Repton (1808) 47)

3절 폐허 정원 (1806-1809)

1. 정원의 배경 : 사우스햄튼(Southampton)의 영지 정원에서의 성숙

바스(Bath)로부터 사우스햄튼(Southampton)으로 이주하던 기억을 오스틴은 행복한 탈출로서 묘사하는데 그녀의 생애동안 방문한 동네 중 가장 깔끔하고 유쾌한 곳으로 기록한다. 그녀는 중세의 폐허가 남아있는 이 고장에서 낭만의 끝자락을 붙들게 될 새로운 환희를 발견한다. 그녀가 이사하는 새 집은 오래된 도시 성벽을 조망하는 경치를 지닌 집이었다. (그림 2-5) 이곳의 강은 조수가 높게 차면 수위가 높아져 벽까지 차오르고는 했다. 제인 오스틴은 해변 산책로로 향하는 벽의 경계부를 즐겨 거닐며 계단을 오르내리고는 했다. 집으로부터의 경관은 특히 사우스햄튼(Southampton) 해안을 서향으로 조망하여 광활한 풍치를 자랑하고 있었다.

47) “Stoneleigh Abbey (2010), “Cassandra Leigh Austen’s Stay at Stoneleigh Abbey,” (<https://janeaustensworld.wordpress.com/tag/stoneleigh-abbey/>)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오스틴 가는 종종 보트를 타고 잇센(Itchen) 강가로 소풍을 떠나고는 했다. 이곳에서 그녀는 노템(Northam)의 전함들을 구경하고는 했다. 저택 근처의 니틀리에비(Netley Abbey)의 고딕 폐허(그림 2-6)로까지 연장되고는 하던 그녀의 산책은 마을을 둘러싼 영국 시골의 사랑스러운 풍치와 사우스햄튼(Southampton) 해안의 절경을 잇센(Itchen)과 테스트(Test) 강가의 독을 걷는 것으로 이어졌다. 그들은 종종 페리선을 타고 잇센(Itchen)에서 잇센 페리 마을(Itchen ferry village)로 이동하였고 피어트리(Peartree Green) 정원을 거닐고 근방의 사원을 방문하거나, 랜스(Lance)의 치젤(Chessel) 영지로 향하는 해안 도로를 따라가기도 했다.⁴⁸⁾

2. 소설 속 구현 방식

이성과 감성에서 매리앤은 종종 해안으로 이어지는 산책로를 따라 강력한 자연의 리듬에 경탄하기도 하고 급변하는 날씨나 광활한 거리감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이성적인 엘리너에 비해 감정적인 인물로 상투된 매리앤에게 이러한 풍경은 작은 정원에서 일어난 위기를 연속적으로 흐르는 자연의 선을 따라 확장되며, 정신적인 공황감을 주기도 했다.



그림 2-7. Southampton Sea Walls (왼쪽) and Castle Square, Southampton, Hampshire (오른쪽)⁴⁹⁾

48) “Austenonly (2009), “Jane Austen’s Particular Places: Southampton,” (<http://austenonly.com/2009/12/07/jane-austens-particular-places-southampton/>)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야생의 자연과 고딕 폐허는 작가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제인 오스틴으로 하여금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종종 고딕 소설에 빠지게 만들거나, 낭만적 공상으로 인하여 가까이에 있는 인물이나 상황에 대한 판단의 오류를 범하도록 한다. 매리 앤은 극중 이의 가장 큰 희생양이 된다. 야생같이 느껴지는 자연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고 되찾는 과정을 반복하며, 오스틴의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자신과 자연 사이의 거리를 재설정하게 된다. 길들여진 야생을 배회하며, 그녀와 그녀의 주인공들은 정원의 고요하지만은 않은 풍치를 거닐다가 혼돈과 흔들림 이면의 자아의 확장된 모습을 불현 듯 재발견하고는 하는 것이다.

니틀리 에비(Netley Abbey)는 오스틴 가가 즐겨 방문하던 장소 중 하나였다. . . . 히데(Hythe)로 가는 보트 여행이 있었고 니틀리 에비(Netley Abbey)의 폐허를 관람하는 코스가 있었을 것이다. . . . '우리는 경탄으로 명해졌다. 이 숭고에 가까울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쓸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맨스필드 파크에서 페니의 대화 중) 50)



그림 2-8. Netley Abbey의 전경(왼쪽) 51)과 전망(오른쪽) 52)

49) “Austenonly (2009), “Jane Austen’ s Particular Places: Southampton“,” (<http://austenonly.com/2009/12/07/jane-austens-particular-places-southampton/>)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50) Claire Tomalin, *Jane Austen, A life*, (Vintage Books, 1999), p. 387.

51) Stephanie Barron, “La vicenda più intensa e drammatica dell’ investigatrice Jane Austen in 「Jane e i fantasmi di Netley」” 『TEA』 (2015), vol. 7.

52) “Austenonly (2009), “Jane Austen’ s Particular Places:

4절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재구성

명예혁명⁵³⁾ 이후 불안정한 사회 속에서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합리주의 경향에 반발하여 인간 본유의 감성을 영국성(Britishness)을 통하여 회복하고자 한 시도는 17세기 영국 작가들에 의해 일찍이 시도되었다. 1780년대부터 영국 소설가들은 산업발달에 의해 야기된 사회변화에 부응하여 작품 속의 남녀 주인공은 지체 높은 사회계급 출신이어야 한다는 전통을 점점 더 거부하고 본보기가 될 만한 낮은 계급 출신의 인물들을 소설 속에 포함시키기 시작했다.⁵⁴⁾ 시골의 크고 작은 정원을 향유하는 새로운 세력이 된 중상층 신사 계급은 오스틴의 생애 전반에 걸쳐 그녀의 생활 방식과 가치관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들은 전통과 새로운 양식 사이에서 심미성과 전원의 자연성의 존중에 입각하여 독특한 취향을 공유하였다. 오스틴은 공공의 취향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기보다는 유행과 구태의연함 사이에 부재한 균형 있는 지각 작용으로의 회귀의 필요성을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다.

이성과 감성 속 정원들은 이성으로 대변되는 정형적이고 보수적인 정원들을 매리앤의 감정적인 발화를 통하여 해체한다. 매리앤의 감정은 야생의 자연 속에 적극적으로 투사되며, 일련의 서사적 변화를 경험하며 결말 부분으로 갈수록 조화를 이루는 감성(感性)의 정원으로 그 초점이 이동한다. 불만족스럽고 위기의식을 느끼도록 하는 정태적 요소나 두려움의 대상으로서의 풍경은 적극적인 해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감성 속에서 새로 재구성되는 그림이 된다. 코티지로부터 대저택 조경에까지 다양한 형태의 정원이 출현하는 복합적인 서사 속에서 정원은 지속적인 경험적 변화가 작용되고 있는 뜰이다. 제인 오스틴이 실제 정원들에서 지각한 요소들은 물리적 범주를 넘어 사회문화적, 심리적 요소를 망라하는 것이다. 그녀

Southampton“,” (<http://www.unteconjaneaustrin.com/jane-e-i-fantasm-di-netley-serie-s-barron-vol-7/>)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53) 명예혁명(名譽革命)은 1688년에 일어난 혁명으로 유럽의 대동맹 전쟁과 관련되어 영국 의회 민주주의를 출발시키고 1689년 권리장전이 작성되었다.

54) 이월지. “제인 오스틴 소설의 ”여가의 문제 “ 재평가,” 『근대영미소설』, 7(2), 2000, p. 121

의 기억 속 정원 풍경의 끝자락들을 새로운 시점에서 재단하여 조영된 가상의 정원들은 문학과 정원이 자매 예술로서 깊은 연관성을 지니던 당시, 많은 작가들의 경향을 반영한다. 정원의 자연성과 풍경의 가치에 새로이 눈을 뜨며 시적인 감정의 발화와 감수성의 회복의 가능성을 물리적인 공간을 매개로 탐색한 제인 오스틴을 비롯한 많은 영국 작가들은 고전주의적 잔재를 인물들의 충동이나 비극성을 통하여 엄중히 실험하고 이상적 환경과의 상충에 부딪힘을 묘사하였다. 영국의 역사적인 과도기에 선명하게 기록된 이러한 작품은 정원 양식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포섭한 동시, 물리적 틀로서 굳어질 정원의 형식성에 대한 사전적인 반작용으로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엘리너와 매리앤의 『이성과 감성』은 이용자에게 있어 정원이 환기하는 인식의 작용과 반작용을 아울러서 보여준다. 오스틴은 정원 공간에 대한 직접적, 간접적인 논의들이 상충하고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대조적인 두 프로타гон리스트들을 통하여 이에 대한 도해를 꾀하고 있다.

맨스필드 저택은 고정된 장소로, 고전주의적 요소와 낭만주의적 요소가 혼재되는 당시 정원의 양상이 진행된 공간이다. 이 작품의 유일한 프로타гон리스트인 패니는 이러한 혼합된 공간에 불가항력적으로 놓여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주위 환경으로의 내면적 합치(合致)를 거부하고 정태적으로 놓인 권위에 반기를 드는 인물이다. 공간에 대한 외연적인 적응이 두드러지는 그녀의 태도는 그러나, 동시에 경관으로의 이중적인 수용의 태도를 보여준다. 이러한 애매한 양상을 그녀의 주인공의 태도와 자아에 투사시킴으로써 제인 오스틴은 형태적 정원과 풍경 및 자연성 사이에 남아 있는 진정성을 찾고자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다. 기계적 관념성보다 주변 인물의 순간적으로 따뜻한 태도나 정원의 물리적 요소에 대해서도 그러한 친숙함으로부터 위안을 얻는 패니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원으로서, 그녀의 정원관을 다양한 환경적인 반작용을 통하여서 투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8세기와 19세기를 풍미한 영국 풍경식 정원에 그려진 정원 조영의 원형적 의도와 맥락적인 측면에서는 닮아 있다. 오스틴의 소설은 작품을 통해 보편화된 정원을 해체하고 초기적 특수성의 진의를 드러낸다. 풍경식 정원의 초기

조영자들의 의도적 참신성에 부합하는 섬세한 가치관은 그녀의 소설의 의도로써 재조명되며, 한 시대의 정원을 구성하는 사회문화적인 특수성과 인간 본연의 보편성 사이에서 초점과 스케일을 달리하며 시간적 서사 속에서 관리되어지고 운영되어진다. 그녀에게 정원은 사회적이면서도 개인적인 의도의 표출을 위한 물리적 매개물이지만 그녀가 다양한 인물들의 시점과 주체들의 전환을 정원 공간 안에 투사하고 있는 통합적인 방법론은 정원예술의 정신을 그 자체대로 살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원을 재구성하는 주체로서 한 작가의 시각은 정원 조영의 역사와 동시대인 맥락 안에서 형성된다. 풍경과 텍스트의 병치는 매개적인 수단인 동시에, 의도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조영된 정원으로서 소설로 그 상이 맺혀지게 한다. 일반적인 풍경이 소설을 통해 각자 개인들의 눈에 비친 양상을 19세기를 전후한 두 소설을 통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자연의 직접적 구현이나 양식의 재현이 아닌 보는 이가 생각하고 느낀 풍경이 정원 양식의 변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지니는 지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3장 두 소설 속 정원의 인식 비교

1절 장소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이성과 감정

집으로서의 정원에 대한 양가적 인식 : ‘house’ - ‘home’

정든 놀런드를 떠나며 매리앤은 정든 나무들, 바람에 흔들리던 잎과 가지, 그늘 아래의 산책에 작별을 고한다. 그녀에 의해 “행복한 집(이, 37)”으로 묘사되는 본향(home)에서 새로운 집(house)인 바튼(Barton) 파크로의 멀어짐은 침울함을 남긴다. 바튼 계곡에 들어서며 펼쳐지는 경치는 그러나 이들에게 곧 새로운 생기로 치환된다. 낯선 집(house)에 결핍된 것은 자잘한 코티지의 요소들이다. 집으로서의 느낌을 주는 정원의 요소 중 오스틴은 특히 신록이 주는 편안함, 상징성 및 그의 너비와 깊이감을 중시한 듯하다.

그 곳은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숲이 무성하고 목초지도 풍부했다. 계곡을 일 마일을 넘게 돌아가자 집(house)에 도착하게 되었다. 앞쪽의 땅은 자그마한 초록 마당이 전부였으며 깔끔한 쪽문을 통해 집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었다. 바튼 코티지는 작기는 했지만 주택으로는 편안하고 짜임새가 있었다. 그러나 코티지라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건물은 사각형이고 지붕도 타일로 덮여 있었으며 창문의 덧문도 초록색이 아니었고 벽도 인동덩굴로 덮여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⁵⁵⁾, 38)

정원에 대한 원경은 한편 풍경으로 조망되는 광대함으로의 열림으로서 세부적인 요소에 결핍된 신록을 대체해 준다. 언덕이 높다고 느껴질 만한 높이감, 지형의 움푹 트이고 집중된 부분, 숲의 깊이감 속에서 집(house)의 낯설음은 경외감으로 치환된다. “멋진 전망(이, 38)”은 코티지의 외연을 둘러싸는 정원의 연속성

55) 본 논문의 발췌문 중 『이성과 감정』은 ‘이’로 『맨스필드 파크』는 ‘맨’으로 표기한다.

을 통해 거리감을 무마한다. 또한, 원경과 근경의 차이와 반복을 폭넓은 시각에서 조망함으로써 눈을 통한 감성적인 균형을 도모하고 있다.

집의 위치도 좋았다. 높은 언덕들이 집 바로 뒤와 양옆으로 조금 떨어진 곳에 솟아 있었다. 언덕 가운데 탁 트인 구릉지도 있었고 조림이 잘되어 숲이 무성한 곳도 있었다. 이 언덕들 중 하나에 바튼 마을이 있었고 코티지의 창문으로 그 곳의 멋진 전망이 보였다. 앞쪽의 경치는 훨씬 광대했는데, 계곡 전체와 그 너머에 있는 마을까지 보였다. 코티지를 둘러싼 언덕들이 그 방향으로 이어져 계곡을 끝맺고 있었다. 그중 가장 깊은 두 언덕 사이에서 다시 계곡이 뻗어 나와 다른 방향으로 나가면서 다른 이름을 얻고 있었다. (이, 38)

인간적인 스케일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크기는 낯선 정원을 중추적 위치로 회귀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실제 거주하던 집(home)의 정원과 이상적인 동시에 낯선 풍경 사이에서 오스틴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은 새롭고 절충적인 집의 새로운 모형을 구축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내연으로 전환되는 풍경 요소 : ‘nothing’ - ‘whole’

경치에 ‘치환’된 마음 속 집이 될 정원의 풍경은 대시우드 가족을 편안하게 바튼에 자리 잡게 할 것이다. 이들은 머지않아 “집과 정원과 더불어 주변의 모든 경치에도 익숙해지며(이, 50)” 놀란드에서 보다 훨씬 즐거운 일상을 보내는 듯 보인다. 오스틴은 그러한 즐거움을 “놀란드의 매력을 받은 차지했던 일상적인 일에 다시 열중하게 되어(센 50)” 획득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바튼 계곡에서 갈라져 나온 앨런햄의 좁고 구부러진 계곡을 따라 코티지에서 1.5 마일쯤 떨어진 곳에 존재하는 오래되고 훌륭해 보이는 노부인의 저택을 발견한 이들은 놀란드를 연상시키는 정원의 외양에서 다름 아닌 이전 집을 상상한다. 특히, 비현실적인 이상적 간극을 대체하는 것들 중 하나는 비슷한 듯 새롭기 때문에 흥미로운 풍경에서의 모험적 요소들이다.

주변에는 아름다운 산책로가 풍부했다. 아래쪽의 계곡이 흙탕이 되는 바람에 그 기막힌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을 때면 기꺼이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곳이 높은 구릉지였다. 코티지의 거의 모든 창문에서 다 보이는 이곳은 그들에게, 어서 나와 꼭대기에서 신선한 공기를 즐겨 보라고 유혹했다. . . . “세상에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니? 마거릿, 여기서 적어도 두 시간은 산책 하자.” (이, 51)

어느 기억할만한 아침, 기분을 상쾌하게 하는 높은 남서풍 바람을 얼굴에 느끼면서 그들은 이러한 충만한 행복감을 표현하기를 아끼지 않는다. 소나기가 올 듯 찌푸른 하늘에 잠깐 햇살이 비치자 이들은 마음이 설레인다. 이틀 동안 끈질기게 내린 비 때문에 간혀 있었으므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언덕 중 하나로 발걸음을 향한 이들은 “비를 예고하는 구름은 언덕에서 곧 걷힐 것이며 계속해서 날씨가 좋을 것(이, 51)”이라는 희망을 품는다.

그들은 푸른 하늘이 조금씩 더 보일 때마다 자신들의 통찰에 기뻐하며 즐겁게 구릉지를 올라갔다. . . . 그들은 바람을 거슬러 계속 걸어갔다. 약 이십 분 정도 더 즐겁게 웃으며 바람을 헤치고 나가는데 갑자기 구름이 머리 위로 모이더니 비가 휘몰아치면서 얼굴에 뿌렸다. 놀라고 속이 상했지만 할 수 없이 뒤돌아서야 했다. 집 말고는 더 가까운 피난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급한 순간이기 때문에 무모하다고 야단 듣지 않으면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것이 하나 남아 있었다. 그것은 정원 문으로 통하는 언덕의 가파른 등성이를 있는 대로 속도를 내어 달려가는 것이었다. (이, 52)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열정과 고뇌를 변화 많은 기후나 날씨와 연관시켜 섬세하고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다.⁵⁶⁾ 이처럼 비가 억수로 내리는 장면은 이야기가 전개되는 데 있어 주요 역할을 한다. 풍경을 새롭게 재구성하는 날씨, 연속되는 동선의 불연속적인 요소, 멀리 보이는 낮선 폐허 등은 기존과는 다른 거칠고 새로운 숭고의 정서적 반응을 도모한다. 오스틴의 여주인공들은 공통적으로 인간을 작고 미약하게 보이도록 하는 자연 앞에서 크고 거친 아름다움을 체험한다. 무한하고 불명료한 풍경

56) 유종인. “제인 오스틴의 세 소설에 나타난 날씨에 관한 연구: 『지성과 감성』, 『엠마』, 『맨스필드 파크』,” 『민족과 문화』, 8, 1998, p. 210

에 대한 이토록 낮은 경험은 원형적인 영국의 집이 일시적으로 부재한 가운데, 마음의 감수성을 회복하도록 하는 적절한 자극으로 환기된다. 황야, 고독, 아름다움 등이 본격적으로 상투되기 시작한 정원 풍경은 다양한 미적 체험을 선사한다. 불규칙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요소들은 전체적인 조망을 통한 도리어 새로운 조화를 강요하며, 거칠은 자연의 요소를 느끼도록 한다. 빛과 그늘의 변주와 다채로운 시각적 양상은 감상자가 유기적으로 연결하도록 하는 능동적인 반응을 유발한다. 이러한 다차원적인 공간 경험을 통해 오스틴은 당시 시대에 흔들리는 영국민의 정체성(identity)을 비판하며, 순수한 정원의 속성들을 통해 주인공들의 심리적인 위기의식을 상투시킨다. 이를 통하여 그녀의 주인공들의 감상적인 움직임이 도모하여 독자와 정원의 감상자의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므로 그녀가 해석하는 정원은 언제나 양식이 요구하는 상대적인 수동성에 비하여 가변적이고 역동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유사적 경관 짜임 : ‘cottage’ - ‘picture’

18-19세기 전형적인 코티지의 정원 요소들은 오스틴의 주인공들이 방문하게 되는 다른 정원 양식에 두루 분산되어,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로 하여금 그러한 요소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도록 한다. 19세기 전원지역에 나타난 코티지 정원은 경제적 필요에 의해 생겨난 생산정원의 유형을 기본으로 하고, 부유층과 중간층의 코티지 정원은 미적 향유를 위해 상당히 장식적인 정원으로 발전하였다. 영국 코티지 정원양식을 요약하면 디자인은 직사각형으로 단순하며, 직선의 통로를 구성된다. 영국 전원의 자연을 모사하고 숲속과 같은 자연을 표현하고 있다. 자생 식물 중 위주의 풍부한 초본류와 관목들의 조합으로 코티지 정원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⁵⁷⁾ 서머셋 주의 클리블랜드로 도망치듯 떠난 여행에서 매리앤은 이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탐색할 때에 가슴이 벅차오른다. 그녀는 “자유롭고 호

57) 박은영, 유상준. “영국 코타지 정원의 발전과 정원요소: Barrinton Court와 Hidcote Manor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10, 2012, p. 14

사스런 고독 속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방황하는 행복한 특권(이, 343)”을 다양한 시골의 길들 위 산책로를 통해 경험한다. 그녀는 석양 무렵 그리스 풍 교회나 공원을 돌아보는 것을 종종 즐겼다.

클리블랜드는 경사진 잔디밭에 자리 잡은 큼직한 현대식 저택이었다. 장원은 없었지만 정원은 상당히 방대했다. 같은 급의 장중한 다른 저택들처럼 이곳에도 탁 트인 관목 숲이 있었고 주위가 막혀 있는 오솔길이 있었으며, 농원 주위를 빙 둘러싸고 있는 부드러운 자갈길은 정문까지 이르고 있었다. 잔디밭에는 큰 나무들이 군데군데 서 있었고 저택 자체는 전나무와 마가목, 아카시아의 보호를 받고 있었으며, 그런 나무들 전체가 키 큰 롬바르디 포플러와 섞인 채 두꺼운 가리개가 되어 헛간 등을 가리고 있었다. (이, 343)

그녀가 떠나 온 고향의 코티지에 대한 애착은 세부적이고 일상적인 정원에서의 일상에 대한 묘사를 통해 어김없이 드러난다. 매리앤은 저택 구내의 부속지들에서 코티지 정원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일상적으로 발견하는 것에 크고 작은 기쁨을 느낀다.

뒷밭 주위를 돌아보고 울타리 위의 꽃들을 살펴보며 잔디가 많다는 정원사의 불평을 듣기도 했다. 샅썬은 온실을 거닐다가, 방심하는 바람에 때늦게 내린 서리에 노출되어 아끼던 식물들이 얼어 시들었다는 얘기에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으며, 가금류가 있는 마당에 갔을 때는, 암탉들이 둥지를 버리거나 여우에게 물려 가버린 것 때문에 하녀가 실망하는데서, 혹은 잘 자라던 어린 병아리가 갑작스레 죽은 것에서 새로이 즐거워할 거리를 찾기도 했다. (이, 421)

저택의 거실에 걸린 풍경화와 창을 통해 보이는 그림같이 아름다운 풍경은 기쁨 겨운 찬사를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경탄이 표출되는 순간은 절망에 빠진 제인 오스틴의 프로타гон리스트가 유일하게 회복의 낌새를 보이는 장면으로 설정된다. 자신에 대해 확신하는 점에 있어서 미성숙한 매리앤은 낯설지만 유사한 요소들이 풍경화처럼 펼쳐지는 새로운 저택들을 전전궁궁하며 자신의 위치를 찾지 못하나, 이에 대한 아쉬움을 풍경에 대한 관조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인물이다.

매리앤은 낭만적 사고의 선상에서 자신의 감정을 유달리 적극적으로 풍경에 투영한다. 그녀는 자연 풍경 중에서도 거칠고 말라비틀어진 풍경, 즉 회화적 아름다움을 가진 경치를 선호하며, 코티지와 유사적 풍경이 보다 거칠게 혼합되는 장면들에 정신이 고양된다.

이제 막 물이 오르기 시작한 굽이진 관목 숲은 살짝 지나 멀리 있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거기서 그녀의 시선은 그리스 풍 교회에서부터 남동쪽의 넓은 들판으로 배회했고, 지평선 위의 먼 언덕 등성이에 다정하게 머물면서 그 꼭대기에서는 콧 매그너가 보일 것으로 상상할 수 있었다. (이, 210)

이에 비해 엄중하고 침착한 엘러너는 온실의 실용성만을 강조하거나 멋진 풍경과 경탄만을 위한 정원의 관리에 대하여 “상식적이지 않다(이, 257)”는 표현을 통해 한편 우려와 질책을 드러낸다. 두 인물 모두 자연경관에 대한 찬미가 진부한 상투어로 변해버린 것을 한탄하고 실용적이고 기계적인 것으로 인식되는 정원을 다소 냉랭한 시선으로 관조한다. 풍경 속의 온전한 정원의 합치를 이상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프로타고니스트의 성장으로 기술한 제인 오스틴은 풍경과 정원이 조화되어야 할 풍경식 정원의 일방성을 경계하고, 보다 섬세한 해체를 통하여 그 합치 정도를 비판적으로 측정하고자 했다.

“집 뒤에 있는 언덕에다가. 그 자리를 만드느라고 오래된 호도 밤나무들을 전부 잘랐지. 영지의 어느 방향에서 보더라도 아주 멋진 풍경이 될 거야. 화원은 바로 그 앞에서 경사를 지어 내려올 테니 정말 예쁘겠지. 언덕 마루에 군데군데 자라던 오래된 산사나무는 다 베어 버렸지.” (이, 257)

정원에 대한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는 공간 : ‘opportunity’ - ‘relationship’

브랜든 대령의 델러포드 저택은 작품 안에서 간접적으로 묘사된 이상적인 정원이다. 제닝스 부인은 델러포드의 고풍스러운 저택에 대하여 엘러너에게 설명하며, 매리언의 윌러비에 대한 허상보다는 현실성이 바탕이 된 브랜든 대령에 대한 이

상적 판단을 권고한다. 이 때 정원의 이상적인 면모로써 제시되는 요소는 낭만적 풍치에 실용성이 가미된 균형 잡힌 풍경이다.

편안하고 편리한 게 가득하고, 그 지방에서 제일 좋은 과일나무로 꼭 들이찬 큰 정원이 담장인 셈이고 그 안에 파묻혀 있다우. 게다가 한 구석에는 뽕 나무가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살렘과 내가 한 번 갔을 때 얼마나 먹었던지! 그리고 비둘기장도 있고, 멋진 양어장도 여러 개 있고, 또 아주 예쁜 운하가 있어요. 말하자면, 원하는 게 모두 다 있다우. 게다가 교회도 가깝고. 유료도로에서도 반마일 거리라 결코 지겹지 않아요. 저택 뒤로만 가서 오래된 주목 정자에 앉아 있으면 지나가는 마차를 다 볼 수 있기 때문이라우. 아! 멋진 곳이지! 마을 푸주간도 바로 옆에 있고 목사관도 코앞에 있지. (이, 223)

“고목이 되어 뒤틀린 나무를 찬미(센 108)” 하는 낭만적 취미를 지닌 매리엔에게 현실적인 기회를 바탕으로 약혼과 같은 새로운 관계에 타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에드워드는 매리엔의 충동적인 찬사에 대하여 자신은 “회화적인 것(이, 112)”에 대해 아는 게 없고 무식하고 취향이 없는 것에 기분이 상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던지시 한다. 바위와 꽃, 회색 이끼, 관목이 많이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만 회화적인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에드워드는 멋진 시골의 전제인 아름다움과 실용성이 겸비되어 있으므로 만족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언덕이 힘차게 뻗어 있는 것을 가파르다고 할 테고, 표면이 바위로 층을 이루어 골이 진 것을 이상하고 거칠다고 할 것이며, 안개 짙은 대기라는 부드러운 매개체 속에 희미하게 보일 뿐인 것을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고 할 테니까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는 이런 정도의 찬사로 만족하세요. 이곳은 아주 멋진 마을입니다. 언덕은 가파르고 숲은 좋은 나무로 가득 차 있고 계곡은 편안하고 아늑해 보여요. 풍부한 목초지와 여러 개의 아담한 농가가 여기 저기 흩어져 있더군요. (이, 112-3)

이를 자랑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찬사가 공유되지 못하는 데에 거부감을 표현하는 매리엔과 달리 엘리너는 그가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느끼는 이상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척한다고 생각하고는 그런 허세가 싫기 때문에 자신은

자연을 보면서 실제보다 더 무관심한 척, 안목이 없는 척 한다(이, 113)” 고 해명한다. 이에 매리앤은 모두가 느끼는 척 하며 회화적 아름다움을 처음 정의한 사람의 취향과 멋진 표현을 모방하는 말들을 “감각과 의미가 죄다 낡고 똥아빠진 언어”로 표현하며 부분적으로 이에 동조한다. 멋진 경치와 회화적 아름다움의 구별점을 오스틴은 그녀가 남자 주인공들 가운데 가장 도덕적인 인물로 설정한 에드워드를 통하여 일상적인 차원의 경외감으로 해체한다.

“저는 멋진 경치를 좋아하지만 회화적인 아름다움이라는 원칙에서는 아닙니다. 저는 굵어서 비틀리고 말라버린 나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게 쪽 뻗어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훨씬 더 찬미할 겁니다. 황폐하고 부서진 오두막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췌기풀도 엉겅퀴도 히스 꽃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망루보다는 아늑한 농가에 있는 게 더 즐거워요.” (이, 114)

뽕나무와 운하, 주목정자의 영예는 제닝스 부인이 필사하는 당시 중상층 계급의 취향에 걸리던 가치관이다. 오스틴은 상투적 아름다움을 넘은 비밀상적이고 비범한 시적 숭고를 찬미하는 매리앤의 고립적 자아와 에드워드의 정원의 순수한 실용성의 피설, 그리고 이를 중재하는 엘리너의 이성적이고 보류적 비판을 통해서 ‘아직’ 진정으로 영국다운 정원이 조화롭게 조영되지 않았음을 암시한다.

2) 맨스필드 파크

휴식과 융화의 집으로서의 정원 : ‘park’ - ‘shelter’

풍경으로부터 자연성으로 종종 회귀되는 맨스필트 파크는 페니에게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정원이다. 정원은 사방 5마일이나 되는 영지의 일부로서 현대적인 저택과 함께 꾸준히 지속되고 운영되어져야 하는 공간이다. 어린 시절, 코티지 집(home)을 떠나 새로운 전망의 저택(house)으로 이동된 페니는 이러한 정원의 실용적이고 양식적인 특성에 익숙해져 있다. 맨스필드 파크에는 정원의 관리의 필요성이 종종 신사들의 사회적 언설을 통하여 논의된다. 그녀의 오빠나 아버지가

정원의 관리와 보수에 상당한 열정이 있었음을 고려해 볼 때, 그녀에게 정원은 일차적으로 편히 쉴 수 있고 깔끔하게 운영되어지는 집으로서의 기능적 장소이었을 것이다. 우아하고 친밀한 공간으로서 더 나은 환경의 집의 조영을 언제나 이상적인 시도로 평가하며, 제인 오스틴은 자신의 어린 시절 코티지가 못 다 이룬 이상적 환경의 실현화를 작중 인물들의 의지를 통하여 분명히 표명한다. 이처럼 충동적 애착과 “자신이 언제라도 올 수 있는 집 (맨, 159)”으로서 정원은 늘 풍경에 열려 있고 다방면에서 진입이 수월한 특성을 지닌다.

농가의 마당은 완전히 없어야 하네. 그리고 집의 북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도록 해야 해. 그쪽의 전망이 아주 아름다우니까. 그리고 진입로는 지금 정원이 있는 곳으로 내야 하네. 지금 집의 뒤쪽으로 새 정원을 만들어야 하고. 개울도 어떻게 해야지. (맨, 158)

정원의 개조가 사회적 취향처럼 여겨지던 당시 집으로 풍경의 다양성을 끌어들이는 이와 같은 시도와 더불어, 오스틴의 어린 시절 집인 코티지 정원의 요소들에 가까운 단아한 가구들, 취향에 따라 부분적으로 식재되는 몇 종의 식물들, 마당에서 뛰어 노는 가금류 등은 그녀의 인물들로 하여금 친숙함을 회복하도록 한다. 식민지 정책 이면의 야만성과 정체성의 혼돈이 영국 사회에 음울한 그늘을 드리우던 시대적 상황에 대비한 이러한 개조를 제인 오스틴은 ‘감옥이 아닌 품위 있고 완벽에 가까운 정원을 유지하려는 당시 신사들의 풍토’로서 반영한다.

수월한 개조를 위해 낮은 지대, 울창한 숲, 시내 등을 남성 화자들이 정원에 중요한 요소로 꼽은 한편, 여성 인물들은 “예쁜 관목 숲 (맨, 56)”이나 가로수길의 나무 밑 등 개조와 이용적 측면 이전의 정원의 세부적인 요소들을 통한 주관적인 아름다움, 그로부터 느껴지는 미덕 등을 재차 강조한다. 반면, “철문(맨, 83)”, 똑같은 언덕과 경관 등은 속박과 곤경의 느낌을 준다.

합리성과 낭만성을 필두로 당시 영국의 정원들은 풍경이라는 요소를 이처럼 다각적으로 해석하는 과정 자체로서 즐긴 듯 보인다. 몇 차례 굽이진 길들,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요소의 불연속적 체험, 확장된 자연경관 안에 불가항력적으로 자

리하는 새로움과 낯설음의 경험을 통한 이질적 희열을 즐기는 동시에 이들은 정원 속에서 자신들에 친밀한 요소를 끊임없이 재발견하였다. 이중적인 정원에 대한 잣대가 공유되는 가운데, 오스틴이 제시한 정원의 공통적 인식의 도달점은 소중한 집(home)으로 다시 새로이 융화되어야 할 필요성과 그 인식적 과정에 있어 정원 요소의 재발견이다. 다시 말해 누구나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정원을 조영하고자 한 근본적인 이념에는 당시 정원에서도 변화가 없다.

파크에 들어섰을 때 그녀는 세심하게 주위를 돌아보고 기쁨을 느꼈다. 그녀가 그곳을 떠난 지 꼭 석 달째였고 이제 겨울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뀐 것이다. 그녀의 눈은 싱싱한 녹색의 잔디밭과 식물을 바라보았다. 나뭇잎들이 아직 무성하지는 않았지만 더 큰 아름다움을 기대하도록 상상의 여지를 남기고 있는 그런 쾌적한 상태였다. 에드먼드는 전보다 더 침울한 상태로 그 쾌적한 정경이 마음을 압박하는 듯 눈을 감고 있었다. (멘, 248)

즐거움과 고통의 순간에 처한 그녀의 인물들이 보다 크고 불연속적인 정원을 통해 갑작스레 평안과 위안을 얻는 과정을 그린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는 융화와 절충으로서 정원 공간의 매개적 역할을 재차 강조해준다. 작은 마을의 코티지, 대저택, 폐허, 성벽, 장원, 목사관, 해안절벽 등 꾸준한 정원에 연속된 공간들로의 인물들의 이동은 소설적 장치로서 이를 드러낸다. ‘쾌적함’으로서 종종 표현되는 이러한 정원의 융화적 기능은 공원의 사회적 열람과 정원의 자가 명상적 사유를 망라하며, 사회적 명예를 중시하는 크로퍼드 양, 자신의 겸허한 보수성을 고수하는 에드먼드, 새로운 자아를 표출하고 싶은 열망을 지닌 패니 모두에게 각기 다른 방식으로 유익한 적응을 도모하고 있는 듯하다.

자연적 감수성의 회복 : ‘walk’ - ‘reconciliation’ , ‘danger’ - ‘spirit’

패니를 둘러싼 여성 화자들은 자연의 매혹과 그 감수성을 아낌없이 표현한다. 자연에 대한 시적 감수성의 회복은 주어진 상황에 대한 통찰력, 이성과 감정의

조화, 주변 인물들에 대한 호감도를 상승시킨다. 종종 “산책을 가는 것이 좋겠다.” 라고 말하며 위기 상황을 순간적으로 관조하려 하는 주인공들의 태도는 시골 풍경으로부터 공간적으로 떨어지거나 동일한 풍경 안에서 좌절된 희망으로 마음의 눈을 닫은 화자들이 다시 새로운 조화를 위한 마음의 여유를 회복하도록 한다.

프라이스 부인은 매주 예배가 끝나면 성벽으로 산책하러 가서 만찬 시간이 될 때까지 머물곤 했다. 그들은 이제 그곳으로 갔다. 드물게 아름다운 날씨였다. 3월이었지만, 따뜻한 공기와 부드러운 바람, 이따금 구름에 가리는 화창한 햇살이 4월 같은 날씨였다. 그런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고, 그핏헤드의 배들과 그 너머 바다 위에 이따금 드리워진 구름으로 만조에 달한 바닷물의 색깔이 쉴 새 없이 변하고 물결이 회열에 들쭉 작은 소리로 성벽에 부딪히면서 매혹적인 광경을 만들어냈다. 그들은 아름다운 날씨와 풍경을 돌아보고 경탄했으며, 패니는 그가 자연의 매혹을 충분히 느낄 수 있고 그 감수성을 아주 잘 표현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맨, 231-2)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상황이나 정태적인 집(house)의 풍경으로 인한 진부성을 자연의 영혼을 통해 타파하며, 이들은 신록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투영한다. 이 때 정원은 비로소 완성된 그림으로서 기능하며 부조화의 조화라는 픽처레스크에 함유된 목적의식을 띠게 된다. “아주 조화롭고 평화로운 (맨, 91)” 풍경으로 인식되는 자연은 패니의 근심을 달래고 황홀한 기쁨을 느끼도록 마음을 고양시켜 준다. 자연에 생각하고 느끼는 특정한 방법이 있다고 믿는 에드먼드는 어릴 때부터 정태적인 환경에 익숙한 패니에게 이러한 감수성의 회복이 중요함을 피설한다.

그는 창가로 다가와서 그녀와 함께 창밖을 내다보았다. 구름 한 점 없이 환히 빛나는 밤하늘에 아름다운 별들이 나타나 숲의 깊은 어둠과 대조를 이루었다. . . . “이런 밤에 바깥을 내다보면, 세상에 사악함이나 슬픔은 있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자연의 숭고함에 관심을 기울이고 이런 광경을 감상하면서 자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면, 분명 그런 것들은 더 적어질 거예요.” “아름다운 밤이야. 너처럼 느끼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가련하지. 적어도 젊은 시절에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을 키우지 못한 사람들 말이야. 그들은 많은 것

을 잃을 테니까.” (맨, 91-2)

본심과 상황적 맥락 안에서 새로운 장면을 응시함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새로운 이해는 한편 풍경식 정원이 도래한 18세기 말의 약 십년간을 전후로 팽배하던 그 어떤 기계적 관념성도 배제하고 다만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시도였다. 주체와 세계 사이에서 지각되는 새로운 정원은 늘 진정성을 함유하게 된다. 맨스필드 저택의 정원에서 탈중심화되는 패니는 이제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의 보다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소통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사회문화적인 맥락에서 사유된 정경으로서 정원의 현실적 풍경은 다양하고 친밀하게 일상화되어 독자에게도 스스럼없이 다가간다. 영국성에 내재한 자연스러움(naturalness)은 정원 공간에서 그러한 진정성의 표출을 통하여 위기 없는 이상적인 공존을 구현하는 듯 보인다.

돌풍 치는 날씨, 죽은 낙엽, 뒤틀린 나뭇가지를 고독으로써 찬미하는 매리앤과 달리 패니는 통합적인 정원의 모습을 통하여 사랑스러움을 느끼는 공감각적 감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자연적 감수성의 회복을 오스틴은 후기 첫 작품에서 드러내며, 초기 풍경식 정원에 풍부했던 의미적인 논의들 가운데 과도기를 지나며 유일하게 이어진 ‘자연성’으로 등장인물의 외연적 과정을 회귀시킨다.

일상적 삶의 장으로서의 정원 : ‘marriage’ - ‘vanity’ , ‘sameness’ - ‘distinction’

시골생활의 즐거움에 애착을 가지고 있던 오스틴은 패니와 도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와 사랑을 시골의 정원에서 재발견하도록 한다. 오스틴은 “시골에서 가사를 꾸려가는 즐거움 (맨, 141)”을 평가절하 한다든지 끊임없이 개조되는 오두막과 코티지에 대해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곳 (맨, 58)”을 선호한다는 크로퍼드 양의 자기중심적 발언을 통해 당시 시골의 방식을 이해하기 못하는 가벼운 그녀의 태도에 실망하는 에드먼드를 보여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자랑할

만한 치장으로만 정원을 인식하던 당시 영지의 귀족들이나 도시로부터 온 친지들의 경향을 비판하고 있다. “장원을 개조하는 문제 (맨, 59)”를 완고히 달성하고자 하는 시골의 주변 인물들은 음악, 연극, 사회적인 자랑의 대상으로 정원을 바라보는 런던으로부터의 방문객들과는 대조적으로 시골의 독자적인 정원 운영에 대하여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다. 정원의 개조 작업이 대화의 중심 주제로 종종 등장하는 오스틴의 텍스트에서 시대적으로 부풀려진 정원의 이상은 일상적 차원으로 내려지고 단지 시골의 생활양식에 함유된 중요한 목적의식 가운데 하나로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대한 동의와 찬사를 주변 인물들에게 종용하는 당시 사람들의 정원과의 긴밀한 관계성은 “당신 앞에 펼쳐진 전망이 당신에게 미소를 보내는 (맨, 83)” 것으로 정원에 의해 화답된다. 이를 “무감각을 드러내는 쾌활함(맨, 82)”으로 설명하는 친지들 사이의 대화에서 정원은 절제된 합목적성과 그 진취적 이상이 적극적으로 옹호된다.

마리아는 철문을 발견하고는 그곳을 통해서 파크로 들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곳에서 파크를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포괄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헨리 크로퍼드도 반마일쯤 떨어진 작은 언덕에서 저택을 조망하면 아주 좋을 거라고 말했다. 그러니 철문을 지나서 그 언덕으로 가야 한다. 그러나 그 문은 잠겨 있었다. 러시워스 씨는 열쇠를 가져왔으면 좋았을 거라며, 앞으로는 반드시 열쇠를 가지고 다니겠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고 마리아가 계속 그 소망을 표현했기에 결국 러시워스 씨는 열쇠를 가져 오겠노라고 선언하고 출발했다. (맨, 81-2)

조망과 감상을 위해 테라스-정원-산책로를 주변의 개발되지 않은 초지 및 신록에 연결시키던 당시 정원에 퍼진 유행은 무언가를 바라볼 기회를 만듦으로써 이상적인 엘리시움(Elysian)적⁵⁸⁾ 공상과 현실적인 문화적 이성의 융화의 여지를 남

58) 엘리시움은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에서 무훈이 뛰어난 자들이 사후에 가게 되는 세상 끝의 낙원으로 묘사된 곳이다. 메넬라오스(Menelaos)는 자신이 죽은 후 “그곳은 모든 것이 꿈에서처럼 평안하오. 눈도 겨울의 서리도 폭우도 없고 영혼을 달래주는 부드럽고 온화한 바닷바람만이, 서풍만이 언제나 불고 있소, ‘라고 한다. (역주) (민주식. “픽처레스크 정원에서의 폐허 예찬: 샌더슨 밀러의 인공폐허건축을 중심으로,” 『미학』, 80, 2014, p. 115.)

졌고, 그러한 적극적인 취지를 제인 오스틴은 그녀의 후기작에서 보다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공적인 미의식과 취향의 공유 이전에, 정원은 결혼, 레저 활동, 교육, 방문 등 가정적이고 사회적인 결속의 장이었다. 특히 여성을 이러한 업무에 전반적으로 귀속된 부속물로 여기던 당시 계급 사회적 면모 속에서 오스틴은 정원을 직접 운영하고 관리하던 그녀의 어머니의 영향과 사회관계의 부속물로서의 정원과 여성의 당시의 입장을 냉철한 시선으로 묘사하고 있다. 장미덤불에서 장미를 따거나 온실을 관리하거나 집을 둘러싼 언덕과 숲 등지에서 과실을 수확하는 여성 화자들은 그녀의 후기 소설에 보다 실천적인 모습으로 그려진다.

시골의 순수함, 도시의 타락 사이에서 오래된 감정의 간극을 조명하며 제인 오스틴은 심미적 이상향을 정원 풍경에 투영하는 대립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정원과 인간의 거리를 전기의 작품들에서보다 한층 가깝게 투사하였다. 상상과 자연, 이상과 시골, 연극과 장면, 거리와 언덕, 아름다움과 부드러움, 낮섬과 익숙함의 조우를 통한 서로 다른 취향의 공유와 나눔은 또 다른 일상적 경험의 공유의 장으로서 산책될 수 있는 정원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2절 태도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이성과 감성

직관을 망라하는 애정 ‘agreeable’ - ‘resemblance’

“상식적인 분별이나 상식적인 고려, 상식적인 신중함 (이, 99)” 과 낭만적인 세심한 배려 사이에서 다양한 직관들이 공존하는 18세기 후반 영국 사회를 풍자한 그녀의 텍스트에서 정원은 고즈넉한 자연스러움으로 자연 친화적인 감성을 그녀의 인물들에게 부여한다. 단순한 전원 속에 풍경을 모사해 놓은 당시의 정원들에서 제인 오스틴이 어린 시절 코티지에서 보았던 친근한 소재들이나 다른 정원들에 가도 쉽게 찾을 수 있는 고향과 유사한 풍경은 진부함보다는 애정을 환기시킨

다. 그러한 애정에 착안하여 제인 오스틴은 정치, 철학, 문학 등 당시 영국 사회 속에 나타난 전반적인 경향이었던 자연스러움의 추구를 직관을 통한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통합적인 시각에서 탐색한다. 낮설고 풍부한 새로운 시각, 견해, 가치, 도덕관이 상충되던 당시 사회 속에서 정원에 대한 작중 인물들의 중대한 애착은 “바튼 파크의 손님이 되기보다는 곧장 코티지로 가고 싶었다 (이, 36)” 는 대시우드 부인이나 “사랑했던 집에 마지막으로 작별인사를 하면서 엄청난 눈물을 쏟는 (이, 36)” 그 가족의 모습을 통해 코티지에 대한 오스틴의 애정만큼이나 강렬하게 드러난다.

그는 코티지를 자신의 집으로 여기고 사랑하면서 앨런햄보다 여기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파크에서 모두 모일 약속이 없는 경우에는 아침에 운동을 나왔다가 필경 코티지로 향하기 마련이었고 거기서 매리앤 곁에 머물며, 그녀의 발치에 자신의 애견 포인터를 두고 남은 하루를 보냈다. 특히 어느 날 저녁, 브랜든 대령이 마을을 떠난 지 일주일쯤 후, 그는 평상시보다 더 주변의 사물에 애정을 듬뿍 느끼는 듯 했다. 대시우드 부인이 우연히 봄에 코티지를 고치겠다는 계획을 언급하자 그는 흥분하면서, 자신이 애정을 느끼고 완벽하다고 여기는 이곳을 조금이라도 바꾸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이었다. (이, 85)

18세기 중반 이후 영국 사회에서는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하는 분위기 속에서, 고전 문학이나 신화, 성경 지식 등 교양이 필요한 양식 보다는, 직관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것이 더욱 선호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 즉 18세기 초반의 정원이 고대 문학에 나타난 이상향의 풍경을 재창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 18세기 중반 경에는 그 자체로 명료하고 즉각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곳이어야 한다는 성향 아래에서, 상징성을 배제한 순수한 자연 요소로 이상적인 풍경을 조원하고자 하였다.⁵⁹⁾ 제인 오스틴은 감각과 정원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녀의 인물들을 활발한 참여자로서 설정하고 갈등과 충동으로 인한 위기 상황들을 애정의 회복이라는 열쇠로 풀고자 하였다. 가령, 에드먼드의 아쉬운 점으로 매리앤이 꼽는 감성과 취향

59) 신혜승, “18세기 영국의 ” 랜드스케이프 “와 ” 사운드스케이프 “,” 『음악학』, (한국음악학학회, 2010), p. 44.

의 결여는 엘러너를 향한 그의 애정으로 대체되어, 의미화 되는 것이다.

그이의 눈에는 덕성과 지성을 바로 보여주는 그런 기백, 그런 열정이 부족해요 . . . 엘러너의 그림에 감탄하기는 하지만 그 가치를 이해하는 건 아니예요. 언니가 그림을 그릴 때 관심을 보이긴 하지만, 거기 대해서 아무 것도 모르는 게 분명해요. 감식가로서가 아니라 연인으로서 감탄 하는 거지요. 저는 그 둘이 결합되어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이, 26)

감성을 통한 설득 ‘persuade’ - ‘disengage’

제인 오스틴은 낭만주의에 대한 세심한 배려를 세속적인 실용성이나 현실성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고결한 마음으로써 암시한다. 매리앤은 현실적인 주변 인물들과의 파크의 정찬이나 사회적으로 사랑하기 위해 정원을 보수하는 그들의 뜻 없는 열정을 시들하게 묘사한다. 매리앤은 누가 올 때마다 집세가 싼 코티지보다 파크에서 정찬을 들기 위해 매번 집 밖으로 행차해야 하는 그들의 상황에 한탄한다. 이러한 현실 속 구속은 사회적 관계에서 의무화되는 관계들의 파크에서의 다양하고, 세밀한 묘사들을 통하여 표출되며, 그로부터 도피하고자 하는 매리앤의 낭만주의적 감성의 탈출구를 미리부터 봉쇄한다.

“젊은 사람의 낭만적인 고결함이 꺾여야만 할 때, 그 다음에는 상스럽고 위험할 뿐인 견해를 가지게 되는 법이 얼마나 많은지! 그렇지만 그녀는 강요된 변화에, 여러 불행한 상황 때문에 ..” (이, 68)

파크와 코티지, 코티지와 파크를 이동하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되는 감성의 주체와 정도의 문제는 거리감의 전환을 토대로 끊일 듯 끊어지지 않으며 활발하게 이어진다. 정원으로부터 조망되는 길을 통해 모든 작품에서 거의 항상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습으로 그려지는 오스틴의 프로타гон리스트들은 자신이 보고자 하는 것을 열렬히 찾고자 하는 의지와 이에 부합하는 ‘상’이 부재된 풍경 속에서 불안정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다. 다양한 주변 인물들의 관점을 매개로 펼쳐지는 정

원으로 향하는 길 위의 대화들은 때로는 새로운 기대와 만족감으로 집(home)에서의 휴식과 안정을 취하도록하기도 하고 반면 상대의 취향과 감성의 결여로 인해 작은 코티지 안에서 비참함의 향락에 빠지게도 한다.

에드워드는 돌아 와서 주변 경치에 대해 새로이 찬사를 늘어놓았다. 그는 마을로 걸어가면서 계곡의 여러 지대를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코티지보다 훨씬 높은 지대에 있는 마을에서는 전체적인 전망이 잘 보여서 무척 기뻐했다고 했다. 이것은 매리앤의 관심을 끄는 화제여서 그녀는 이런 풍경에 대한 자신의 찬사를 피력하면서 특히 그에게 인상적이었던 것들을 더 구체적으로 묻기 시작했다. (이, 112)

상투적인 개념을 거스른 자유롭고 낭만주의적인 정원관을 지닌 매리앤은 “날씨와 길 (맨 59)”에 대한 이야기만 하며 내숭을 떠는 것보다 편안하고 행복하며 솔직하게 자신의 감성을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엘리너는 이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직관과 주관적 해석 사이에서 타협이 필요하다는 점을 당시 사회 속 양식적 절충에 견주어 설명한다.

“그이가 쿠퍼나 스코트⁶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았지. 당연히 그들이 쓴 작품의 아름다움을 높이 평가한다는 것도 확인했고, 포프⁶¹⁾를 쓸데없이 찬미하지 않는다는 확신도 얻었지. . . . 다음에 만나면 회화적 미에 대한 그의 생각을 설명할 테고 그 다음에는 물어볼게 아무것도 없을 거야. “ (이, 58)

제인 오스틴의 도덕적 민감성은 고전과 낭만의 양측을, 또한 새로운 절충 모드를 통합적으로 배려함으로써 발휘된다. 두 프로타гон리스트의 낭만적이거나 이성적인 태도를 통해 비현실적이며 공상적인 측면과 대조적으로 온건하며 이성적인 성향을 균형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그 이면에서 제인 오스틴은 당시 정원

60) 1771-1882, 스코틀랜드의 소설가로 낭만적인 역사소설로 유명하나 오스틴 당시에는 낭만 풍의 시인으로 더 유명했다. (역주)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김현숙 (역), 『이성과 감성』(서울: 부북스, 2007), pp. 58.)

61) 1688-1744, 18세기 신고전주의를 대표하는 최고의 시인이나 이성과 합리를 중시하므로 이후 낭만주의자들의 비판의 대상이 됨. (역주)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김현숙 (역), 『이성과 감성』(서울: 부북스, 2007), pp. 58.)

양식의 진정성을 끊임없이 반문하고 실험하고자 하였다.

취향 또는 기호의 정원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 속에서 사회문화적인 취향의 장으로서 공유되는 정원은 그 양식적 유사성 위에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의 자유로운 상상과 공상이 투영되는 기호적 정원이다.

이층에 아주 예쁜 거실이 있는데, 크기도 항상 쓰기 좋을 만큼 적당해. 현대식 가구를 들이면 진짜로 멋질 거야. 모서리 방이라서 양쪽으로 창문이 있어. 한 쪽 창문에서는 집 뒤의 잔디 보울링장 너머로 아름답게 우거진 경사진 숲을 볼 수 있고 다른 쪽 창문으로는 교회와 마을의 전경이 보이면서 그 너머로 우리가 그렇게 자주 찬사를 보냈던 가파른 언덕이 보였어. 방 자체가 멋진 것은 아니었어 . . . 그렇지만 새로 치장을 하면... (이, 82)

그녀들의 정원에 대한 기호 및 취향은 다양한 정원들을 돌아보며 고정되지 않은 채 자주 변동되며, 새로운 견해가 적극적으로 표출되고 상호 간에 교류될 때에 깊은 만족감을 느끼도록 하는 자극제가 된다. 최신 유행에 대한 안목은 도시화된 거리로의 외출을 통해 빈번히 자극되는 대화 소재 가운데 하나로 엑시터 엑스체인지⁶²⁾에서 엘리너는 코티지에 대한 이러한 비교 의식에 부딪힌다.

그리고 보니 너희는 작은 코티지에 편안하게 자리를 잡았고 모자라는 것이 없구나! 에드워드가 그곳을 정말 멋지게 설명해 주더구나. 처남 말로는 그런 종류의 집 중에서 가장 완벽하며, 무엇보다 너희 식구 모두가 좋아한다더구나. 분명히 말하지만,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아주 흡족하게 여겼단다. (이, 252)

영국의 풍경식 정원들은 런던에서 온 사람들에게 의해 시골 또는 안락함으로써 종종 귀결되며, 주인공들에 경제적 부귀, 명예, 정치에의 개입과 같은 사회적 의식을 암암리에 강요하기도 한다. “그런 종류의 집에 대해 철철 넘치게 찬사를

62) 런던에 19세기 초까지 있던 건물로 상점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그 속에 있던 동물원으로 유명했음 (역주)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김현숙 (역), 『이성과 감성』 (서울: 부북스, 2007), pp. 284.)

쏟아 붓는 (이, 284)” 도시의 친지들에게 전원 속 정원들은 단지 새로운 도시적 취향 가운데 하나인 도구로써 받아들여진다.

데번셔에 있는, 그 워더라, 돌리시 근처의 작은 코티지에 거주하고 있다면서요. 나는 말입니다, 작은 코티지를 정말 좋아합니다. 그곳에는 항상 안락함과 우아함이 넘쳐나지요. 맹세코, 나는 여윌 돈이 있으면 런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땅을 조금 사서, 손수 집을 짓고, 기분 내키면 마차를 타고 거기로 내려가 주변에 친구들을 모아 재미있게 지낼 겁니다. 나는 집을 지을 생각이 있는 사람 누구에게나 전부 코티지를 지으라고 충고하지요. 얼마 전에 친구인 코틀랜드 경이 일부러 내 충고를 들으러 와서 보너미(1739-1808, 당대의 유명한 건축가-역주)의 설계도를 셋이나 보여 주었지요. 그 중에서 제일 나은 것을 결정해 달라는 겁니다. 바로 그걸 전부 불 속에 집어던지면서 말했지요. ‘이보게 코틀랜드, 이 중의 어느 것도 하지 말고 단연코 코티지를 짓게나.’ (이, 284)

강한 기호로써 코티지의 정원은 낯선 주변 인물들에 의해 종종 화두에 오르는 주제이다. “잘 곳이 마땅찮고 공간이 부족하다고 여기는 (이, 285)” 사람들과 대조적으로 이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정리를 할지 알기만 한다면 코티지에서도 넓은 저택과 마찬가지로 편안함을 누릴 수 있다며, 지속적으로 애착을 가지고 손수 보수하고 돌보는 “집(home)같은 코티지 (293)”로서의 정원에 대한 애정을 유감 없이 드러낸다. 아늑하고 익숙한 코티지에 대한 제인 오스틴의 이러한 정론은 불안한 과도기에 영국성의 회복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 맨스필드 파크

취향에 대한 태도가 공유되는 정원

패니는 포츠머스를 방문하며 그곳에는 진정한 애정도 섬세한 감정도, 행동의 조화나 통일도 존재하지 않으며, 인간의 본능이 무절제하게 활개를 치고 있을 뿐이라는 점을 발견한다. 여기서 충격을 받은 패니는, 질서와 예의범절, 교양 있고

조화된 생활방식을 상징하는 맨스필드 파크의 집을 떠올린다.⁶³⁾ 제인 오스틴은 그녀의 후기작에서는 고정된 공간에서의 개인의 시간적 흐름에 집중하며, 자연과 시간의 멈추지 않는 흐름에 따라 영국의 과거와 현재의 상처를 미래에는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비전⁶⁴⁾을 포우프, 위즈워스 등 18세기 영국 시인들과 함께 그녀의 작품에서 공유하고 있다. 패니는 이를 혼합된 풍경 속에서 매개적으로 대신 보아 줄 인물로 당시의 문화적으로 변질된 취향보다 경치 자체에 대한 순수한 영국적 취향을 긍정적으로 암시한다. 여행길에 오르면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화는 풍경에 대한 찬사와 새로운 계획에 대한 추측으로 가득하게 된다.

그렇게 멀리 나와 본 적이 없었던 패니는 쾌적한 시골길을 따라가면서 새로운 경치를 보고 예쁜 것들에 감탄하며 무척 즐거웠다. 옆에 앉은 크로퍼드 양은 전혀 달랐다. 그녀는 패니처럼 섬세한 취향과 마음,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자연을 보았지만 관찰하지 않았고, 오로지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관심을 두었으며, 가볍고 발랄한 것에만 재기를 발휘했다 (맨, 73)

그녀는 풍경식 정원에 혼재하는 다양한 부조화적 요소들 가운데 그나마 순수한 요소들을 선별하고자 하는데, 이러한 시도는 정원이나 풍경에 대한 단지 상투적일 뿐인 취향의 모사적 드러냄이나 진의가 없는 경탄에 대한 경계 의식으로 이어진다.

“눈과 귀를 긴장시키면서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을 듣고, 관심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경탄하고 말이지요. 그건 세상에서 가장 지루한 일이거든요.” (맨, 79)

이 때 정원은 서로 다른 인식으로 인한 취향의 분화에 있어 다양한 비판의식을 수용하고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를 수용하는 장이 된다.

“당신이 콤프턴을 보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가 말했다. “아주 완벽하게 고쳤어요! 어제 소더턴 코트에 돌아와 보니 꼭 감옥 같더군요. 음산하고 낡은

63) 서영채. “절대 공간으로서의 풍경: 두 번째 풍경과 존재론적 순간,” 『한국현대문학연구』, 41, 2000, p. 576.

64) 박미경. “영시의 전통과 문학사의 재구성: 포우프, 그레이, 위즈워스의 자연,” 『세계문학비교연구』, 48, 2014, p. 137.

감옥 말이죠.” “아니, 말도 안 돼요.” 노리스 부인이 큰 소리로 말했다. “감옥이라니! 소더턴 코트는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고택이에요,” “개조할 필요가 있는 곳이에요, 부인. 그곳을 손보아야겠는데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맨, 56)

확신과 진정성이 저항을 통하여 구축되는 정원

맨스필드 파크를 방문하는 낯선 방문객들은 패니가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바랐던 공원을 세속적인 사회적 장으로 일순 뒤바꾼다. 이들의 연극 상연을 위한 무대로서 펼쳐지는 정원에서 배우들은 도시와 시골을 불문하고 사람과 공간의 낯섦에 대한 두려움을 뒤뜰어진 매너로써 풍자한다.

젊은이들은 모두 바깥의 공기와 자유를 원하는 듯이 잔디밭과 관목 숲으로 이어지는 층계에 모여서 밖으로 나갔다. 저택의 끝 부분을 확장할 수 있을지를 살펴보러 크로퍼드 씨가 먼저 앞으로 나갔고 . . . 패니는 테라스에 관해서 열심히 의논하는 그들을 보고는 앞으로 계속 걸어갔다. . . . 예의 바른 태도를 취하는 것이 의무라고 배웠으므로 달아날 수는 없었지만, 더 고귀한 자기 억제심이 나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올바른 원칙은 배우지 못했으므로, 이런 상황에서 비참한 기분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맨, 77)

예절, 행위, 매너로 표명되던 17-18세기의 영국 정원이 빠져 있던 매너리즘은 이들의 연극을 통하여 비판되어진다. 패니는 초반에는 본인이 어린 시절부터 익숙해진 그러한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수동적으로 연극에 참여하게 되지만, 연극 끝에 이르러 비로소 저항심과 자기 진정성에 대한 확신을 달성하게 된다.

3절 감정에 대한 인식과 의의

1) 이성과 감정

행복과 위안의 정원

결혼, 수입, 목사관, 목축지 등 삶과 밀접히 연관된 당시 정원들은 주인공들의 삶의 만족감에 있어 필연적인 역할을 했음에 분명하다. “멋진 코티지의 설계도를 여러 장 그리며 (이, 429)” 또는 “벽지를 선택하고 관목숲길을 계획하고 발코니 앞의 가로수 길을 요리조리 궁리해서 (이, 427)” 만들며, 성취감과 행복감을 느끼는 『이성과 감성』의 주인공들에게 있어서 정원은 대화거리, 관심거리, 일거리로써 삶의 다방면에 걸쳐 다양한 구실이 된다. 매일 마주하는 일상적 풍경 속에서 이들은 정원의 크고 작은 감상적, 실천적 요소들에서 작은 행복과 위안을 발견하고는 한다.

고통의 정원

한편,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에서 주인공들의 고통은 정원에서 그 어떤 위로도 얻지 못하고 그녀의 프로타гон리스트들을 뚜렷한 목적이나 직관 없이 배회하도록 하기도 한다.

멋진 석양 길의 산책을 나가서는, 관목 숲의 마른 자갈길만 다닌 게 아니라 정원을 다 걸어 다녔고, 특히 멀리 있어서 다른 곳보다 더욱 거칠며 나무도 가장 오래 되고 잔디도 가장 길고 가장 젖어 있는 곳을 골라 다녔으며, 더불어 젖은 구두와 양말을 신은 채 앉아 있는 더 큰 부주의를 저지르는 바람에 급성 감기에 걸렸다. (이, 346)

이해의 정원

배반과 의혹이나 남을 비판하고 싶은 마음은 정원에서 자신을 새로 조망함으로써 회유되기도 한다. 교양이 부족하거나 지나치게 관습에 얽매인 보수적 인물들은 정원을 바라봄으로써 적극적으로 타인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기 자신의 순수

성을 재발견한다. 이러한 고정적이던 감정의 폭의 변화는 넓게 확장된 정원의 스케일과 흐르는 듯 유려한 경관의 요소들과 지형 내 들고 남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에 대한 더 나은 통찰력을 얻음으로써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나게 된다. 이는 타인의 감정에 대한 배려로 이어진다.

코티지에서 앨런험으로 걸어가면서 자신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모든 사람에 대해 다정한 마음이 되어서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고 행복했던지도 기억납니다! . . . 제가 그렇게 갑자기 데번셔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그녀가 드러낸 슬픔, 절망, 깊은 회한... 저는 그것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이, 367)

2) 맨스필드 파크

변화의 정원

맨스필드 저택의 넓은 영지는 코티지, 정형식 에비뉴, 전원적 풍경을 두루 갖춘 이상적인 정원의 규모를 자랑했던 만큼 그 다양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변화들도 도모한다. 그러한 전경적 다양성에 익숙한 패니는 마룻바닥, 단단한 마호가니 가구, 금박과 조각 등 50년 전의 취향으로 화려하게 꾸며진 러시워스 씨의 응접실에 “여기에는 경외심을 일으킬 장엄한 것이 없다 (맨, 74)”는 이유로 환멸을 느낀다. 갑작스레 나빠진 날씨로 인해 단조로운 목사관에 갇힌 패니는 파크를 그리워한다.

연이어 비와 눈이 내리는 날씨에 집 안에 갇혀서 할 일도 없고 변화도 기대할 수 없었던 목사관의 세 사람은 비참한 나날을 보냈다. (이, 181)

수평으로 열린 공간, 다양하고 곡선으로 얹힌 산책로들, 시시각각 나무로 차폐되며 불연속적으로 등장하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는 점경물들은 부드럽게 흐르는 풍경의 선 안에서 단조로운 저택 건물과 전면의 정형식 정원이 주는 답답함을 해소해 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 내면적인 자극을 불러일으킨다.

나는 움직여야겠어요. 난 쉬고 있으면 지치거든요. 가서 철문을 통해 경치를 보아야겠어요. . . . 그들은 길을 따라서 끝까지 갔다가 몇 분 내로 돌아올 것이다. (맨, 80)

제인 오스틴은 이러한 환기에 집중하여 자연이 주는 상쾌한 변화로 인해 등장 인물들이 느끼는 미적 쾌나 행복한 기분 이면의 인간 본성에 대한 추이를 기록하고자 하였다.

아름다움과 숭고가 융화되는 정원

만들어진 풍경임에도 스케일적 경외감으로 인한 숭고(sublime)의 감정을 환기시키는 자연의 과도한 힘은 인물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준다. 심리적 노곤함, 탈중심화된 눈, 진부해진 감성에도 불구하고 제인 오스틴의 프로타гон리스트는 자연을 통하여 혼란 속의 조화를 찾고자 한다.

“이 아름다운 숲을 걸으면서 피곤해지다니 놀라워요. 괜찮으면 다음에 의자가 보이거든 잠시 앉고 싶어요.” . . . 몇 걸음 더 가서 그 길 꽃밭에 45분간 앉아 있었어. 패니가 장미를 따는 동안에, 아주 쾌적했지만 무척 뜨거웠어. 정자 밑에는 그들이 졌지만, 집에 돌아오는 길이 끔찍하게 여겨질 정도였지 . . . 그 래, 가엾게도 무척 더웠을 거야. 그런데 장미가 활짝 피어서 더 기다릴 수 없었어. (맨, 67-8) 내리막 끝에 이르렀고, 한적한 그늘진 곳에 있는 벤치에 그들 모두 앉았다. “일찍 말하지 그랬어? 승마를 제외하면 어떤 일에도 패니는 곧 지치거든요.” (맨, 79-0)

고분고분하고 자연스러운 감정이 정원에 대한 심미적 인식을 통해 고수되는 한편, 자연의 힘에 불가항력적으로 놓이게 됨으로써 감정의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되는 화자들은 그림 같으나, 결코 고정 될 수 없는 자연의 본성을 깨닫는다. 또한 이는 곧 자신의 본성임을 알게 된다. 세상의 축소판으로 다양함 속의 질서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는 숲⁶⁵⁾에서 사회적 관계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

치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조화시키는 일은 그녀들에게 물린 중대한 과제가 된다.

4절 인물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이성과 감성

이상적인 가정 정원

제인 오스틴의 모든 작품에 등장하는 정원은 결혼과 새로운 가정을 꾸리는 데에 이상적인 도구로서 묘사된다는 점에는 유사하나, 그녀의 전기 작품에서는 온실에서 일하거나 말을 돌보거나 정원에서 뛰어 노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종종 등장하여 가정 정원으로서 기능하는 코티지 및 바튼 파크가 일상적인 풍경으로써 그려지고 있다.

여기 있는 그의 재산, 영지, 저택, 모든 게 아주 상급이고 훌륭한 상태야! 게다가 숲도! 나는 도싯셔의 어디에서도 지금 텔러포드 행어(급경사지의 숲-역주)에 있는 그런 목재는 본 적이 없어! (이, 428)

호의와 편의로 치장한 신사적 행동 이면에 진정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서 방문하게 되는 정원은 제인 오스틴의 전작에서 이상적인 가정 정원으로서 투영되었다. 작가가 의식을 하고 있었던 못하고 있었던 간에 제인 오스틴 소설 속의 제한된 ‘가정’이라는 공간은 18, 19세기의 영국 제국주의 이데올로기에 암암리에 동조를 하고 또 영향을 받고 있었다.⁶⁵⁾ 가정적인 이상향에 큰 영향을 끼친 당시 영국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 제인 오스틴은 전작에서는 적극적인 이성과 감성의 조화를, 후작에서는 수동적인 묘사를 부각시켜 준다.

65) 박미경. “영시의 전통과 문학사의 재구성: 포우프, 그레이, 워즈워스의 자연,” 『세계문학비교연구』, 48, 2014, p. 134.

66) 이해지.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1997, p. 56.

낮선 이들을 포섭하는 방문의 정원

존경은 대시우드 자매의 꾸밈없는 모습에 호감을 느껴 이 새로운 가족을 바튼의 코티지에 오게끔 주선하고 매일 저녁 만찬에 이들을 바튼 파크로 초대한다. 윌러비는 그가 서머싯셔의 영지에서 손수 기른 말이 여성이 타기에 적합하다고 매리앤에게 선물하고자 하나, 하인이 탈 말을 사야하고 마구간을 지어야 한다는 어머니의 반대에 부딪히기도 한다. 여성 화자들에 대한 배려는 저택 앞의 밤나무, 덤불을 돌아 숲으로 길게 이어지는 산책로, 말 등 코티지의 감성적 요소와 맞물려 신사적인 호의로 이어진다.

코티지에 여성가족만 살게 하여 수렵가의 입장에서조차 만족스러웠다. 수렵가란 자기와 같은 수렵가인 남성만을 존중하긴 하지만 그들을 자신의 영지 안에 거주하도록 허용하여 취미를 복돋아 줄 마음은 없기 때문이다. (이, 43)

이러한 따뜻하고 주변 인물들을 배려하여 초대하는 두 자매 주변 인물들은 친구나 가족이 아닐 지라도 단지 낯선 이(acquaintance)를 넘은 신사적(gentleman)인 인물이 된다.

그 영지는 매우 아름다운 곳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특히 존 경은 칭찬에 열을 올렸는데, 그는 지난 십년 간 여름마다 적어도 두 번씩 그 곳을 방문하는 모임을 주도했으므로 꽤 적절한 감정가로 여겨질 수 있었다. 거기에는 거대한 호수가 있어서 그 위에서 돛단배를 타면 멋진 아침 놀이가 될 것이었다. 찬 음식을 가져가고 무개마차만 쓰기로 했고 모든 것이 평상시처럼 완벽하게 진행되어 즐거운 모임이 될 것이었다. (이, 74)

제인 오스틴의 소설에 묘사되는 파크에서의 식사나 연극, 크리켓 등의 문화, 레저를 망라하는 다양한 일상의 모습들은 새로운 인물들에 대한 비중과 시각의 전환을 도모한다. 또한 정원의 개량과 확장 의지는 대상지 자체 혹은 특정 방문객들이 호감을 끌지 못하는 결격사유를 보충한다. “분별이 부족하거나 우아함이

부족하거나, 활기가 부족하거나 기질이 부족한 (이, 265)” 인물들은 공유지 율타리 치기, 말 길들이기, 땅의 주식이나 혼사 등 정원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의견을 통섭한다. 제인 오스틴은 정원에서의 다양한 경험과 대화의 공유를 통해서 낯선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활기차고 유쾌한 관계를 이어가는 작중 인물들의 친구, 가족, 아는 사람의 사이를 정원을 매개로 흐린다.

2) 맨스필드 파크

사회적 관계의 장으로서의 정원

맨스필드 저택의 인물들은 표면적으로는 크게 왕실의 권위를 상징하는 왕(king)으로 풍자되는 소유주나 도시로부터 온 세속적인 먼 친척들, 또는 관습화된 저택의 안주인 및 사촌들로써 한층 비판적인 구성을 보인다.

자기처럼 우아하게 보이는 하프를 연주하는 예쁘고 발랄한 아가씨의 모습은 어떤 남자의 마음이라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녹음이 우거진 관목 숲으로 둘러싸인 잔디밭을 향해 나 있는 창문, 그 창문 앞에 서 있는 하프, 한여름의 공기마저도 부드럽고 다정다감한 감정을 이끌어냈다. (맨, 62)

이들 사이에 얹힌 패니는 소설의 후반으로 갈수록 상충되는 가치 구도 속에서 본인의 목소리를 찾아가게 된다. 아이러니 하게도, 그녀의 어휘에는 동료, 천사, 소작농의 부인 등 낭만 어린 유희가 남아 있다.

5절 자아에 대한 인식과 의미

1) 이성과 감성

애착의 정원

정원 너머 풍경까지 한 눈에 들어오는 창가에 홀로 앉아 상념에 잠긴 여성들은 오스틴의 소설에 늘 등장하곤 하는데, 이 때 그녀들의 시선 너머로 투사되는 것은 이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과거와 미래의 문제와 기억, 상념, 상상 등이다. 미래의 어느 시점에 대한 특별한 기대와 버릴 수 없는 애정을 정원이라는 그릇에 담은 이들은 산책이나 조망을 통해 유유히 자연 속에 흘러가는 장면들을 따라 자유로이 상념에 잠길 수 있었다. 마음이 침착해지는 정원에서 이러한 진지한 성찰은 만족과 즐거움, 또는 최소한의 안정을 준다.

에드워드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아침 엘리너는 미술 책상에 앉아 이런 상념에 빠져 있다가 누군가 오는 소리에 정신을 차렸다. . . . 집 앞의 초록색 마당의 입구에 나 있는 작은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 창으로 시선을 향했을 때 여러 사람이 현관으로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이, 122)

직관(sense)과 정신(spirit)이 합일되는 정원

침울한 기분이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들어온 자연의 정신(spirit)은 일시적인 해방감을 주며, 그녀들의 불확실한 태도나 염려를 돌아보도록 한다. 스스로에게 던지는 일련의 물음을 통해 오스틴의 화자들은 상대방의 이성과 자신의 감성을 조화시킴으로써, 새롭고 보다 성숙된 직관(sense)을 회복한다. 이러한 치유적인 정원의 능력은 급변하는 날씨나 울창한 숲의 어두움과 같은 요인들로 인하여 감정의 소용돌이를 지나 한층 성숙된 자아를 발달시키기도 한다.

사실 그들이 바튼에 도달했을 때, 그리고 들판 하나하나 나무 하나하나가 어떤 특별한, 어떤 고통스런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풍경 속으로 들어오게 되자 매리엔은 조용해지고 생각에 잠겼으며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린 채 골돌히 창 밖을 보고 앉아 있었다. (이, 388)

가장 도덕적인 인물상으로 묘사되는 “성실하며 섬세하고 풍부한 정신의 소유

자 (이 159)” 는 하찮은 일만 쫓아다니며 지내는 듯 보이는 관습화된 인물들에 비해 훨씬 소박하고 진정성 있는 직관을 고수한 이들이다. 상상력이나 정신, 마음이 열정적인 이들은 직관의 회복을 통해 소망과 현실의 부조화에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너 자신의 순결함과 선의를 의식함으로써 너의 정신을 얼마나 고결하게 지탱하는지 보여줘서, 그들이 악의적인 승리를 누리지 못하게 하자꾸나. 온당하고 장한 자존심이 그런 악의를 물리친단다. (이, 214)

2) 맨스필드 파크

저항을 통해 결심을 도모하는 정원

패니의 성장 소설로 쓰인 오스틴의 첫 번째 후기 작품인 맨스필드 파크에는 진부한 풍경에 다양한 사건을 배치하여 의도적인 무대 장치로서 정원을 이용하는 인물들의 적극적인 취지가 표현된다.

“참을 수 없이 무덥군요.” 테라스를 한 바퀴 돌고 나서 숲으로 이어지는 중간 문에 다시 왔을 때 크로퍼드 양이 말했다. “여기 멋진 숲이 있네요. 문이 잠겨 있지 않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문은 잠겨 있지 않았기에 그들은 작열하는 햇빛을 뒤로 하고 숲에 들어섰다. 대부분 낙엽송과 월계수들이었고 베어진 나무들도 많이 있었지만 어둡고 그들이 저서 상쾌했다. (맨, 78)

패니를 통해서 틀에 박힌 관습 속 해방과 풍경에의 순응을 이중적으로 드러내며 야생적이고 본연의 거친 인간 내면의 본성이 전환되는 장면들에 대한 인식을 매개로 아름다움과 개성이 키워지는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는 마침내 자연에 대한 새로운 감수성을 회복하게 된다. 전작에는 부재한 이러한 시간에 따른 성장은 정착되어가는 풍경 속 정원들에서 본연의 개성과 이상적인 조영 의도를 재발견하고자 한 제인 오스틴의 기억 속 풍경과 닮아 있다.

여기 올 때마다 나무들이 아름답게 자란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3년 전에는
그저 거친 산울타리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또 3년이 지나면 전에 어떠했는지를
잊게 되겠지요. 시간의 작용과 마음의 변화는 정말로 놀라워요. 마음의 기능 가
운데 가장 경이로운 것은 기억이라고 생각해요. 오래 지속되고 쉽게 떠오르는
기억도 있지만, 혼란스럽고 희미한 기억들도 있으니까요. (맨, 138)

제4장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정원의 의미 변화

1절 ‘장소(place)’에 대한 의미 변화

‘가변적 장소’ - ‘고정된 공간’

『이성과 감성』에서는 다양한 정원 그대로의 모습이 과정으로서 드러나게 된다. 가로수, 기념수, 벽 등 통제된 요소들을 탈피하고자 풍경이 되는 정원은 다층적으로 조영되는 뜰로서 기능하게 된다. 두터운 숲 층, 단 없는 개울, 잡초가 자라는 초지 등이 기존의 사슴 장원과 건물의 단조로운 구성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정원 공간은 가변적이고 일상적인 삶의 활동이 영유되는 신록의 오픈스페이스가 되었다. 오스틴이 그리는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성향은 고전과 낭만의 요소가 당대의 사회 속에 간극을 만든 양상과 유사하게도 당시 17-18세기 정원들이 감당해야 했을 숙명적인 부조화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이상과 현실의 불일치 속에서 느끼는 혼돈을 다양한 형태의 정원들을 통해 집의 느낌(sense of home)과 위안, 소속감,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통합적(whole) 감각을 통해 절충하고자 한 오스틴의 시도는 풍경초기에 남은 고전풍 요소에 대한 여운과 브라운 이후의 풍경 그 자체로서의 정원이 시사하는 상징적인 낭만성에 대한 견지를 보여준다. 테라스, 사원, 탑, 언덕, 캐널, 조각상 등이 지형적 매트리스 위에 다양하게 널린 바튼 파크의 정원은 코티지의 낭만과 제한적 기능을 확장시키며 이들 간에 미묘한 질서를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연속적 잠재성을 작중 인물들의 잦은 이동과 식견의 표출을 통하여 드러낸 제인 오스틴은 당시 변화의 과도기적 단계 속에 있던 과정에 열린 정원들을 투사한다.

한편, 풍경식 양식이 발달하던 후반기에 제인 오스틴은 조영된 결과로서 맨스필드 저택을 그림의 중심부에 두고 조작된 정원 이면에 감추어진 그로테스크함을 드러낸다. ‘그저 나무밖에 없다’거나 ‘볼 게 없다’며, 한층 시들어진 새로운

조화에 대한 기대와 찬사는 풍경식 정태성 뒤에 숨겨진 당시 영국 사회의 사라지지 않는 혼돈의 잔재와도 같이 갑작스러운 예고를 전조하는 것이었다. 이는 ‘코티지’와 관련된 어휘가 현저하게 줄어든 그녀의 작품 경향이 보여주듯 기존의 친숙하고 일상적인 낭만성과 픽처레스크라는 새로운 상징적 낭만성의 도래 사이에 발생하는 간극의 시점을 이성과 감성의 두 인물의 비교를 통하여 조명한다. 신록으로 덮인 지루함에 다시 기존의 정형적 요소가 유입되던 시기를 반영하듯 맨스필드 저택 전면부의 형식적이고 강한 축선과 수벽 등은 현관에 외딴 시골을 갖다 놓으려던 전작의 의도와는 달리 박물관처럼 또는 무대로써 펼쳐지는 수동적인 파노라마를 형성한다. 자연 본연의 거칠음은 그러나 여전히 이러한 형식적 아름다움과 균제미를 조화시키며, 작중 인물들로 하여금 움직이는 시각성이나 적극적인 경관 짜임으로 정원에 배치되는 사건들을 뜻밖에도 조망하도록 한다.

2절 ‘태도(manner)’에 대한 의미 변화

‘내면화된 정원’ - ‘외연의 정원’

일상화되는 『이성과 감성』 속 정원에 비하여 관습화된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맨스필드 정원은 권위와 정태성을 부각시킨다. 제인 오스틴은 그녀가 살았던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엽 당시 영국 사회에서의 기존가치의 붕괴와 부도덕한 면들을 근심어린 눈으로 바라보았고,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작품 속에서 한 소녀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통해, 무엇이 ‘예의바르고 타당’하며 무엇이 ‘도덕적’인가를 중점적으로 말하려 한 것 같다.⁶⁷⁾ 형식적으로 건립되어 수동적으로 외부로 열리게 되는 대저택의 정원들은 사회적 관습과 당대의 굳어진 가치관들 속으로

67) 이해지.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1997, p. 74.

불가항력적으로 배치되는 페니를 통해 고정된 시점으로 설정된다. 당시 실용주의가 팽배하던 정원에 대한 도시민들의 관습적 태도를 비판하며, 고정되는 수동성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오스틴은 새 영국성을 급히 포장하듯 대량생산되는 조각, 풍경과 자연에 대한 가치관의 단순한 모사 등 산업화된 정원을 투사한다. 온실, 나무로 온통 치장한 전면부, 네모난 화단과 같은 비 주관적으로 재유입되던 정형적 요소들은 의무화되는 정원의 수동성을 보여준다.

반면 『이성과 감성』 속 정원들은 확장되는 과정으로서의 찬사가 남아 있으며, 흐르는 정원에서의 기억 및 경험들의 의미들이 하나씩 재발견되는 역가적 반응의 장소이다. 내면적으로 흐르는 정원의 자연성은 인간과 정원에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를 무마시킨다. 그녀는 이를 자연과 투쟁하던 인간 본연의 모습을 숭고로써 표현하기도 하고 심미성과 직관이 결부된 새로운 감수성의 회복을 작중 인물들에 도모하기도 한다. 완만한 기복으로 부드러움이 불규칙함을 아우르는 전기의 정원들에 비해 거칠음과 부조화가 부각되는 후기 정원들은 새로운 영국성, 또는 풍경 양식이 굳어져 가던 18-19세기의 전환기에 의식적으로 분화되어가던 주체 의식을 대변한다.

3절 ‘감정(emotion)’에 대한 의미 변화

‘감정의 발화’ - ‘감정의 성숙’

『이성과 감성』의 정원들에서 정원을 유토피아적 공간으로 상투하는 낭만적 인물인 매리앤과 현실로써 간주하는 이성적이고 의식적인 엘리너는 거친 해안 절벽, 뒤틀린 나무, 산악 풍경 등을 통하여 각기 다른 방식으로 좌절, 희망, 회복 등 공통적인 감정 분모를 표현한다. 정원 공간은 이러한 다른 동인에 대한 상호배려와 존중이 필요한 매개적 장소이다.

한편, 맨스필드 정원에서 페니는 관습적이고 고정적인 현실을 타파할 의지를 재발견하게 되고 그에 대한 확신을 표명하는 인물이다. 개인적인 주관과 고집이 시간적인 변화에 맞추어 발달하는 페니의 정원은 제한된 영역 안에서의 감정의 성숙을 도모하는 공간이다.

4절 ‘인물(character)’에 대한 의미 변화

‘개인적 경관’ - ‘공동의 풍경’

정원의 자연적인 본성과 인간 본연의 상충 구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오스틴의 전기 작품 속 정원들은 두 자매의 서로 다른 성향만큼 다양하게 등장하는 인물들만큼이나 크고 작은 양식들을 통해 표명된다. 개인의 직관과 주관을 바탕으로 재해석되는 이러한 공간들은 제각기 풍경화처럼 응축되는 자연의 면모를 정원에 끌어들인다. 『이성과 감성』에서 정원을 이용하는 인물들에 비해 정원 자체의 속성에 다양한 어휘를 통하여 더 주의를 기울인 오스틴은 가능성과 새로운 연결에 열린 정원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던 그녀의 어린 시절을 투사한 환경의 조성을 통하여, 유쾌하고 즐거운 변화로 이어지는 조영자들의 정원 개조에 대한 의사나 새로운 조화로 귀결되는 두 프로타гон리스트들의 과정 및 장면으로써 텍스트의 열린 결말을 통하여 비교적 유희적으로 그려 내었다.

공동의 풍경으로서 사유되어야 할 의무성을 띤 그녀의 후기작의 정원은, 대조적으로 풍정보다는 인간에 더 초점을 맞춘다. 오스틴의 전기와 후기작에 있어 분명히 드러나는 그녀의 시공간적 스케일의 변화는 인간과 자연을 망라하는 경관의 짜임으로서 재구성되는 초기 풍경식 정원들의 역동성의 직접적인 상투와 자연에 양식을 회귀시키는 의지로써 산업화를 표방하던 후기 정원들의 주요한 의사 변화를 드러낸다. 아이러니하게도 천사 같아야 할 아이들, 해방되어야 할 귀부인, 선

장이나 왕 등으로 훨씬 풍부한 은유를 통하여 묘사되는 맨스필드 저택의 인물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을 연극으로써 이해하며, 주연 배우들으로써 자연에 권위를 호사한다.

5절 ‘자아(self)’ 에 대한 의미 변화

‘내면적 통일’ - ‘외재적 적응’

사회문화적 상투물로서 정원 안의 독립적 요소들은 18세기 후반에 19세기보다 비교적 편안한 방식대로 조영되었던 듯하다. 제인 오스틴이 실제로 거주하던 어린 시절 코티지 정원에 있던 밤나무 한 그루, 뛰어노는 가축 몇 마리, 한 면만 남은 사원 등의 요소들은 부드럽게 흐르는 자연을 배경으로 주인공들에 환경적인 낯설음에의 친숙한 공감대를 형성한다. 독립적인 점경물 또는 기대하는 소식 및 인물들에 대한 주관적인 투영 의지를 표현하는 매리앤과 외부로 표현하지 않지만 내면적 통일을 정원을 조망함으로써 조화롭게 이루려는 엘러너의 두 가지 태도 양상은 정원과 풍경의 원초적인 속성을 각자 대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고목, 덩굴, 폐허로 얹힌 복합하고 거친 풍경의 질감에 공간적으로 열린 이러한 정원은 그 확장되어지는 면모를 시시각각으로 조망하며 주인공들의 이성과 감성을 조화시키고자 한다.

관습적인 맨스필드 저택 정원은 닫힌 구도 속에서 거친 통일감을 형성하고 있다. 이에 불가항력적으로 적응하는 페니는 전체로서의 그림으로 정원을 상투화한다. 자칫 거실의 풍경화처럼 무미건조해질 위험을 지닌 이러한 정원은 작중 인물들의 가벼운 사고방식이나 생태주의적 식견을 통해 드러난다. 오스틴은 이러한 답답함을 나무 하나의 성장처럼 개인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하려 하고 있다.

제5장 결론 및 고찰

1절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간 정원 인식의 분화

제인 오스틴이 소설을 집필하기 시작하던 18세기 후반의 정원들은 그 안에 산, 들, 물 등 자연의 다양한 요소들을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방식의 융합을 통하여 끌어들이으로써 추상적인 동시 현실적으로 열린 정원을 조영하고자 하였다. 제인 오스틴은 그녀의 초기작인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정원과 풍경의 경계를 흐리는 기작에 초점을 맞추어서 두 프로타гон리스트들로 하여금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상충되는 가치관을 조율하도록 한다. 이들의 정원에서는 여러 점에 보이는 풍경의 단편들이 다층적인 스케일로서, 다양한 정원들에 투사된다. 반면 19세기로 이어지는 맨스필드 파크에서 정원은 정착된 한 점에서 보이는 전체로서의 풍경이 인간적인 스케일에 입각하여 그려지게 된다.

두 소설을 통하여 풍경 ‘식’의 분화에 대한 제인 오스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공리주의나 사회적 관습에 따른 모사적인 정형적, 자연적 요소의 융합 이면에 정원 조영에 숨은 의도와 의미를 드러내어 준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그녀는 나름대로 당시 정원 개념에 대해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는 필연적으로 사회문화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나, 동시에 본인의 주관적인 해석과 경험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독창적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적인 초기 풍경 정원의 조영자들의 관념에 사회문화적으로 재구성되는 양식이 혼합된 당시의 과도기적 분화 양상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는 정원의 차이는 다양하고 다자적인 통섭이자 가능성으로서의 정원으로써 다소 천진난만한 시각에서 그녀의 전기작에 기록된다. 한편, 풍경의 전체주의나 정형물의 독식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그녀의 맨스필드 정원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은 19세기에 들어서며 부자연스러움의 조화를 통한 상징적 픽처레스크성을 도모하려던 당시의 성급한 경향을

풍자한다. 풍경의 전체주의를 치장하는 숭고를 허탄하거나 일방적이고 독식적인 식견과 가부장적(patriarchal) 권위를 상징하는 토지주나 도시로부터 놀러 온 친지들의 자연에 대한 가벼운 치장을 비교하며 오스틴은 형식적 자연스러움 이면에 오히려 바람직하지 못한 인간적인 온상을 설명한다. 부드러움과 거칠음의 기계적 단조로움을 비판 없이 수용하는 도구적 풍경이 된 정원 속에서 그녀는 창조적이지 않은 수용성, 가변적이지 않은 고정성, 변화 없는 안정성 등을 당시 정원의 복합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주변 인물들 및 상황에 입각하여 다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과정으로서의 정원과 결과물로서의 정원 사이에서 그녀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정원 인식에 대한 분화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 제인 오스틴의 두 소설 간 정원에 대한 인식 분화

의미소	이성과 감성 (1811)	맨스필드 파크 (1814)
장소	조화와 과정으로서의 정원 내면과 하나 되는 요소로서의 풍경 주관적 재구성을 위해 자연 이용	권위와 결과로서의 정원 전체적 그림으로서의 풍경 기계적 모방으로서 양식 이용
태도	관상적 자연주의 환원주의	행동적 생태주의 전체주의
감정	감상적 이성적	충동적 직관적
인물	배려 통한 조화 평가적 측면 부각 취향의 공유	관습화된 가치의 수용 수행적 측면 부각 취향의 분화
자아	낯섬을 통한 친숙함 통합 다양한 경험의 장 창문 통한 이차적 조망 자유 의지	친숙함 통한 낯섬의 통섭 일반화된 교육의 장 직접적 수용 순응 의사

2절 제인 오스틴의 소설 속 정원의 의미

1. 회유의 정원

『이성과 감성』의 ‘간접적’ 회유와 『맨스필드 파크』의 ‘직접적’ 회유는 인간을 둘러싼 풍경과의 지속적 관계 속에서 일상적이면서도 동시에 특수한 영역으로서 정원의 기능을 양가적으로 드러내 준다. 개인적인 이상이나 철저히 통제된 이성이 전작에서 다소 낭만적인 방식으로 현실로 회유되었다면, 『맨스필드 파크』에서 정원은 페니로 하여금 직접적으로 당대의 관습과 양식에 적응하도록 한다. 공통적으로는 두 정원 모두 그녀들에게 어느 정도 타협과 절충을 통한 위안을 준다. 제인 오스틴의 소설들에서 전후적 관계를 통해 드러나는 회유적 방식의 차이는 절충적 낭만성(sense of romantic)과 본격적인 양식으로서 도래하게 될 낭만주의(Romanticism) 사이에 일시적으로 분화되는 주위 환경에 대한 인식적인 차이를 보여준다. 후기작으로 갈수록 ‘무엇을’ 보다는 ‘어떻게’ 회유되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제인 오스틴은 당시 이러한 사회적 변화를 감지하고 주변 인물들의 정원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다층적인 절충의 과정을 탐색하였다.

2. 공감의 정원

『이성과 감성』의 ‘기억과 경험으로서 공유되는’ 정원과 『맨스필드 파크』의 ‘취향으로 공감되는’ 정원은 전작에서는 보다 주관적으로, 후기의 작품에서는 실천적으로 투영된다. 일상적 삶을 담는 그릇으로서의 역할이 대두된 이성과 감성 속 정원들에서 코티지의 친숙한 소재는 일반적으로 탐색되는 지평으로, 오스틴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익숙한 풍경에 귀의시킨다. 한편, 맨스필드 파크의 페니는 사회적인 취향에 부합하는 정원에서 동질적인 요소들을 통하여 내면적 성찰을 이룬다. 때로는 다소 거칠게 주변 인물의 훨씬 관습적이고 정태적인 사고와

대조되는 그녀의 성찰 의식은 정원을 통해 공감되어야 할 인간 본연의 감성과 그 진의를 상호 대조적으로 정원 공간을 통하여 표출하고자 한다.

3. 절충의 정원

『이성과 감성』의 ‘대립’에 대한 절충과 『맨스필드 파크』의 ‘전체적’ 절충은 정원 공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갈등과 위기 상황 가운데 그녀의 프로타고니스트들을 내외면의 균형적 상태로 이끈다. 『이성과 감성』의 주로 코티지로 귀결되는 정원들은 계몽주의 이후로 결핍된 낭만주의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보충하며, 그 나름의 보수적 측면을 당시 풍경식 양상과 혼합하는 방식으로서 해체한다. 『맨스필드 파크』에는 전작에 잘 드러나지 않은 고전주의적 요소가 도리어 회귀되며, 통섭적 절충안을 모색하였다. 시대적 전후 관계를 기점으로 서로 상충하던 요소가 맞물려 균형을 이루는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정원들은 그러므로 사회문화적 양식의 분화의 산물로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절충하고 타협하는 과정을 통해, 당시 잃어버린 영국성의 회귀를 바랐던 작가의 의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4. 치유의 정원

『이성과 감성』의 ‘과도한 감정 또는 이성’을 매개하거나 『맨스필드 파크』의 ‘수동적 적응으로 인한 불완전한 자아’에 대해 실마리를 제공하고자 한 제인 오스틴의 정원은 프로타고니스트들의 위기의식이 안정, 혹은 일시적인 위안을 찾는 치유의 정원이 된다. 다양한 간극에 대한 매개의 장으로서 구실하는 이들 정원들은 극단적 성향이나 결과주의적 유행을 수정하거나 보충하는 방식으로 화자들이 트라우마로부터 회복되도록 한다. 다양화되고 유기적으로 연결된 전작의 정원들과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한 요소들의 조화 속 부조화가 더욱이 부각된

후작의 정원들은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하여 분화되는 점에도 불구하고 공통적으로 가장 온전하며 이상적인 풍경을 통해 그러한 정신을 표현하는 이들에게 치유의 정원이 되고 있다.

5. 비유의 정원

『이성과 감성』의 ‘감정적이거나 관념적인’ 투상과 『맨스필드 파크』의 ‘의지적’ 투상은 정원 공간을 이중적 투상물로서, 또는 단일 투상물로서 보도 록 한다. 정원을 응시하는 그녀의 프로타гон리스트들은 본다는 행위를 통하여 개인적인 비유를 전작에서 달성하거나, 사회적 행동을 통한 사회, 윤리적 비유로서 후기 작품에서 정원을 이용하였다. 감정(pathos)과 이성(logos)에 대립되는 윤리(ethos)는 주관적인 풍경의 인식이 우세하던 전기의 정원들에 비하여 맨스필드 정원을 사회적 인식의 장으로서 기능하도록 한다. 사회를 비추는 거울처럼 작용하며 후자 정원은 개인의 직관을 형성하는 데에 이전 작품에는 부족한 맥락(context)을 부여한다.

3. 결론 및 고찰

낭만주의와 고전주의의 사이에서 제인 오스틴 소설 속 정원들은 각각의 요소들이 보충되고 결핍되는 기작을 장소, 태도, 감정, 인물, 자아의 의식적 변화를 통하여 환기시킨다. 풍경식 정원을 완전히 정형적이지도, 또한 표현적이지도 않은 단지 매개적 상투물로서 인식한 그녀에게 있어 정원의 의미성은 다양한 인물들의 주체적 의식들이 사회문화적 맥락 안에서 각기 순간적으로 발화되는 순간들이다. 그러한 순간들이 그녀의 서사 단위로 구성되어 정원에서의 보다 성숙된 일반적 사고 및 비판 의식으로 진척되는 그러한 발달 양식은 정원예술로서 그녀의 환경을 인식한 결과물로 볼 수 있다. 성급한 모방으로 대중의 취향이나 공공성이 이

용되는 것을 경계하며, 각각의 취향이 다자적으로 열린 소통하는 정원을 꿈꾼 그녀는 ‘어디서 본 것으로 구성된’, ‘초록 밖에는 볼 게 없는’ 당시 새로 도래되던 단조로운 선입견을 풍자하며 사적인 특성과 공적인 특성으로서의 두 가지 과정이 모두 고려된 정원을 그렸다. 그녀는 이러한 변화를 두 작품을 통해 주요하게 드러내며, 지속적으로 변화되며 스스로 재구성 될 열린 정원을 ‘흥미로운’ 정원으로 보았다.

참고문헌

<단행본>

- Albemarle, George(1900). *Hampshire: with the Isle of Wight*. London: J.M. Dent & Company.
- Austen, James Edward(1871). *Memoir of Jane Austen*. London: Richard Bentley And Son.
- Feltham, John(1803). *A Guide to all the Watering and Sea-Bathing Places*. London: G.Sydney Printer.
- Jane Austen, *Sense and Sensibility*, 김현숙 (역)(2007). 『이성과 감성』, 서울: 북스.
- Jane Austen, *Mansfield Park*, 이미애 (역)(2013), 『맨스필드 파크』, 서울: 지식을 만드는 지식.
- Kidson, Peter(1965). *A History of English Architecture*. Pelican Books.
- Sutherland, Kathryn(2006). “Chronology of composition and publication,” in *Jane Austen in Context*, Janet Todd. Dordrecht: Kluwer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omalin, Claire(1999). *Jane Austen, A life*. Vintage Books.
- Wilson III, Raymond J(2003). “Gardens in Stoppard, Austen, and Goethe, Gardens and the Passion for the Infinite,” in *Gardens and the Passion for the Infinite*, Anna Teresa Tymieniecka.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학위 논문>

김진희(1995). 영국 풍경식 정원의 미 ‘픽취레스크’에 관한 연구 : 미적 개념과 정원에 대한 영향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과 석사학위논문.

정서현(2012). 제인 오스틴의 센서빌리티 다시 쓰기: 『센스와 센서빌리티』에 재현된 여성 주체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 석사학위논문.

<학술지 발표논문>

문학숙(1998). “제인 오스틴의 『이성과 감성』에 나타난 마리앤 대쉬우드의 도덕적 성장,” 『인문연구』, 34: 83-104.

문학숙(2000). “제인 오스틴과 페미니즘: 『맨스필드 파크』,” 『근대영미소설』, 7(2): 231-254.

민주식(2014). “픽처레스크 정원에서의 폐허 예찬: 샌더슨 밀러의 인공폐허건축을 중심으로,” 『미학』, 80: 81-125.

박미경(2014). “영시의 전통과 문학사의 재구성: 포우프, 그레이, 워즈워스의 자연,” 『세계문학비교연구』, 48: 121-152.

박은영, 유상준(2012). “영국 코타지 정원의 발전과 정원요소: Barrinton Court와 Hidcote Manor를 중심으로,” 『한국전통조경학회』, 10: 14-21.

서영채(2000). “절대 공간으로서의 풍경: 두 번째 풍경과 존재론적 순간,” 『한국현대문학연구』, 41: 569-604.

유종인(1998). “제인 오스틴의 세 소설에 나타난 날씨에 관한 연구: 『지성과 감성』, 『엠마』, 『맨스필드 파크』,” 『민족과 문화』, 8: 209-235.

이월지(2000). “제인 오스틴 소설의 ‘여가의 문제’ 재평가,” 『근대영미소설』, 7(2): 119-142.

이혜지(1997). “제인 오스틴 소설에 나타난 제국주의적 요소들: 『맨스필드 파크』를 중심으로,” 『근대 영미소설』, 4: 55-77.

- 조선정(2006). “여성의 성숙과 교육—제인 오스틴의 『맨스필드 파크』 읽기,”
『영어영문학』, 52(4): 835-859
- 최인환(2005). “래드클리프의 『숲속의 로맨스』에서의 자연경관 묘사의 의미와
역할,” 『근대영미소설』, 12(2): 295-313.
- Gilbert Ryle(1966). “Jane Austen and the Moralists,” 『The Oxford Review』
- Joan Austen-Leigh(1982). “Chawton Cottage Transfigured”, 『Persuasions:
Jane Austen Society of North America』, 4.
- Stephanie Barron, “La vicenda più intensa e drammatica dell’ investigatrice
Jane Austen in 「Jane e i fantasmi di Netley」” 『TEA』 (2015), vol. 7.

<정기간행물>

- 김현돈(2005). “서양예술사에 나타난 자연과 인간,” 『대동철학』, (대동철학회,
2005).
- 마순영(2008). “산업혁명기 영국의 풍경화와 풍경이론: 터너의 풍경화,” 『인
간 · 환경 · 미래』, (인제대학교 인간환경미래연구원, 2008).
- 신혜승(2010). “18세기 영국의 ” 랜드스케이프 “와 ” 사운드스케이프 “,” 『음
악학』, (한국음악학학회, 2010).
- 이지영(2013). “오늘날의 풍경, 풍경화,” 『미술세계』, (2013년 7월).이지영
(2013). “오늘날의 풍경, 풍경화,” 『미술세계』, (2013년 7월).
- 최영국(2001). “자연과 인간의 사이,” 『국토』, (국토연구원, 2001).
- 황주영(2007). “윌리엄 켄트의 정원에 나타난 풍경화적 속성,” 『미술사논단』,
(한국미술연구소, 2007).

<기타>

“이코모스,” http://www.international.icomos.org/charters/gardens_e.htm (검색일: 2015년 11월 10일).

『네이버 지식백과 중 현상학사전』, “자아” 항목

Austenonly (2010), Jane Austen in Bath: Sydney Place, “Austenonly“, (<http://austenonly.com/2010/03/06/jane-austen-in-bath-sydney-place/>)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Austenonly (2009), “Jane Austen’s Particular Places: Southampton“, (<http://www.unteconjaneausten.com/jane-e-i-fantasmidi-netley-serie-s-barron-vol-7/>)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Chawton Cottage(2013), “The Saga of Jane Austen’s Ring, and the American Connection, (<https://janeaustensworld.wordpress.com/tag/chawton-cottage/>)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Ellenandjim (2014), The Austen Papers: Steventon, the world into which Jane Austen was born,” (<https://reveriesunderthesignofausten.wordpress.com/>)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Janeite Deb (2012), “Jane Austen in Kent ~ Or, How a Set of Pimpernel Coasters Set Me on a Journey“, (<https://janeausteninvermont.wordpress.com/2012/02/27/jane-austen-in-kent-or-how-a-set-of-pimpernel-coasters-set-me-on-a-journey/>)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Stoneleigh Abbey (2010), “Cassandra Leigh Austen’s Stay at Stoneleigh Abbey“, (<https://janeaustensworld.wordpress.com/tag/stoneleigh-abbey/>) (검색일: 2015년 10월 19일)

부록

[표 5-2] 『이성과 감성』에 사용된 단어 빈도 표

UNIT/ GARDENS	1. Norland Park (Sussex Home)		2. Barton Park (The Arrival)		3. Barton Cottage (New House)	
PLACE	house	20	house	17	engagement	19
	fortune	8	cottage	8	beauty	10
	furniture	7	entrance	7	marriage	9
	marriage	7	money	6	advantage	9
	money	6	small	4	valley	9
	large	6	window	4	park	8
	accommodation	5	view	3	home	8
	invitation	5	hill	3	house	7
	estate	5	room	3	cottage	7
	engagement	5	garden	3	hill	7
	opportunity	5	improvement	3	country	6
	continuance	5	invitation	2	continuance	6
	cottage	4	home	2	walk	6
	future	4	wood	2	part	5
	income	4	valley	2	handsome	4
	payment	4	whole	2	view	4
	merit	4	spring	2	whole	4
	handsome	4	parlour	2	music	3
	expense	3	style	2	amusement	3
	garden	3	passage	2	fortune	3
	minute	3	country	2	attraction	2
	resemblance	3	beauty	2	estate	2
	state	3	expense	2	ability	2
	performance	3	part	2	conjecture	2
	home	3			village	2
	conjecture	2			opportunity	2
	household	2			resemblance	2
	living	2			soft	2
	address	2			perfection	2
	attraction	2				
	comprehension	2				
	property	2				
	principle	2				
	disposition	2				

MANNER	affectionate	11	interested	2	elegant	12
	attentive	10	civil	2	intimate	7
	goodness	6	kind	2	admire	6
	generous	6	simple	2	attentive	6
	interested	5			good	6
	amiable	5			employ	6
	suspect	5			affectionate	5
	cold	4			agreeable	5
	admire	4			cold	4
	civil	3			humorous	4
	assist	3			gentle	4
	agreeable	3			common	4
	interested	3			frank	4
	respectable	3			suspect	4
	elegant	3			civil	4
	persuade	3			indifferent	4
	graceful	2			obliged	3
	intimate	2			kind	2
	sanguine	2			conquest	2
					eager	2
					cold	2
					interested	5
					earnest	2
					mutual	2
					pursue	2
					sincere	2
					respect	2
EMOTION	comfortable	12	comfortable	5	happy	15
	love	7	delighted	5	delighted	13
	pleased	6	joyful	4	satisfied	12
	delighted	5	happy	4	pleased	8
	cheered	5	satisfied	4	animated	8
	afflicted	4	cheered	3	enjoy	4
	happy	4	anxious	2	solicited	4
	displeased	3	melancholy	2	pride	3
	satisfied	3	relief	2	comfortable	3
	disappointed	3	romantic	2	obliged	3
	melancholy	3			bright	2
	exerted	3			cheered	2
	consoled	2			distressed	2
	dissatisfied	2			gratified	2
	sorrowful	2			amazed	2
	wretched	2			earnest	2

CHARACTER	acquaintance	7	party	3	gentleman	5
	children	6	ladyship	2	friend	5
	husband	5	friend	2	ladyship	5
	family	4	child	2	acquaintance	4
	person	3	servant	2	family	4
	father	3			companion	4
	wife	3			party	3
	party	2			sportsman	3
	brother	2			rich	3
	gentleman	2			mother	3
	neighbour	2				
SELF	sense	10	tear	4	opinion	13
	taste	9	cry	4	heart	13
	spirit	9	hope	3	hope	10
	value	9	want	3	sense	10
	opinion	7	tranquil	2	spirit	10
	doubt	7	opinion	2	imagine	8
	separation	6	dejection	2	venture	7
	express	5	doubt	2	taste	6
	heart	5	liberty	2	secret	5
	partiality	5	journey	2	secured	5
	truth	4	pain	2	attached	4
	attached	4	life	2	dependance	4
	distance	3			fancy	3
	assurance	3			honor	3
	expectation	3			curious	3
	pain	3			doubt	3
	preference	3			assert	3
	reflection	3			soul	3
	wish	3			pain	2
	hope	3			insensibility	2
	honor	2			wish	2
	fancy	2			desire	2
	esteem	2			inferior	2
	security	2			confidence	2
	imagination	2			esteemed	2
	assurance	2				
	loss	2				
	romance	2				
	life	2				
	limit	2				
	indulge	2				

[표 5-2] 『이성과 감성』에 사용된 단어 빈도 표 -1

UNIT/ GARDENS	4. Whitwell and Mrs. Smith's Mansions (Invitation)		5. Portman Square and Mrs.Jenning's home in Berkely Street (London Town)		6. Cleaveland and Barton Park (Back at the Barton Cottage)	
PLACE	house	8	street	18	house	6
	engagement	4	nothing	17	recovery	3
	morning	4	engagement	17	window	3
	advantage	3	marriage	16	merit	3
	cottage	3	house	14	idleness	2
	alteration	3	town	10	home	2
	horse	3	home	9	alteration	2
	marr9age	3	continuance	8	recollection	2
	entrance	2	alteration	6	marriage	2
	conveniency	2	odd	3	nothing	2
	conjecture	2	whole	3	open	2
	estate	2	invitation	2	whole	2
	ground	2	handsome	2		
	park	2	opportunity	2		
	place	2	conjecture	2		
			mistake	2		
			motionless	2		
MANNER	affectionate	6	affectionate	11	affectionate	13
	indifferent	3	persuade	8	persuade	5
	tender	3	attentive	7	hasty	3
	good	2	cruel	6	compliment	3
	encourage	2	admire	6	hesitate	3
			civil	5	kind	3
			elegant	4	tender	2
			kind	4	amiable	2
			pity	4		
			good	2		
			intimate	2		
			rupture	2		
			amiable	2		
			patient	2		
EMOTION	delighted	3	pleased	16	happy	8
	pleased	3	happy	15	solitary	6
	happy	3	comfortable	13	comfortable	6
	suspect	3	anxious	8	anxious	4
	compassionate	2	compassionate	6	joyful	2
	satisfied	2	satisfied	6	pleased	2

	anxious	2	disappointed	5	guilty	2
	cheered	2	unhappy	5	compassionate	2
			uneasy	4	delighted	2
			amused	3	cheered	2
			unpleasant	3	exerted	2
			indignation	2		
			dissatisfied	2		
			melancholy	2		
CHARACTER	party	8	acquaintance	8	companion	4
	family	3	gentleman	5	gentleman	2
	company	2	company	5		
	acquaintance	2	society	3		
			family	2		
SELF	doubt	5	hope	14	heart	11
	heart	3	determination	12	hope	5
	tear	3	pain	9	spirit	5
	hope	2	heart	8	honor	3
	overcome	2	imagination	6	overcome	3
	extraordinary	2	soul	6	pain	3
			confidence	5	confession	2
			truth	5	calm	2
			suffering	5	confidence	2
			opinion	4	selfishness	2
			love	4	explanation	2
			fancy	4	voice	2
			consciousness	3	opinion	2
			assurance	3		
			spirit	3		
			wish	3		
			secret	3		
			sense	3		
			misery	3		
			meditation	2		
			opposition	2		
			taste	2		
			privacy	2		
			doubt	2		
			attached	2		
			sickness	2		
			separation	2		

[표 5-3] 『맨스필드 파크』에 사용된 단어 빈도 표

EVENTS / UNIT	PLACE	MANNER	EMOTION	CHARACTER	SELF
Setting (Leaving Home)	marriage(4) handsome(4) fortune(3) maintenance(2) income(2)	well-disposed (3)	satisfied(2)	children(8) family(2)	hope(2)
New Encounter (New Home)	home(7) house(4) fortune(3) alteration(3) house(2) service(2) removal(2)	good(4) kind(3) encourage(3) advice(2) affectionate(2)	fear(6) consoled(4) sorrow(4) comfort(3) happy(3) satisfied(2) pleased(2)	cousin(5) nobody(2)	heart(3) loss(3) love(2) deficiency(2) reconcile(2) strange(2) want(2) shy(2) right(2)
Childhood (Education)	income(6) marry(6) horse(3) pony(3) large(3) home(2) country(2) fortune(2) accomplishment (2) whole(2)	obliged(2)	delighted(2) happy(2)	youngman(4) society(2)	determination(2)
Relative Relations (Positioned)	parsonage(6) shrubbery(5) health(4) advantage(3) old(3) marriage(3)	obliged(3) good(2) civil(2) care(2)	pleased(9) envy(2) fear(2) surprised(2)	beauty(4)	love(3)

	harvest(3) engagement(3) country(3) wall(3) state(2) home(2) party(2) horse(2) ride(2) pretty(2) alteration(2) music(2) walk(2)				
Fanny's Rides (Maturation)	walk (15) wilderness (12) house(6) home(5) heat(5) avenue(5) view(5) rose(4) garden(4) key(4) hill(4) distinction(4) cutting(4) iron gate(3) alteration(3) distance(3) window(3) plant(3) plan(2) wall(2) chapel(2) variety(2)	attentive (4) cautious (3) prohibited(2) object(2) eager(2) civil(2) gratification(2) assist(2)	pleased (9) happy(5) gloomy(3) comfortable(3) delighted(3) disappointed(2) tired(2) vexed(2) solitude(2)	clergyman (6)	locked (7) rest (6) wish (5) tired (5) heart(4) excuse(3) love(3) spirit(3) truth(2) want(2) opinion(2) unreasonable(2) desire(2) determination(2)

Entering Society (Relationships)	play (10) amusement (7) representation (7) absence (7) small (6) house(5) expense(4) window(4) consequence(3) theater(3) stage(3) power(3) parts(3) property(2) business(2) comedy(2) decorum(2) walk(2)	refuse (7) humorous(4) disapprove(4) authorized(3) interested(3) intimate(3) interpose(3) suspect(3) judicious(3) obliged(3) agreeable(2) join(2) pursue(2) respect(2) attentive(2) delicate(2) compliment(2)	anxious (6) happy (5) distressed(3) vexed(2) satisfied(2)	father (7) clergyman (7) cottager's wife(4) ourselves(4) wife(3) friend(3) acquaintance(2) society(2)	acting (7) doubt (5) determination (5) opinion(4) tragedy(4) hope(4) innovation(3) judge(3) modesty(3) reason(3) distinguish(2) excuse(2) inconsistent(2) idea(2) love(2) attempt(2) wish(2) spirit(2) warmth(2) shame(2) sense(2) talent(2) soliloquy(2) heart(2) believe(2) word(2) motive(2)
Power Games (Patriarchal Authoritative)	amusement (4) prosperity (3) consequence (3) departure (3) invitation (3) alteration(2) country(2) settle(2) home(2)	intimate(3) attentive(3) compliment(3) civil(2)	pleased (7) anxious (6) happy(5) delighted(2) satisfied(2) sorrowful(2)	party(3)	opinion (3) escape(2) subject(2) suffer(2) word(2) mortified(2)

Fanny's Triangle (Love)	ball (7) hunting (6) reflection (5) house (5) continuance(4) walk(4) plan(4) view(4) home(4) completion(4) approach(3) place(3) game(3) idleness(3) dance(3) farmyard(3) dish(3) ground(2) open(2) calm(2) meadow(2) ornament(2) marriage(2) alteration(2) decorum(2) engagement(2)	kind (6) compliment (5) gaiety(4) demanding(3) gratitude(3) admire(3) imposing(2) attentive(2) encourage(2) agreeable(2) suggest(2)	happy (15) pleased (15) satisfied (6) delighted(5) comfort(4) joyful(3) regret(2) grave(2) distressed(2) disappointed(2) uneasy(2) horror(2) affectionate(2)	beauty (4) evil(2) friend(2) companion(2)	refuse (12) love (8) hope (7) wish(5) fatigue(5) attached(4) deserve(4) hardship(4) distance(3) pain(3) assured(3) inquiry(3) spirit(3) idea(3) question(3) longed(3) consideration(3) doubt(2) sense(2) honor(2) solicitude(2) competition(2) indulge(2) want(2) heart(2) choice(2) judge(2) expression(2)
Fanny's Choice (Identity)	animation (7) change (6) house(5) walk(5) nature(3) home(3) beauty(3) opportunity(3)	encourage(2) attentive(2) kind(2) gratitude(2) tender(2) oppress(2) compliment(2) persuade(2)	happy(12) comfortable(6) pleased(6) anxious(6) affectionate(4) attached(3) cordial(2) delighted(2)	company(6)	love(6) hope(5) determination(5) heart(5) sense(4) inclination(4) separation(3) awareness(3)

	advantage(2) journey(2) continuance(2) health(2) delicacy(2) state(2)	overpower(2) hesitate(2)	disgusting(2) unpleasant(2) satisfied(2)		consciousness(3) pain(3) spirit(3) distant(2) allusion(2) imagination(2) honor(2) curious(2) wish(2) ashamed(2) doubt(2) want(2)
Gathering Scenery (The Ending)	possibility (5) punishment (4) continuance(2) wedding(2) infinite(2) business(2) advantage(2)	gaiety (3) attentive(2) intimate(2)	happy (10) anxious(6) disappointed(4) comfortable(4) delight(3) melancholy(3) fear(2) sorrowful(2) satisfied(2) solitary(2)	creature(2) father(2) friend(2)	fault (6) determination (5) love(5) hope(5) consciousness(3) confined(3) struggle(2) spirit(2) desire(2) subject(2) pride(2) wish(2)

Abstract

The Changing Meanings of Gardens in Jane Austen's *Sense and Sensibility*(1811) and *Mansfield Park*(1814)

Sun-jung, Kim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Advised by Prof. Jong-sang, Sung

This study analyzed the meaning of 18-19c British gardens through Jane Austen's two novels, *Sense and Sensibility*(1811) and *Mansfield Park*(1814). The subjective point of view on landscaped gardens was formed into the text based on Austen's real life gardens, varying from the cottage, mansion, ruins etc. She closely looked at how the landscape is coming into these gardens, and how her protagonists reacted to it. While her very first novel, *Sense and Sensibility*, which was written in the late 18c, puts her characters into various forms of gardens, her first among three latter 19c novels, *Mansfield Park* focuses on the sole protagonist rooted on the large Mansfield park.

Former gardens show the meaning of gardens in harmonious process, with the landscape drawn into the inner state. The latter ones are gardens as outcome, and landscape as a whole picture. Important contrasts on perceiving both gardens were sentimental/rational - impulsive/sensitive, natural - ecological, soliciting - accepting, friendly - strange, experiential - educational, judgemental - performative, gazing - adapting, free willed - adjusting. The most appeared form of Austen's garden was the cottage in the former novel which were

almost absent in the latter one. Meanwhile, the *sense of home* was projected along gardens in any forms.

This study analyzed the frequency, co-relationship, binary structure of the words that Austen used. Topics were chosen according to the importance. The meaning category — *Place, Manner, Emotion, Character* and *Self* was set beforehand to explain how the meaning of gardens was perceived and projected through her fictional circumstance. After the cross-textual study of two novels, meaning of garden was summarized as the garden of Persuasion, Sympathy, Negotiation, Healing and Reflection.

Kept traced between the influence of Romanticism and classical elements, her gardens showed major change through adding and removing the old and new elements. To Austen, landscape gardens were not too typical or expressive, but the simple mediating pools. Her meaning of garden is when such sense is developed and expressed under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 Will and perception of varying users were key to understand such process and her narrative, which develops into the matured and generalized sense and critical consciousness on the garden style. In this way, her novels are the result of her sensing the garden as an integrated art of her era. This study lacks more detailed study on Austen's real life gardens. It is expected in lieu to the studies on user preference and the categorization of surveying tools on user perception.